

구약
6

BELIEVER'S BIBLE COMMENTARY
Hosea · Joel · Amos · Obadiah · Jonah · Micah · Nahum · Habakkuk · Zephaniah · Haggai · Zechariah · Malachi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호세아 · 요엘 · 아모스 · 오바다 · 요나 · 미가 · 나훔 · 하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 말라기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선 지 서 (2)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Hosea · Joel · Amos · Obadiah · Jonah · Micah · Nahum
Habakkuk · Zephaniah · Haggai · Zechariah · Malachi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san4-dong, Il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차 례

약어표.....	6
저자 서문.....	7
편집자 서문.....	9
호세아.....	13
호세아 서론.....	13
호세아 주해.....	19
참고 문헌.....	36
요엘.....	37
요엘 서론.....	37
요엘 주해.....	41
참고 문헌.....	46
아모스.....	47
아모스 서론.....	47
아모스 주해.....	51
참고 문헌.....	62
오바다.....	63
오바다 서론.....	63

오바다 주해	67
참고 문헌	70
요나	71
요나 서론	71
요나 주해	76
참고 문헌	82
미가	83
미가 서론	83
미가 주해	87
참고 문헌	96
나훔	97
나훔 서론	97
나훔 주해	100
참고 문헌	106
하박국	107
하박국 서론	107
하박국 주해	111
참고 문헌	119
스바냐	121
스바냐 서론	121
스바냐 주해	125
참고 문헌	131

학개	133
학개 서론	133
학개 주해	136
참고 문헌	140
스가라	141
스가라 서론	141
스가라 주해	146
참고 문헌	173
말라기	175
말라기 서론	175
말라기 주해	179
참고 문헌	186
참고 문헌 일람표	187
부록	197
신구약 중간기	197
성경의 인물과 장소	209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 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 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TEV—오늘날의 영어 성경(Today's Bible Version)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문

“신자 성경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 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했

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덧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룬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아더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정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터디 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 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젖혀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

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 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 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 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리지 않고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그의 글의 목적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

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성경의 주요 언약들, 세대 구분, 성막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 보라.

(4) 책별 연구—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참고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

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는 30년 전에 세계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 바 있다. 새 흄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호세아

호세아 서론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죄의 본질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계시 중 하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에 대한 가장 선명한 해석 중 하나를 볼 수 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 누구든 그의 마음의 번민을 절감케 된다. 그때, 인간을 무한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이 사실을 알도록 하자.” (G. 캠벨 물건)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호세아서는 해설 내지 이야기 형태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내포한다(비록 문맥 안에 엮여져 있긴 하지만).¹⁾ 이야기 줄거리는 이렇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고멜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세 아이를 낳았다. 고멜은 충실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큰 사랑으로 그녀를 값주고 샀고, 그리고 종노릇과 타락에서 그녀를 구속했다.

1) (서론) 요나서가 이야기식으로 된 유일한 예언이다.

호세아 1장 2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기된 여인과 결혼하라고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다고 옮겨진다.²⁾

많은 성경 독자들은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중 한 사람에게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민감한 선지자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셨는가?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해답이 제시된다.

(1) 첫 번째는,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이며 문자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체가 이사야 7장 3절과 예레미야 13장 11절처럼 이야기체(narrative, 설화체)인데, 이 본문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신 명령으로 아무도 그것을 비유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견해에 있어 옳은 점은, 그 이야기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준다는 것이며, 그릇된 점은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호세아가 순종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확실히 본문을 정상적으로 대하는 방법

2) (서론) 물건은 에발트와 ERV와 ASV의 난하주를 좇아서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와 함께(호세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셨다”라고 옮겨놓았다. 그는 선지자 호세아가 과거에 하나님과 사귀는 나누던 일을 회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세아가 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비극이 내 삶에 임하기 전 여호와께서 나와 더불어 말씀하시던 그 때에 그분이 내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하셨다. 그 명령은 분명 그녀를 음란한 여자라고 불렀으나 그러나 그녀가 그 당시에 그런 여자였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멜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아셨으며, 곧 그 가능성이 행동으로 나타날 것을 아시고, 또한 그의 경험이 그의 예언 사역에 도움을 줄 것을 아시고 호세아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명하셨음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 고멜은 공공연한 죄인이 아니었으며, 자식이 태어난 것은 그녀가 결혼의 충성을 범하기 이전의 일이었다”(G. Campbell Morgan, *Hosea: The Heart and Holiness of God*, p. 9).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주 2를 보라.) 목적-이 경우에는 구원-이 호세아가 경험해야 했던 비극적인 수단을 정당화했다.

이 견해에 대한 반론은, 만일 고멜이 결혼하기 전에 창기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적절한 비유라는 것이다.

(3) 세 번째 해답은, 호세아가 ‘이후에’ 음녀가 된 순결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를 여호와와 그분의 신실치 못한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이 견해는 결혼에 대한 선지자의(그리고 성경의) 높은 이상에도 부합한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종종, 만일 고멜이 처음부터 부도덕했다면 호세아가 결혼관계의 과정을 그렇게 슬퍼했을 리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한 강력한 반론은 호세아 1장 2절은 그녀를 아내로 취하라는 처음 명령에서 그녀를 가리켜 “음란한 아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아마 부도덕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감은, 그 어떤 선지자나 설교자보다 훨씬 더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그리고 교회의 죄악)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이 예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범죄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히 보여준다.

2. 기자

호세아는 브에리의 아들이었다. 그 이름은 ‘구원’을 뜻하며, ‘여호수아’와 그 헬라이어 형태인 ‘예수’라는 이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

다. 그 이름에 걸맞게도 호세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임할 여호와의 구원에 관해 예언했다. 호세이는 주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선지자였으나 유다에 관계된 예언도 내포되어 있다.

3. 연대

호세이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며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던 때 예언을 했다. 그것은 BC 8세기에 수십 년에 걸친 기간이었다. R. K. 헤리슨은 호세이의 사역기간을 “BC 753년에서 BC 722년 사마리아 멸망 직전까지”로 잡는다.³⁾

4. 배경 및 주제

호세이는 앗수르의 북왕국 침략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의 아내 고멜이 그를 떠나 죄 가운데 부끄러운 삶을 살자, 하나님이 그분의 종에게 명하사 공개시장에서 그를 다시 사서 은혜를 베풀라고 하셨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브라임, 야곱, 사마리아 등으로도 불리움)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은 불충실하여 우상숭배와 도덕적 악함 가운데 살았다. 이스라엘은 여러 해 동안 왕도 제사장도 우상도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 때 에브라임은 그 우상숭배의 죄

3) (서론)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 860.

를 영원히 치료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헨리 게만은 이렇게 말한다.

“호세아서는 인간의 죄가 제지하거나 고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자비를 제시한다. 호세아서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하고도 소멸되지 않는 사랑은 모든 이스라엘을 그 사랑과 화목시키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징벌 뒤에는 G. 캠벨 물건의 말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

“이 모든 예언들에 담긴 으뜸 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까이 지낸 그 하나님이 사랑과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 진노로 대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거쳐 그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본문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고동소리이다.”⁵⁾

5. 개관

1.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거절당함 (1:1~9)
2.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1:10~2:1)
3. 이스라엘의 불충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예고(2:2~13)

4) (서론) Henry Snyder Gehman, Editor,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 Bible*, p. 410.

5) (서론) G. Campbell Morgan, *The Minor Prophets*, p. 6.

4. 이스라엘을 위한 장래 축복 예고(2:14~23)
5. 호세아의 아내의 구속-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에 대한 상징(3장)
6.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변론(4~10장)
 - 1) 백성들의 죄(4:1~6)
 - 2) 제사장들의 죄(4:7~11)
 - 3) 백성들의 우상숭배(4:12~14)
 - 4) 유다에 대한 특별한 호소(4:15~19)
 - 5) 제사장, 백성, 왕족의 악행(5:1~7)
 - 6)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심(5:8~15)
 - 7)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6:1~3)
 - 8)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6:4~11)
 - 9)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남(7:1~16)
 - 10) 우상숭배와 열방과의 동맹 까닭에 열방의 침략을 당할 것을 대비하라는 경고(8:1~14)
 - 11) 이스라엘이 죄악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고(9:1~10:15)
7. 분노 중에 긍휼을 기억하시다(11~13장)
8.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촉구(14장)

호세아 주해

1.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으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거절당함 (1:1~9)

1:1~5 여호와께서 브에리의 아들 선지자 호세아에게 불충실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르셨다. (이러한 결혼에 내포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의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를 보라.) 그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다.

그들의 첫 번째 아이는 ‘이스르엘’(하나님이 홀으시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암시해준다. 앗수르 군대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술 것이다.

1:6~7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궁핍을 얻지 못하다)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궁핍을 얻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암시한다. 한편 유다는 앗수르의 살육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1:8~9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였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치 않으셨다. 어떤 이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궁금해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2.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1:10~2:1)

1:10~11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모으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그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뤄질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 10절 후반부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9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에 대한 부름에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구약의 구절을 신약에 인용하실 때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1 2장에서 호세이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잔존자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 형제들은 암미(내 백성)와 루하마(공홀을 얻은 그녀)로 불리운다.

3. 이스라엘의 불충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예고(2:2~13)

2:2~3 신실한 잔존자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우상숭배와 음란을 제거하라고 호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에게 가뭄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2:4~5 범죄한 나라의 자녀들도 공홀을 입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거짓 신들을 좇고 그 우상들이 음식과 의복과 사치품을 줄 것을 의지한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2:6~7 하나님이 그녀의 길에 온갖 장애와 방해물을 두고 우상과 단절시키기를 그녀가 결심하고 그분(그녀의 첫 남편)께로 돌이킬 때까지 하실 것이다.

2:8 그녀는 바알 우상을 만들 때 사용하던 은금을 포함한 필수품과 사치품이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것임을 믿지 않았다.

2:9~10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양식과 의복을 끊고 그 수치를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다.

2:11~13 그녀의 희락과 정한 종교절기들이 철회될 것이며,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훼손될 것이며(그녀는 그것들이 그 우상 연인들이 그녀에게 준 값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징벌을 받을 것이다.

4. 이스라엘을 위한 장래 축복 예고(2:14~23)

2:14~17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실 것이며, 그녀는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처럼 노래할 것이다. 그 때 그녀는 그분을 ‘바알리’(내 주인)라 부르지 않고 ‘이쉬’(내 남편)라 부를 것이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서 깨끗함을 입되 바알의 이름조차 잊게 될 것이다.

2:18~20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평화로이 거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들짐승과 다른 짐승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들짐승을 유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도 끝날 것이다. 이

스라엘은 의와 공평의 조건 아래, 은총과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구속(拘束)되어 여호와와 영원히 결혼할 것이다.

2:21~23 그 날에 이스라엘(이스라엘)이 더 이상 ‘흠어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겨지다’는 의미일 것이다.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심겨지고, 하늘과 땅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풍성케 하는데 참여할 것이다. 윌리엄스는 본문을 이렇게 적절하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그 땅에 심으신(23절) 이스라엘(이스라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향하여 그녀의 필요를 공급하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향해 그들을 열매맺게 하라고 부르짖을 것이며, 땅은 하늘을 향해 과실을 맺기에 충분한 비를 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하늘은 여호와께 필요한 물로 채워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호소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위대한 최초의 원인자이시기 때문이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은 하늘을 물기로 채우실 것이며, 하늘은 그것을 땅에 쏟을 것이며, 그 결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고 이스라엘은 풍성한 공급을 누리고 하늘과 땅은 사랑의 줄로 함께 연결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녀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그분을 그녀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다.”⁶⁾

5. 호세아의 아내의 구속-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궁극적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상징(3장)

6) (2:21-23)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633.

3:1~3 그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기를 시장에 나아가 그의 신실치 못한 아내를 그 죄에서 구속하라고 하셨다. 그 값인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여자 노예의 값이었다. 그 후로 여러 해 동안 아무 결혼관계가 없어야 했다. 후에 그녀는 완전한 결혼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그녀는 여호와께 불충실하여 다른 연인들(우상)을 좇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구속하셨다.

3:4~5 그녀의 현재 상태는 4절에 주어진대로 왕도 없고, 군(君, 혹은 왕족)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우상)도 없고, 에봇(테위인 제사장직의 상징)도 없고, 드라빔(가족 신)도 없다. 이스라엘의 장래가 5절에 주어져 있는데, 그녀는 여호와께 돌아와 진실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이다.

6.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변론(4~10장)

1) 백성들의 죄(4:1~6)

4:1~3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실치 못함과 무자비함과 불경건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절도와 간음과 강포로 인해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2절에는 십계명 중 다섯 가지가 요약되어 있다. 그 계명들을 범한 것이 그 땅이 그런 상태에 빠진 원인이다. 임박한 심판 까닭에 들짐승의 생활조차 쇠잔해질 것이다.

4:4~6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식이 없으므로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2) 제사장의 죄(4:7~11)

4:7~11 백성들이 더욱 죄를 범할수록 제사장들은 더 많은 속죄제물을 탐욕스레 취했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으로서는 그들은 한가지로 부패했다. 그들은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종노릇하는 징벌을 당하여 그 속에 빠져 결코 만족을 모르게 될 것이다.

3) 백성들의 우상숭배(4:12~14)

4:12~14 이어서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지혜를 구했다. 그들은 산당에 올라가 나무 그늘 아래서 절을 올렸다. 남자들이 본을 보이고 여자들이 그 뒤를 좇았다.

4) 유다에 대한 특별한 호소(4:15~19)

4:15~19 유다는 이스라엘의 악한 본을 좇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스라엘은 완고하여 우상과 분리되기를 거절하고 영광보다는 수치를 원했다. RSV에서 16절은 이렇게 옮겨져 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초장에 있는 어린양같이 그들을 먹이실 수 있겠느냐?”

5) 제사장과 백성과 왕족의 악행(5:1~7)

5:1~7 제사장과 백성과 왕이 한가지로 우상숭배를 범했으며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에브라임이 창기가 되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범죄로 인해 징벌을 당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위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6)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고와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

십(5:8~15)

5:8~12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6장에서 발견된다. 이스라엘(에브라임)과 아람이 유다를 침략했다. 유다는 앓수르의 도움으로 반격에 나서 영토를 취했다. 베나민의 세 성읍이 징벌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좀 같고 유다 집에는 짝이 는 것 같을 것이다.

5:13~15 에브라임은 자신의 병을 깨닫자 앓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앓수르가 그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유다에게 고용된(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까닭에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처소로 돌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하셨다.

7) 이스라엘의 회개 촉구(6:1~3)

6:1~3 1~3절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다(5:15). 언뜻 보기엔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듯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아무 죄도 자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회개는 피상적이고 가식적이다. 이것은 이 장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되는 데서 알 수 있다. 참된 회개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2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암시를 내포할 수 있는데, 그 일은 ‘이틀 후에’ ‘제 3일에’ 일어났다.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그 부활에 의해 예표

되어 있는 셈이다. 한편 이 표현은 대환란 기간의 마지막 3'일'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슬픔은 처음 이틀간 지속된다. 그런 다음 제 3일에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나며 메시아가 출현한다.

8)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6:4~11)

6:4~6 이스라엘과 유다가 신실치 못한 까닭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징죄하셨다. 그분은 제사보다 사랑을, 번제보다 그분을 아는 것을 더 원하셨다.

6:7~11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⁷⁾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7~10절에 행악자의 고을, 강도 떼, 살인하는 제사장의 무리 등으로 묘사되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부를 회복시키시기 전에 고난의 추수를 거두기로 작정되었다(11절). (어떤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추수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추수라고 생각한다.)

(1)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남(7:1~16)

7:1~7 에브라임의 타락은 극심하여 속임과 강탈과 거짓과 악행과 간음과 술취함에 미쳤다. 백성들과 방백들이 정욕으로 뜨거워졌다.

7:8~10 그들은 열방과 혼합되어 그 힘을 소모했으며,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비유는 균형을 잃은 것을 암시한다. 전병의 한 쪽은 불에 타서 그을었으나 다른 쪽은 구워지지 않은 채 설익었다. 다시 말해서 예브

7) (6:7-11) 히브리어에서는 '인간'과 '아담'의 철자가 동일하다.

라임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다.

7:11~12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애굽과 아수르로 날아가서 도움을 청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물로 그 비둘기를 잡고 그 백성을 징벌하실 것이다.

7:13~14 그들은 여호와를 피해 달아났으며 아무 진실한 회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목소리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부드러운 회개의 호느낌이 아니라 상처난 짐승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다.

7:15~16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여 승리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으며, 따라서 패배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9) 우상숭배와 열방과의 동맹 깨달음에 열방의 침략을 당할 것을 대비하라는 경고(8:1~14)

8:1~3 앗수르 침략자는 이스라엘 위를 배회하는 독수리에 비유된다.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으며,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임박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고백했으나 실은 그분을 쫓아냈다.

8:4~6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뉜 것은 그분의 허락 없이 된 일이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게 했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혹은 현대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언제나 깨닫겠느냐?”라고 물으신다.

8:7~10 곡물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운

데 흠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앓수르와 열방 중의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구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이 “쇠하기 시작하리라”는 시적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8:11~14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가 많은 견고한 성을 의지한 까닭에 고난과 파멸이 임할 것이다.

10) 이스라엘이 죄악의 결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9:1~10:15)

9:1~2 이스라엘은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우상이 그들이 기대한 풍성한 추수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프랜시스 쉐퍼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법을 보라. 한 여자가 들에서 추수를 하고, 추수 현장에는 자유로움이 있다. 그녀는 추수하는 중에 어떤 남자에게서 돈을 받고 타작마당에서 그와 동침을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된 것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내가 배도하여 그런 자가 되었다.”⁸⁾

9:3~4 백성들은 간음 까닭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문자 그대로 애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속박과 같이 앓수르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들의 예배는 혼합된 예배로서 우상숭배와 여호와 숭배를 혼합하여 여호와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하고 그들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한다.

8) (9:1,2) Francis A.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 124.

9:5~9 그들은 그 땅에서 정한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에브라임의 장막이 백성들이 거하지 않고 찢레와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과 함께 포로로 잡혀갈 날이 가까웠다.

9:10~17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전도유망한 실과였으나 우상숭배에 빠져 불임과 자식들을 잃을 운명에 처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는 표현은(12절) 절대적인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17절 하반기를 보라). 남자의 인구가 급격히 줄 것이다. 그들의 영광을 가증한 것으로 바꾼 까닭에 에브라임은 “출산도 없고 잉태도 없다!”는 선고가 주어졌다.

10:1~2 전에 무성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번성함을 다만 우상숭배를 크게 하는데 이용한 까닭에 아무 열매도 없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하시며, 그 마음이 나뉘었다고 정죄하신다.

10:3~4 백성들은 하나님이나 왕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다. 최초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다고 맹세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에 걸친 점진적인 배도가 이어져 급기야 왕의 통치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의 영적인 죽음은 그들이 거스린 통치체제의 흐름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① 하나님(신정); ② 모세(율법수여자); ③ 여호수아(영적/군사적 대장); ④ 사사들(사사들의 치리); ⑤ 열왕(군주정); ⑥ 아무 왕도 없음(무정부). 그들은 공허한 맹세로 언

약을 맺었으며, 따라서 심판이 독한 인진 같이 그 땅을 덮을 것이다.

10:5~8 벤아웬(벤엘)의 금송아지⁹⁾가 앓수르인에게 끌려갈 것이다. 다음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여러 차례 구원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금송아지를 사랑한 것을 풍자하고 있다.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려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치 않다! 사마리아의 왕이 멸망할 것이며, 우상 신전이 훼파될 것이며, 사람들이 산과 언덕에게 부르짖어 그들을 가리우라고 할 것이다.

10:9~10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벌하는데 함께 했다(삿 20장). 그러나 그 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다.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사용하여 죄에 빠진 백성을 벌하실 것이다.

10:11 에브라임은 전에는 곡식을 밟는 가벼운 일을 위해 예비된 길들인 암소였으나 이제는 포로의 멍에를 질 것이며, 유다 역시 힘든 노동의 멍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0:12~15 그들이 그 곤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병거와 군사를 의지한 그 죄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땅은 전쟁에 휘말리고, 그 모든 견고한 성은 노략을 당하고, 사마리아는 훼파되고, 왕은 죽

9) (10:5-8) ‘벤엘’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벤 아웬’은 그 이름을 풍자적으로 바꾼 것으로 ‘죄악의 집’을 뜻한다.

입을 당할 것이다. ‘살만’(14절)은 살만에셀 3세를 말한다. 살라마누(Salamanu)라는 이름의 모압 왕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7.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하시다(11~13장)

다음 네 장에서 화자(話者)-여호와인지 호세아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 11:1~12:1

호세아: 12:2~6

여호와: 12:7~11

호세아: 12:12~13:1

여호와: 13:2~14

호세아: 13:15~14:3

여호와: 14:4~8

11:1~4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셨다 (출 12장).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분이 부르시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욱 우상을 좇았다. 그분은 에브라임을 사랑과 인자로 대하셨으나 에브라임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유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11:5~8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까닭에 애굽에 보냄 받지 않고 앗수르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드마스보임같은 평지 성읍들처럼 황량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불붙는 듯했다.

11:9~12 본문은 미래 시제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회복과 축복을 계획해두셨으며, 더 이상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12절은 12장의 첫 구절이다. 그것은 KJV와 NKJV처럼,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했으나 유다는 호세아 당시에 여전히 여호와를 의뢰하고 있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혹은 NASB처럼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다루기 힘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12:1~2 에브라임은 살아남기 위해 앗수르와 애굽과의 동맹을 의지했다는 점에서 바람을 먹었다. 하나님이 유다와 쟁론하신다. 비록 에브라임의 죄가 더 클지라도 야곱도 벌하실 것이다.

12:3 여기서는 족장 야곱을 말하고 있다. 다른 데서는 그가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승리를 얻은 자의 본으로 나타나 있다.

12:4~6 4절의 ‘천사’는 5절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및 ‘여호와’와 동일시된다. 그는 하갈과(창 16:7~11) 아브라함과(창 18:1~33; 48:16) 야곱(창 31:11~13; 48:16) 등에게 타난 여호와와의 사자와 동일하다. 출애굽기 3장 2절, 6~15절과 민수기 22장 22~35절도 참조하라.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가 육신을 입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에브라임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야곱의 본을 좇으라는 권면을 들었다(창 32:28).

12:7~8 그러나 에브라임은 간계한 가나안인(상인)¹⁰⁾이요, 속

10) (12:7,8) 가나안족은 욕심많은 “악덕 상인”(ERV, ASV)이므로 그들의 이름

이는 자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자부하는 자이다.

12:9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번성이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분의 은택임을 상기시키신다. 만일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명절일(장막절)처럼 그를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12:10~12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말씀하셨건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요단에 의해 나뉘진 북왕국의 두 지역인 길르앗과 길갈이 우상숭배로 인해 폐허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아람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겸손히 양을 쳤다.

12:13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야곱의 후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해내셨다.

12:14 그 일을 생각지 않고 에브라임은 우상숭배로 여호와와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그 피흘린 죄가 스스로에게 머물러 있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되돌려주고 그를 꾸짖으실 것이다.

13:1 에브라임은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는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스스로를 높였으나 이제 바알숭배에 빠지자 죽고 말았다.

13:2~3 이제 백성들이 점점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사람들에게 송아지에게 입맞추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타작마당의 쭉정이나 굴뚝의 연기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질 것이다.

은 '돈에 눈 먼 사람'과 동의어가 되었다.

13:4~8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필요를 공급하신 이는 여호와이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이켰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들짐승처럼 대하실 것이다.

13:9~13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실진대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는가? 에브라임의 죄는 심판 날을 위해 봉함되고 저장되었다.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나,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곳, 즉 산문(産門)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13:14 RSV는 이 구절의 전반부를 의문문으로 옮겨놓았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여기에는 “아니다”라는 대답이 내포되어 있다. 그 대신 그분은 사망을 불러 재앙을 임하게 하고, 음부를 불러 멸망을 임하게 하실 터인데, 이는 그분의 목전에 뉘우침이 숨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다른 의미로 인용되어 있다.

13:15~16 이어서 잔인한 앓수르인(“동풍”)에 의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 예고되어 있다.

8.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권고를 받다(14장)

14:1~3 이스라엘이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는 한편 장차 사용할 자백의 말까지 받고 있다. 앓수르를 의뢰하고 애굽의 말을 지지하고 우상을 섬긴 죄가 언급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한다.

14:4~7 자연을 비유로 든 아름다운 시를 통해 여호와께서 치유와 사랑과 신선함과 매력과 소생과 성장을 약속하신다.

14:8 여호와께서 8절에서도 계속 말씀하신다.¹¹⁾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우상이 과거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요 공급자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14:9 선지자 호세이는 지혜와 총명이 여호와의 도(道)를 순종함에 달려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예언을 마감한다.

11) (14:8) 구두점은 원문에는 없지만 대부분 번역이 일치한다.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Lee.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il, C. F. "Hosea."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Kidner, Derek. *Love to the Loveless: The Message of Hosea The Bible Speaks Toda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Logsdon, S. Franklin. *Hosea: People Who Forgot God*. Chicago: Moody Press, 1959.

Morgan, G. Campbell. *The Heart and Holiness of God*.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67.

Morgan, G. Campbell. *The Minor Prophet*.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60.

Pfeiffer, Charles F. "Hosea."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Stevenson, Herbert F. *Three Prophetic Voices. Studies in Joel, Amos and Hosea*.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71.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1.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요엘

요엘 서론

“요엘은…아마도 소위 집필 선지자 중 첫 번째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특히, 그 뒤를 잇는 모든 성경이 충실하게 따르는 마지막 때에 관한 개관을 제시해주는 까닭에, 예언 역사에 있어 소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하나님은 요엘서의 집필과 함께 새로운 일, 즉 그 잠시간의 시대의 마감을 위해 인류를 대비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로써 그분의 전체 계획의 개관을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을 포함해서 이후의 선지자들은 그 개관에 살을 붙인 것에 불과하며, 성경의 신적인 성격에 걸맞게도, 그들은 이 최초의 계시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몬타구 S. 밀스)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요엘의 예언은 비록 짧지만 아름다움이나 중요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 선지자 요엘은 생생한 문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운법, 수사법, 비유, 동의적-대조적인 대구법(대구법에 대해서는 시편 서론을 보라) 등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W. 그레햄 스크로기는 요엘의 문학적인 가치를 이렇게 극찬한다.

“요엘의 문체는 미려하고 선명하고 강렬하여 히브리 문학에서 높은 위치를 부여받아야 한다.”¹⁾

요엘서에서 가장 특이한 한가지는 메뚜기 재앙이다(1장).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나 아니면 침략군에 대한 상징으로 보아야 하나? 아마 둘 다일 것이다. 요엘 시대에(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큰 메뚜기 재앙이 유다를 덮쳐 그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한다. 이 대자연의 현상은 임박한 군대의 침략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다.

이 예언서의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2:28~32) 그 후에 이적이 따른다는 예언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이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에 요엘은 “오순절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2. 기자

요엘은 브두엘의 아들로 소개된다. 그 외에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을 뜻한다. 그는 구약의 세례 요한으로 불리운다.

3. 연대

요엘서에는 아무 왕도 언급된바 없으며, 그 책의 연대추정에 도움이 될 만한 연대적인 암시도 없다. BC 10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다양한 연대가 제시된다. 유대인이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열두권의 책” 가운데 요엘서가 배열된 위치는 유대인의 전통이 요엘

1)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Vol. 1, p. 155.

서를 초기 작품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그 문체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포로 후기 작품보다는 초기 작품에 더 잘 맞는다. 아무 왕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의 대리자로 다스리던 때(BC 835~796년에 다스리던 요아스의 소년기에) 이 책이 집필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한 유다의 대적들이 그 후기의 대적인 아람, 앓수르, 바벨론 등이 아니라 뵈니게 인과 블레셋 인(3:4), 애굽 인과 에돔 인(3:19) 등임을 볼 수 있다.

4. 배경 및 주제

만일 초기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요엘은 요아스의 통치에서 아하스의 통치까지 유다를 향해 선포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그가 집필 선지자 중 첫 번째가 되게 된다.

이 책의 중심 문구는 “여호와와 의 날”로서 다섯 번 발견된다(1:15; 2:1,11,31; 3:14).

2장 18절은 이 책의 전환점을 이룬다. 그 구절에 이르기까지 요엘이 유다에 임할 ‘황폐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임하게 하실 ‘구원’을 말씀하신다.

5. 개관

1.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1장)
 - 1) 그 유례 없는 가혹성(1:1~4)
 - 2) 그 결과
 - (1) 슬취한 자(1:5~7)
 - (2) 제사장(1:8~10, 13~16)
 - (3) 농부(1:11~12, 17~18)

- (4) 선지자 요엘(1:19~20)
2. 대적의 침략에 대한 묘사(2:1~11)
 3. 유다의 회개 촉구(2:12~14)
 4. 금식 선포(2:15~17)
 5. 하나님의 구원 약속(2:18~3:21)
 - 1) 물질적인 번성(2:18~19, 21~27)
 - 2) 대적의 멸망(2:20)
 - 3)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2:28~29)
 - 4)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징조들(2:30~32)
 - 5) 열방의 심판(3:1~16상)
 - 6) 유다 인의 회복과 장래 축복(3:16하~21)

요엘 주해

1.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1:1~20)

1) 그 유례 없는 가혹성(1:1~4)

1:1~4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를 통해 브두엘의 아들 요엘은 여기서 북방 군대에 의한 임박한 유다 침공을 묘사한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장래에는 침략자가 북방 왕(앗수르)이 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은 심히 가혹하여 장로들은 그와 같은 재앙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 재앙은 메뚜기의 성장에 따라 ‘씹는 메뚜기’,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 ‘기어다니는 메뚜기’, ‘다 삼켜버리는 메뚜기’ 등 네 단계였다.²⁾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던 바벨론, 메대바사, 헬라, 로마 등 네 세계 제국을 가리킬 수도 있다.

2) 그 결과(1:5~20)

1:5~20 (1) 술취한 자(1:5~7)

(2) 제사장(1:8~10, 13~16)

(3) 농부(1:11~12, 17~18)

(4) 선지자 요엘(1:19~20)

유다는 술취한 자들에게서 농부와(11~12, 17~18절) 제사장에

2) (1:1-4) KJV의 “송충이, 메뚜기, 자벌레, 모충”은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벌레를 암시하나,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르기까지(8~10, 14~16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촉구를 받았다. 메뚜기 떼가 땅을 말갭게 벗겨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과 제물이 남지 않게 되었다(8~10절).

선지자 요엘은 이것을 여호와의 날과 전능자에게서 온 파멸로 보았다(15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나타나 죄악과 반역을 무너뜨리고 영광스런 승리를 거두시는 때를 가리킨다. 장차 여호와의 날은 대환란 기간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와 하늘과 땅이 불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지자 요엘은 불이 초장과 나무를 다 살라버린 까닭에 백성들 편에 서서 여호와께 자비를 호소한다. 들짐승들도 시내가 마른 까닭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2. 대적의 침략에 대한 묘사(2:1~11)

2:1~3 백성들이 경보를 알리는 나팔소리를 통해 전쟁에 나가라는 촉구를 받는데,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가리키나 그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있다. 침략자가 오기 전에 유다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 후에는 황량한 광야 같을 것이다.

2:4~11 메뚜기를 달리는 군마와, 향오를 맞춰 성벽을 기어오르는 용사들과, 도적같이 사방에 침입하여 엄청난 수로 하늘을 어둡게 만드는 것에 비유한 본문의 표현은 선지서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시적인 묘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침략은 그 진(陣)이 심히 큰 여호와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

3. 유다의 회개 촉구(2:12~14)

2:12~14 아직도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신다. 그 분께로 돌이키기에 늦지 않았다. 그러나 외적인 의식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 그들의 돌이킴은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고 애통함으로 이뤄져야 했다.

4. 금식 선포(2:15~17)

2:15~17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성회로 모이고 금식일을 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장차 제사장들이 엄숙한 참회의 모임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5. 하나님의 구원 약속(2:18~3:21)

1) 물질적인 번영(2:18~19, 21~27)

2:18~19, 21~27 그 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겁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분은 열방 중에서 그들의 수치를 제해주는 한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만족케 하실 것이다. 그 땅은 회복되어 비옥하고 생산이 풍부할 것이다. 풍부한 비가 내려 독이 차고 넘치고 마당이 밀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또한 큰 메뚜기가 먹은 햇수가 다 회복될 것이다(2:25).

2) 대적의 파멸(2:20)

2:20 요엘서 나머지에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위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신다. 그분은 동쪽 바다(사해)에서 서쪽 바다(지중해)에 이

르기까지 북방 군대(앗수르 군)를 멸하실 것이다.

3)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2:28~29)

2:28~29 하나님이 그 날에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젊은 세대는 예언을 하고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 후자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26~21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오순절에 그 성취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 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천년통치가 시작될 때 이뤄질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선 징조들(2:30~32)

2:30~32 성령의 부음 뒤에 하늘의 이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예고된 징조들에는 피, 불,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 등이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분과 더불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5) 열방의 심판(3:1~16상)

3:1~8³⁾ 하나님이 열방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끄시고, 유대인을 박해한 것으로 인해 거기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고 속박한데 대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죄악에 상응하는 징벌로 종으로 팔릴 것이다.

3:9~16(상) 열방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듣는데, 이는

3) (3:1-8)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장 28~32절이 3장을 이루고, 현재의 3장이 4장이 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앉아서 주변의 모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한 개념이 오늘날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현재 모든 사람과 열방을 시험하고 계신다. 스티븐슨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개개인과 민족들에 대한 장차 올 심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거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날’에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 공정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대대로 견고히 고수해왔다. 그것이 성경의 반석 위에 기초한 우리의 확신이다.”⁴⁾

6) 유다인의 회복과 장래 축복(3:16하~21)

3:16(하)~21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과 침략자로부터의 안전과 풍부한 공급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과실과 물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산들은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는 물로 넘칠 것이다.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나 유다는 영원히 사람이 거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유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 책은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라는 확실한 이유를 밝힘으로 마감한다.

4) (3:9-16상) Herbert F. Stevenson, *Three Prophetic Voices. Studies in Joel, Amos and Hosea*, p. 40.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Lee.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il, C. F. "Joel."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2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Morgan, G. Campbell. *The Minor Prophet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60.

Stevenson, Herbert F. *Three Prophetic Voices. Studies in Joel, Amos and Hosea*.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71.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1.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아모스

아모스 서론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아모스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데 그 생애가 바쳐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요 전문적인 ‘예언자’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벧엘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그의 양떼를 떠났다. 그 일이 끝난 후 아마도 그는 드고아의 양 돌보는 일로 돌아갔을 것이다.” (허버트 F. 스티븐슨).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아모스서는 훌륭한 구약 히브리어 문체로 집필되었다. 아모스는 양떼를 먹이고 뿔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는 역사를 통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전통적인 “선지자 학교” 배경이나 정규 교육과정 없이 효과적이고도 훌륭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2. 기자

이름의 뜻이 ‘짐’(burden)인 아모스는 아무 족보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가 이사야나 스바냐 같이 고귀한 신분이거나 유명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흔히 설교자들은 아모스의 “시골”(country) 배경을 너무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생활 환경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이 단어는 “목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데서는 양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메사 왕에 대해서만 사용된(왕하 3:4) 단어이다.¹⁾

그는 비록 유다 왕국에 속했지만 북쪽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모스는 의로움과 타협을 모르는 정의감을 소유한 냉엄한 선지자였다.

3. 연대

아모스는 유다 왕 웃시아(BC 790~739)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793~753년) 통치기간에 사역을 했는데, 그 시기는 특히 북왕국의 경우에 풍부와 사치와 도덕적인 해이의 시기였다. 아모스는 이 때가 “지진 전 2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꼭 그 연대를 정확히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자들은 BC 760년 경에 큰 지진이 일어난 증거를 발굴해냈는데 이는 아모스가 밝힌 왕들의 연대와 일치한다.

4. 배경 및 주제

앗수르 왕 아닷니라리 3세가 아람 연합군을 격파하여 요아스와

1) (서론) 목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로에’이고, 양떼를 기르는 자에 해당하는 단어는 ‘노게드’이다.

여로보암 2세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대상들의 무역거점이 된 까닭에 큰 이득을 챙겼다. 상아궁이 세워졌고, 상인들은 안식일의 제한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부지는 강포하고 부패했고, 법정은 불공평했고, 종교의식은 속임수의 현장 내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다. 미신과 부도덕이 만연했다. 아모스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지속될 수 없음과 심판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비록 남왕국에 속했지만 북쪽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심판이 진행중인 여름 실과를 담은 광주리였다.

5. 개관

1. 여덟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1~2장)

- 1) 서론(1:1,2)
- 2) 다메섹(1:3~5)
- 3) 가사(1:6~8)
- 4) 두로(1:9,10)
- 5) 에돔(1:11,12)
- 6) 암몬(1:13~15)
- 7) 모압(2:1~3)
- 8) 유다(2:4,5)
- 9) 이스라엘(2:6~16)

2.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벌(3~6장)

- 1) 첫 번째 호소(3장)
- 2) 두 번째 호소(4장)
- 3) 세 번째 호소(5:1~17)
- 4) 첫 번째 화(5:18~27)

- 5) 두 번째 화(6:1~14)
- 3. 임박한 심판의 상징(7:1~9:10)
 - 1) 메뚜기 재앙(7:1~3)
 - 2) 삼키는 불(7:4~6)
 - 3) 다림줄(7:7~9)
 - 4) 삽입부: 아모스의 중재를 거부함(7:10~17)
 - 5) 여름실과 광주리(8장)
 - 6) 기둥 머리를 침(9:1~10)
- 4.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9:11~15)

아모스 주해

1. 여덟 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1~2장)

1) 서론(1:1~2)

1:1~2 1~2장에서 아모스는 여덟 나라에 대해 심판을 선포한다.

2) 다메섹(1:3~5)

각 심판은 “...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는 말로 시작된다.

J. 시들로우 벅스터는 이 히브리어 문구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문구는 문자 그대로 서너 가지를 뜻하는 수리적인 용법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 조사가 충분하고 완전했음을 뜻하는 관용적인 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했다. 현대적인 표현을 빌면, 그들이 ‘갈 때까지 갔다’, 혹은 ‘저울 끝에 다다랐다.’”2)



▲아모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역들

1:3~5 첫 번째 대상은 아람의 주요 도시인 다메섹이다. 아람군은 일찍이 요단 동편(길르앗)의 두 지파 반과 더불어 싸웠으며, 매우 야만적이고 잔인했음이 분명하다(‘철 타작기’라는 표현에 암시됨). 아람 백성은 그 징벌로 ‘길’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3) 가사(1:6~8)

1:6~8 두 번째 대상은 블레셋인이 이스라엘 포로를 잔인한 에돔인에게 넘겨준 곳인 가사이다. 그밖에 징벌당할 다른 블레셋 주요 지역으로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등이 있다. 그 결과 블레셋의 남아 있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4) 두로(1:9~10)

1:9~10 세 번째 대상은 두로이다. 두로인 역시 포로를 에돔에게 건네주고 이스라엘과의 형제 계약을 파기했다. 두로의 궁궐들에도 “불”이 예언되었다.

5) 에돔(1:11~12)

1:11~12 네 번째 대상은 에돔이다. 에돔인은 그 형제(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다)의 영구적이고 잔인한 적이였다. 그들의 무자비한 대우와 억제될 수 없는 증오심으로 인해 그들은 데만과 보스라 성읍들에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당할 것이다.

6) 암몬(1:13~15)

1:13~15 다섯 번째 대상은 암몬이다. 암몬인은 길르앗 땅 일부를 정복할 때 잔인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은 심지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기까지 했다. 왕과 방백이 모두 포

2) (1:3-5) J. Sidlow Baxter, *Explore the Book*, p. 130.

로됨과 불과 맹렬한 전쟁에 휘말릴 운명이다.

7) 모압(2:1~3)

2:1~3 여섯 번째 대상은 에돔 왕의 장지(葬地)를 훼손한 모압이다(열왕기하 3장 26~27절에서 ‘맡아들’은 아마도 모압이 아닌 에돔 왕의 맡아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8) 유다(2:4~5)

2:4~5 이제 여호와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본론에 이르신다. 심판 받을 다음 두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다! 놀랍게도 그들이 여섯 이방 나라와 함께 열거되어 있다. 아모스 당시 유다인에게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모든 특별한 인준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지적하신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짓(우상)을 좇은 까닭에 징벌을 당할 것이다.

9) 이스라엘(2:6~16)

2:6~8 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의 책망을 칭찬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들에게 돌이켰으며, 그들의 칭찬은 곧 분노로 변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의인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끔찍한 형태의 음란을 행하고, 전당잡은 옷을 밤새 지켜두고³⁾, 벌금과 뇌물로 얻은 돈으로 산 포도주로 성전에서 취한 까닭에 징벌을 당할 것이다.

3) (2:6-8) 빛을 갠겠다는 보증으로 준 옷은 밤새 지켜뒀는데, 이는 그것이 가난한 자가 소유한 유일한 덮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신 24:12,13).

2:9~12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지난 일을 상기시키신다. 그분은 가나안 땅에 백향목과 상수리나무처럼 거하던 아모리인을 멸하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고 나실인을 일으켜 성별된 삶의 본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실인을 타락케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했다.

2:13~16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누르고, 도피할 길을 막고, 야수르인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용사들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며, 빨리 달리는 자도 도망할 수 없을 것이다.

2. 이스라엘의 범죄와 징벌(3~6장)

1) 첫 번째 호소(3장)

3:1~2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신다. 그들은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독점한 까닭에 그들의 죄는 더욱 심각했으며, 그들의 징벌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3:3~8 심판은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아모스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는 질문으로 끝나는, 인과관계에 대한 일곱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계시하신 까닭에 그 일은 갑작스레 임하지 않는다.

3:9~12 아스돗(블레셋)과 애굽이 사마리아의 압제와 불의와

강포와 탈취를 증거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러한 죄들이 앗수르 침략자를 이스라엘 땅에 불러올 것이다. 삼키운 양떼의 남은 부분으로 생생히 묘사된, 소수 잔존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3:13~15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벤엘의 제단이 완전히 훼파될 것이다. 금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질 것이다(호 10:5,6). 부자들의 큰 집이 결판날 것이다.

2) 두 번째 호소(4장)

4:1~3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자들은 잘 먹고, 길들여지지 않은 바산의 암소에 비유되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사치스런 생활을 한 죄가 있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앗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 땅은 혼란과 두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들의 끌려가는 모습이 갈고리로 끌려가고 무너진 성벽으로 기어가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하르몬’을 지명으로 음역하는 대신(RSV, NASB, NKJV), KJV를 포함한 어떤 역본들은 그것을 “궁궐”로 옮겼다. 다비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역본은 ‘산지로’로, 어떤 역본은 ‘(적의) 요새로’로, 또 어떤 번역은 1장 4절처럼 ‘궁궐로’로(KJV) 옮겼으나, 그 의미는 확실치 않다.”

4:4~13 하나님이 그들로 우상을 숭배하고 제물을 벤엘에 가져가라고 냉소적으로 청하신다. 거기엔 그분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양식의 부족(6절), 가뭄(7,8절), 충해와 곰팡이와 메뚜기 재앙(9절), 염병과 전쟁과 살육(10절), 재난(11절)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 모든 것으로도 회개에 이르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12절은 복음의 호소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이다.⁴⁾

3) 세 번째 호소(5:1~17)

5:1~7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몰락을 슬퍼한다. 10분의 1의 군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백성들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성읍들(벧엘, 브엘세바, 길갈)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5:8~13 그렇지 않으면 묘성과 삼성을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께서 공법과 정의가 없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다. 범죄한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을 꾸짖은 의인을 증오하고 정직한 사람을 혐오했다. 그들은 불의로 부유케 된 까닭에 그들의 부를 누리도록 허락 받지 못할 것이다.

5:14~17 의로움과 사회정의를 위한 호소가 계속된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나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애통하는 갑작스런 변화로 보아,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로써 징벌을 당할 운명임이 분명하다.

4) 첫 번째 화(5:18~27)

5:18~20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 말아야 한다. 그

4) (4:4-13) 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훌륭한 복음의 경고가 된다. 예를 들어, 전도자 D. L. 무디는 본문에서 다음 “네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1) 한 하나님이 계시다. (2) 우리는 그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3)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4)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Notes from My Bible, p. 92).

날은 한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는 어두움과 재난의 날이다.

5:21~27 이스라엘은 절기에 희생과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으나 그들의 삶이 타락하여 그 제물이 하나님께 거절되었다. 그분은 의식보다는 의로움을 원하신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고백할 때에도, 그들은 몰렉과 그리고 식굿과 기운 같은 우상들을 숭배했다.

5) 두 번째 화(6장)

6:1~8 그들의 사치와 안일과 만족과 안전은 강포로 혼란케 될 것이다. 상아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 눕고, 원하는 대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허황된 노래를 부르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한껏 마시고, 비싼 향료와 기름을 몸에 바르고, 연회에서 기지개켜는 자들에게 “화”가 선포된다. 그들의 무사안일하고 스스로 만족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하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사마리아가 앗수르인에게 넘기울 것이다.

6:9~10 이 비극적인 본문을 페이지 H. 켈리는 이렇게 적절히 묘사했다.

“온 땅을 휩쓸 염병을 당하여 많은 희생자가 정상적으로 장사되지 못할 것이며, 생존자들은 시체를 태우는 일로 분주할 것이다. 어떤 죽은 사람의 친척이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시체를 태우려고 가져 나오다가 집구석에 숨은 한 생존자를 발견한다. 친척이 그를 부르자 그는 ‘잠잠하라!’로 옮겨진 히브리어 감탄사를 발하며 ‘여호

와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덧붙인다. 이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나 이제는 그분의 진노를 또 당할까봐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의미심장하게도 오늘날까지 정통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을 부르려 하지 않는다.”⁵⁾

6:11~14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고 무익했으며, 바위 위에서 발을 가는 소에 비유된다. 그들은 공의를 왜곡하고 정의를 조롱했다. 그들은 로드발과 가나임이 하찮은 승리였음에도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앗수르인이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 경계인 아라바 골짜기까지 그 땅을 확대할 것이다.

3. 임박한 심판에 대한 상징(7:1~9:10)

1) 메뚜기 재앙(7:1~3)

7:1~3 1~9절에서 아모스는 그의 백성을 위해 중재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위협이 묘사되었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 앗수르 왕 불의 공격을 묘사하는 듯하다. 아모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돌이켜졌다.

2) 삼키는 불(7:4~6)

7:4~6 두 번째는 삼키는 불의 비유를 통해 디글랏빌레셀의 침략을 묘사한 듯하다. 다시금 언약한 야곱을 위한 기도가 재난을 막았다.

3) 다림줄(7:7~9)

5) (6:9,10) Page H. Kelly, *Amos, Prophet of Social Justice*, p. 97

7:7~9 세 번째는 살만에셀에 의한 사마리아의 파멸을 가리키는 듯하다. ‘다림줄’은 심판의 절대 공정함을 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비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4) 삽입부: 아모스의 중재가 거절당함(7:10~17)

7:10~13 베엘의 우상 제사장인 아마샤가 베엘에 있는 왕의 성소를 쳐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아모스에게 명하고, 유다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가 거기서 떡을 먹으라고 일렀다.

7:14~17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역에 부르셨으며 자신은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문적인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었으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과 그의 땅에 임할 두려운 운명을 아마샤에게 고했다.

5) 여름 실과 광주리(8장)

8:1~6 이 ‘여름 실과 광주리’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날이 무르익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비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절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의 사업은 부패했다. 그들은 거짓 저울로 속이는 죄를 범했다.

8:7~12 이 모든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가공할 지진으로 그 땅을 벌하실 것이다. 그 날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집집마다 애통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바랄 것이나 거절될 것이다. 식물이 없어 주립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근과 가뭄이 가득할 것이다.

8:13~14 우상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아리따운 젊은이들은 극심한 기쁨을 당하고 거짓 신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에게서 메시지를 구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6) 기둥머리를 침(9:1~10)

9:1~4 여호와께서 제단, 즉, 아마도 벤엘의 거짓 제단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백성들은 궁극적인 도주로를 찾지 못한다. 어디로 피하든 칼이 그들을 뒤쫓는다. 음부, 하늘,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밑, 원수 앞에 사로잡힘 등 피할 만한 모든 것이 헛될 것이다.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극심함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큰 환란에 처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한 표현으로 듣고 있다.

9:5~10 누가 전능한 능력을 지니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겠는가? 대기와 지층이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세워졌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 이방 구스에 비교되고 “범죄한 나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는 실로 강한 표현이다! 그들은 모든 특권을 박탈당했다. 그분은 죄인을 징벌하되 ‘곡식을 채질함 같이’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멸망할 것이나 전능자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4.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9:11~15)

9:11~12 11~15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묘사되어 있다. 다

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11절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요 동일한 것이며, 오늘날의 교회가 “보수된” 천막(장막)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아 본문은 천년왕국의 이스라엘과 ‘만국’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스코필드는 이렇게 말한다.

“장막으로 묘사된 다윗 왕정은 퇴락한 상태였다. 이사야 11장 1절을 참조하라. 이 구절을 근거로 탈무드 랍비들은 메시아를 ‘바나플리’(Bar Naphli, ‘퇴락한 자의 아들’)라 불렀다. 그러나 그는 일어날 것이다(말 4:2).”⁶⁾

9:13~15 포도, 포도주, 밀, 기름, 과일 등의 곡물이 놀랄만한 속도로 자랄 것이며, 성읍들이 재건되고 다시 사람이 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고 다시는 그 땅에서 제하지 않으실 것이다.

6) (9:11,12)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1056.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lly, Page H. *Amos, Prophet of Social Justic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Mills, Montague S. *The Minor Prophets. A Survey*. Dallas: 3E Ministries, n.d.

Stevenson, Herbert F. *Three Prophetic Voices. Studies in Joel, Amos and Hosea*.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71.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1.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오바다

오바다 서론

“오바다의 예언은 그 내용의 성격에 있어 독특하다. 그것은 동정 내지 희망의 암시로 경감되지 않는, 누그러지지 않는 정죄의 책이다.” (프레드릭 A. 텃포드)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오바다의 묵시”(1:1)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자 성경전체에서 세 번째로 짧은 책이다. 그것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의 멸망이라는 한가지 주제뿐이다. 전 역사를 통해 에돔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으며 택한 백성에 대한 경멸심을 드러냈다.

2. 기자

구약성경에는 오바다(여호와의 종)란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있으나 어떤 인물도 이 선지자 오바다와 유사점이 없다. 사실 우

리는 이 책의 기자에 관해 그의 기록 속에 제시된 것 외에 이는바가 없다.

3. 연대

기자에 관해 우리가 이는바가 없으므로 연대는 본문 자체를 살펴보다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학자들과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BC 586년 직후라는 후기 연대를 선호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시편 137편 등과의 유사점과 어떤 어휘들이¹⁾ 후기 연대를 암시하긴 하지만, 그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마 초기 연대와 더 부합할 것이다.

제기된 초기 연대는 여호람 통치(BC 848~841) 내지 아하스 통치(BC 731~715) 기간이다. 아하스 통치기간을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 않으나, 그들은 에돔족이 예루살렘을 쳐서 포로로 취해간 일을 말해주는 역대하 28장 17절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다.

만일 가장 이른 연대가 맞다면, 오바다서는 집필 선지자 중 첫 번째요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인 셈이 된다. 이 책이 BC 586년의 완전한 파괴를 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 오바다 12~14절은 과거에 한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에돔족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보인다. 만일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다면 그러한 경고는 무의미할 것이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감에 대한 고등비평의 견해와 타협함 없이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견해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BC 840년경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1) (서론) 20절에 '사로잡혔던 자'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것들.

4. 배경 및 주제

이 예언은 에서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숙적이었던 에돔 족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메튜 헨리는 오바다의 짧은 예언의 배경을 이루는 감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묘사한다.

“어떤 이들이 적절히 지적한대로, 사랑받은 야곱의 후손인 그들은 환란을 당하고 미움받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은 번성할 뿐 아니라 환란을 당하는 그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철저하고도 최종적인 것이 될 에돔의 멸망에 대한 전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복스런 전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²⁾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이 느부갓네살에 의한 멸망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보다 초기의 파괴를 가리키는지는 성경학도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에돔은 이두메로 알려져 있다. 에돔족은 아랍인에게 경제적으로 폐허된 후에 로마인에게 정복당하여 AD 70년경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5. 개관

1. 실추될 에돔의 교만(1~4절)
2. 에돔의 멸망(5~9절)

2) (서론) Matthew Henry, “Obadiah,”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4:1271.

- 1) 철저한 노략(5,6절)
- 2) 에돔의 동맹국의 배신(7절)
- 3) 에돔의 지도자들의 몰락(8,9절)
3. 에돔의 멸망의 원인(10~14절)
4. 에돔의 심판은 응보적이다(15,16절)
5.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에돔의 소멸(17~21절)

오바다 주해

1. 실추될 에돔의 교만(1~4절)

1:1~4 오바다는 에돔이 교만으로 인해 침략자에게 멸망당하리라는 예언으로 시작한다. 사자가 에돔과 전쟁을 벌이도록 열국을 부추긴다. 에돔의 주요 도시인 셀라 혹은 페트라는 사해 남쪽의 높고 붉은 절벽을 깎아서 세워졌다.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 데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2. 에돔의 멸망(5~9절)

1) 철저한 약탈(5~6절)

1:5~6 에돔의 멸망은 도적이거나 강도의 짓에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도적이거나 강도는 원하는 것만 취해가고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약탈자가 와도 다 쓸어가지 않고 얼마쯤 남길 것이다. 그러나 에돔의 경우에는 그 감춘 보물도 다 찾아내어 취해갈 것이다!

2) 에돔의 동맹국의 배신(7절)

1:7 에돔과 동맹을 한 모든 자가 에돔을 배신하고 울무를 놓을 것이다.

3) 에돔의 지도자들의 몰락(8~9절)

1:8~9 에돔이 자랑하던 지혜자와 용사들이 살육을 당해 멸절 될 것이다.

3. 에돔의 멸망의 원인(10~14절)

1:10~14 에돔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고소해하거나, 입을 크게 벌려 말하거나, 그 성이 약탈당하는 것을 돕거나, 도피하는 유다인의 길을 막거나, 남은 자들을 적에게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본문의 묘사는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냉혹하고 무정하고 잔인하게 대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에돔은 그 형제 야곱에게 조금도 동정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 그러한 형제 관계의 배신이 그들이 그토록 완전히 멸망당한 한가지 이유일 것이다.

4. 에돔의 심판은 응보적이다(15~16절)

1:15~16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고 에돔은 유다를 냉대한 까닭에 징벌 받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G. 허버트 리빙스턴은 ‘마시고 삼키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선지자들은 때로 징벌당하는 고통을 독주를 마시는 것에 비유한다. 그 비유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5장 15~28절을 보라. 하나님은 단순히 에돔을 본보기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죄로 인해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다.”³⁾

3) (15,16절) G. Herbert Livingston, “Obadiah,” *The Wycliffe Bible Comment-*

5.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과 에돔의 소멸(17~21절)

1:17~18 오바다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장래 구원이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에서의 집을 완전히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탯포드는 에돔의 멸망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했다.

“에돔족은 나바티안족에 의해 고토에서 쫓겨났으나 이두메로 알려지게 된 네게브인의 지경을 취했으며, 일시적으로는 BC 185년에 유다 마카비에게 패할 때까지 유다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후에 거라사의 시몬이 이두메를 초토화시켰으며 에돔족은 AD 1세기에는 완전히 사라진 듯하다. 사실 페트라라는 AD 7세기에 모하멧에게 점령당할 때까지 기독교 감독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오늘날 에돔족으로 분류될 만한 사람의 계보는 일절 없다. 아무 생존자도 없을 것이라는 오바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⁴⁾

1:19~21 에돔의 땅은 남방(네게브)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해변 평지(‘쉬펠라’, 저지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블레셋 땅이 주어질 것이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족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⁵⁾ 에서의 산을 다스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ary, p. 841.

4) (17,18절) Frederick A. Tatford, *Prophet of Edom's Doom*, p. 55.

5) (19-21절) 21절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성도일지 모른다.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Lee. *Joel, Amos and Oadiah*.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s to the Jews, 1948.

Henry, Matthew. "Obadiah."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4.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Livingston, G. Herbert. "Obadiah."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Mills, Montague S. "Obadiah." In *The Minor Prophets: A Survey*. Dallas: 3E Ministries, n.d.

Tatford, Frederick A. *Prophet of Edom's Doom*. Eastbourne, England: Prophetic Witness Publishing House, 1973.

요나

요나 서론

“이 책은 선지자의 예언보다 선지자 자신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그의 영혼의 상태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 독자를 교훈하고 겸손케 한다.” (조지 윌리엄스)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요나는 선지자들 중에 그 예언이 선지자가 전한 말보다는 선지자 자신의 삶과 경험으로 구성된 유일한 선지자이다. 그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해준다.

- (1)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 (2) 은혜의 메시지가 열방에까지 미치는 것을 시샘했다.
- (3) 바다(이방 세계)에 던지우고 열국에게 삼킨바 되었으나 그들에 의해 멸절되지는 않았다.
- (4) 육지에 던지우고(이스라엘 땅에 회복되었다) 열국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의 경험 중 이스라엘과 맞지 않는 것은 4장에서 발견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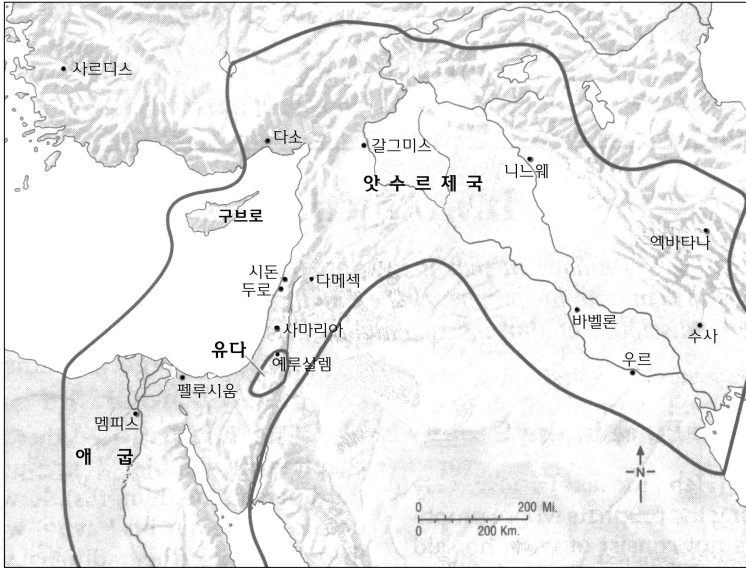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나갈 때 이스라엘이 불평 불만할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2. 기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은 극히 개인적인 “시”를 담은 2장만이 1인칭(내가, 나를, 나의)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세장이 요나에 ‘관해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다고 해서 꼭 그가 이 책 전체를 기록했을(전통적인 견해)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모세를 비롯한 다른 성경 기자들도 때로 3인칭을 사용한바 있다. 비록 전문적인 의미에서 기자가 익명이긴 하지만, 이 책의 기자 문제가 이 책의 정통성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연대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사역은 BC 793에서 753년까지 다스린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인 여로보암2세 통치 시기에 행해졌다. 비록 앗수르의 비문들이 이 시기에 있던 큰 부흥의 사건을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건들이 요나서 내용과 일치될 이론다. 고대 이교도들이 기근과 일(월)식 현상을 임박한 재앙의 조짐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호와께서 요나의 전도를 받아들이도록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BC 765년과 759년에 일어났던 앗수르의 기근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다. 또한 왕후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아닷나라리 3세의 공동 통치 기간에(BC 810~782) 얼마간 일신론(一神論)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나의 사역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 BC 650년경의 앗수르 제국

4. 배경 및 연대

요나는 아밋대(‘하나님께 진실한’)의 아들이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의 고향이 갈릴리 가드헤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앗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당시 예언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회개할 것을 전파하도록 보내셨다. 그는 그 성이 회개하고 보존될 것을 우려하여 그 일을 행하기를 주저했다. 앗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였다. 만일 그들의 비문(碑文)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그들은 적군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두개골을 쌓는 등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대변인인 랍사게의 오만하고 모욕적인 말이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키웠다. 물

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 요나가 실망하게도 그 성이 회개하고 생명을 보존했다.

주 예수님은 요나를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표증으로 인용하셨다(마 12:40; 16:4).

이 책은 로마서 3장 29절에 대한 주석이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책은 또한 로마서 11장 2,15절에 대한 예증(例證)이기도 하다. 요나가 바다 속에 던져지자 그 결과로 배에 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육지에 던져지자 그 결과로 한 성이 구원을 받았다.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 세계에 부요를 가져다주었으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는 세상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이 흘러나가겠는가!

5. 개관

1. 요나의 불순종(1장)

- 1) 요나의 선교 소명(1:1,2)
- 2) 요나의 다시스 도피(1:3)
- 3) 바다의 폭풍(1:4~10)
- 4)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1:11~17)

2. 요나의 구원(2장)

- 1) 요나의 기도(2:1~9)
- 2) 하나님의 응답(2:10)

3.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3장)

- 1) 심판 경고(3:1~4)

- 2) 온 성의 회개(3:5~9)
- 3) 심판의 철회(3:10)
4. 요나의 불만(4장)
 - 1) 요나의 불만스런 기도(4:1~3)
 - 2) 하나님의 질문(4:4)
 - 3) 요나의 토라짐(4:5)
 - 5)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대한 실물교훈(4:6~11)

요나 주해

1. 요나의 불순종(1장)

1) 요나의 선교 소명(1:1~2)

1:1~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인 앓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말씀을 전파하도록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요나가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했을 것을 이해할 수 있다(위의 배경 및 주제를 보라).

2) 요나의 다시스 도피(1:3)

1:3 요나는 그에 불순종하여 다시스(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추정)로 가는 배를 탔다. H. C. 우드링은 요나가 맡은 일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은 그가 팔레스타인 동북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니느웨에 가기를 원하셨다. 요나는 동쪽으로 가는 대신 서쪽으로 2000마일 길을 갔다. 하나님은 요나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지나 육로로 여행하기를 원하셨다. 그 대신 요나는 원치 않는 바다 여행(유대인은 바다를 싫어했다)을 택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당대의 최대 도시로 보내셨다. 그 대신 요나는 문명의 가장자리에 있는 먼 무역 도시로 향해 갔다.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 그 대신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서 피하고자 했다.”¹⁾

3) 바다의 폭풍(1:4~10)

1:4~10 여호와께서 대풍과 폭풍을 보내사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셨다. 아마도 베니게인이었을 이교도 선원들은 그 재난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히브리인인 요나가 주범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호와와의 존전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었다.

4) 요나가 바다에 던지워 큰 물고기에게 삼키움(1:11~17)

1:11~16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는 질문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노숙한 이교도 선원으로서 그들은 공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일렀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육지에 배를 돌리고자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하므로 마침내 최종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1:17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포로로 잡아두었다. (물고기가 사람을 삼킨 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다.)

2. 요나의 구원(2장)

1) 요나의 기도(2:1~9)

2:1~9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그가 물고기에게서 빠져나온 것이 아닌 물에 빠져죽는 데서 구원받은 것

1) (1:3) H. Chester Woodring, “Easter Challenge” Lectures on Jonah, Emmaus Bible School(현재는 College), 1960.

을 기리는 기도이다. 물고기에게서 빠져나온 일은 그의 기도 뒤의 일이었다. 그의 기도는 시편의 대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J. 시들로우 벅스터는 이 기도를 이렇게 분석한다.

“요나의 기도에는 간구하는 말이 일절 없다. 그것은 감사와(2~6절), 뉘우침과(7,8절), 재헌신(9절)으로 이뤄져 있다. 그것은 실로 찬양(‘테 데움’)의 시요 ‘송영’의 시이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더 공급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로 머리를 빈 밀가루 통속에 처박고 송영을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그리고 남은 모든 부분마저-를 지중해의 큰 물고기 속에 처박고 송영을 부르는 경험에 비할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²⁾

요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장래 회개에 대한 예표이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구주로 시인할 때 그곳은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는 축복의 장소로 회복될 것이다.

2절의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은 일부 사람들로 요나가 사실 물고기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덤, 내세’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아마도 “깊은 곳”, 혹은 현대 관용어로 표현하면 “구덩이”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비록 요나가 문자 그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선지자 요나를 자신의 죽음과 사흘간의 장사됨과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그림으로 인용하셨다(마 12:41). 우연히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요나를, 현대의 일부 설교자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2) (2:1-9) J. Sidlow Baxter, *Explore the Book*, p. 169.

2) 하나님의 응답(2:10)

2:10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요나가 고백한 후에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냈다.

3.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선포(3장)

1) 심판 경고(3:1~4)

3:1~4 여호와께서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명하셨으며³⁾,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다. 그는 그 큰 성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2) 온 성의 회개(3:5~9)

3:5~9 다곤이라는 물고기 신을 섬기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요나와 같은 경험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소화액 때문에 피부에 얼룩얼룩한 반점이 생겨서 사람들 눈에 쉽게 띠게 마련이었다. 요나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사람과 짐승에게 금식이 선포되었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배움을 입었다.

3) 심판의 철회(3:10)

3:10 그 결과 니느웨는 재앙에서 보존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앗수르인이 다시 악한 행실로 돌아갔으며, 150년간 은혜의 기간 후에 그 수도가 멸망당한 일을 알고 있다.

3) (3:1-4) “니느웨는 작은 성과 마을들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따라서 그 방대한 대도시 지역은 3일 길(5~60마일)이 걸렸다고 적절히 묘사되어 있다.”(Montague S. Mills, *The Minor Prophets, A Survey*, p. 55.)

4. 요나의 불만(4장)

1) 화가 난 요나의 기도(4:1~3)

4:1~3 이스라엘의 이방 대적이 심판을 면한 것을 보고 요나는 화가 났다. 그는 아마도 앗수르가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죽게 해달라고 구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에게 엄한 징벌을 받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구원이 아닌 파멸을 기대했다. 요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으나, 앗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멸절당할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의 최대 적 중 하나인 앗수르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일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일로 여겨졌다.

2) 하나님의 질문(4:4)

4:4 여호와께서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질문으로 선지자 요나의 양심을 찌르셨다.

3) 요나의 토라짐(4:5)

4:5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요나는 니느웨를 가로질러 성 동쪽에 가서 앉아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다.

4)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에 대한 실물교훈(4:6~11)

4:6~8 거기서 하나님이 박 넝쿨(큰 나무)을 예비하사 요나를 햇볕에서 보호해주셨다.⁴⁾ 요나는 박 넝쿨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4) (4:6-8) 복종치 않는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은 네 가지를 예비하셨다: <1> 큰 물고기(1:17); <2> 박넝쿨(4:6); <3> 벌레(4:7); (4) 뜨거운 동풍(4:8).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사 박 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여 태양의 열기를 더하시어 요나로 하여금 곤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4:9~11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가 박 넝쿨을 아꼈을진대, 많은 육축은 물론이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하는 성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훨씬 더 합당한 일임을 그분의 선지자 요나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이 짧은 책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을—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Banks, William L. *Jonah, the Reluctant Prophet*. Chicago: Moody Press, 1966.

Blair, J.Allen. *Living Obediently: A Devotional Study of the Book of Jonah*.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63.

Draper, James T., Jr. *Jonah: Living in Rebellion*.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1971.

Feinberg, Charles L. *Jonah, Micah, and Nahum*.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s to the Jews, 1951.

Gaebelein, Frank E. *Four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Habakkuk, and Haggai*. Chicago: Moody Press, 1977.

Keil, C. F. "Jonah." In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Keinert, Paul. "The Book of Jonah." In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Reprint(24 vols. in 1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Mills, Montague S. "Jonah." In *The Minor Prophets: A Survey*. Dallas: 3E Ministries, n.d.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2.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미간행물

Woodring, H. Chester. "Easter Challenge" Lectures on Jonah. Emmaus Bible School(현재는 College), 1960.

미가

미가 서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할 용기와 능력을 소유한 가난한 자의 합당한 대변인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미가는 그의 동족의 사정을 잘 아는 까닭에 공의와 사려 깊음을 베풀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현장감 넘치게 전할 수가 있었다. 억눌린 백성에 대한 그의 깊은 동정심이 잊혀질 수 없는 표현으로 생생히 표출되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행하는 불의한 일을 보면서 그의 영혼은 의로운 분노로 타올랐다. 유다의 가난한 농부들에게 이 시골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 설교자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대변자였다.” (카일 M. 예이츠)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미가서는 소先知서 가운데 네 번째로 긴 선지서이다. 이 책은 신약성경에 다섯 번 인용되었으며, 그 중 한번은 주님께서 인용하셨다. 가장 유명한 인용문(마 2:6)은 5장 2절인데, 이 구절은 메시야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북쪽에 또 다른 베들레헴이 있었다)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미가서의 또 한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선지자 미가가 “언어의 유희(遊戱)”를 즐긴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장난하기를 즐긴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진지한 문학형태로 간주되지 않는다(셰익스피어는 자주 그것을 사용했다). 하지만 히브리어의 경우엔 구약성경과 같은 진지한 글들에 언어의 유희가 많이 나타나 있다. 미가 1장 10~15절은, 어떤 이들이 라틴 시인 키케로의 웅변과 비교하는, 유명한 실례를 보여준다. 불행히도, 이것은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형태의 글 중 하나인데, 이는 어떤 두 언어도 동일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언어의 유희를 영어로 표현해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NKJV 각주와 아래에 인용된 모팻역을 보라.)

2. 기자

‘미가야와 ‘미가야후’의 단축형인 미가(여호와와 같은 자)란 이름은, 선지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 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는 하나님(-엘)이나 여호와(-야)를 그의 이름의 일부로 지녔다. 7장 18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그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듯하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으나 이사야보다 낮은 사회 계층 출신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가드 모레셋 출신이었다.

3. 연대

미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통치 기간인 BC 740~687년

에 예언을 했다. 주된 메시지는 유다에 대한 것이었으나 미기는 BC 722/21년에 일어난 북왕국의 사로잡힘을 예언하기도 했다. 그의 짧은 예언을 구성하는 메시지를 전한 시기는 그가 그것을 기록하기 얼마 전이었을 것이다.

4. 배경 및 주제

BC 8세기 들어서, 비교적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오랜 농경체제는 점차 백성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뚜렷이 갈라놓은 탐욕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냉혹한 사회 체제로 대치되었다. 부유한 지주는 더욱 부유해졌고 가난한 농사꾼은 더욱 가난해졌다. 후자는 상류 계층의 사치와 가난한 자에 대한 냉대와 더불어 빈곤과 악덕으로 특징지워진 도시로 이주했다.

또한 이민족들과의 무역이 그들의 그릇된 종교와 저급한 도덕 기준을 들여왔다.

말하자면, 오늘날 서구사회의 기독교와 상황이 매우 흡사했다.

그러한 어둡고 세속적인 배경 하에서 미기는 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엮어진 그의 예언을 기록했다.

5. 개관

1.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진노 예고(1장)
2. 부유한 압제자의 운명(2:1~11)
3. 회복의 약속(2:12,13)
4. 방백과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책망(3장)
5.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의 영광(4장)

6.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5장)
7.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6장)
8. 이스라엘의 애곡과 참회(7:1~10)
9. 이스라엘의 장래 축복(7:11~20)

미가 주해

1.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진노 예고(1장)

1:1~3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 거룩한 성전, 곧 축복의 장소를 떠나실 때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촉구하셨다.

1:4~7 그분의 징벌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엄하게 임할 텐데 이는 그 성읍들이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분이 심판을 위해 임하실 때 산들이 그분 아래서 녹고, 골짜기가 불 앞에 밀 같이 갈라지고, 사마리아가 폐허더미가 되고, 그 모든 우상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그 상처가 치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8~9 미가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되 외로운 야행



▲미가서에 나오는 동음이의(同音異義)의 지역들

성 짐승인 들개와 타조같이 애통해할 것이라고 탄식한다.

1:10~14 10~16절은 앓수르군에 의한 그 땅의 침입을 묘사하는 해학적인 애도이다. 앓수르군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가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아난, 벤에셀, 마룻, 예루살렘, 라기스, 모레셋, 가드, 악십, 마레사, 아둘람 등 여러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들이 언급되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말장난이 나타나 있다.¹⁾ 모팻은 본문을 이렇게 옮겼다.

“눈물의 마을(보김)에서 눈물을 흘리고
진토의 마을(베들레아브라)에서 진토 중에 엎드리고
공정한 마을(fairtown, 사빌)에서 벗은 채로 행하라(fare forth)!
소요의 마을(사아난)은 소요하지 말고
벤에셀은…
마룻은 헛되이 바라니
이는 재앙이 영원하신 이에게서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라.
말의 마을(라기스)이여, 말을 타고 달리라
시온의 최악의 근원이여,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 중심에 있도다!
처녀 시온이여, 너는 가드 모레셋과 헤어져야 한다.
이스라엘의 열왕이 휘방의 마을(Balktown, 악십)에서
항상 휘방을 받는도다(balkded).”²⁾

1:15~16 정복자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백성들이 아둘람으로 도피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슬픔 중에 그 머리를 말갱게 깎아야

1) (1:10-14) NKJV 난하주의 문자적인 번역을 보라.

2) (1:10-14) *The Bible: A New Translation*, by James Moffat, Micah 1:10~14.

하는데, 이는 그 귀한 자식, 즉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2. 부유한 압제자의 운명(2:1~11)

2:1~5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 밝혀져 있다. 부자들이 무력으로 가난한 자의 집과 땅을 빼앗았다. 그 결과 부자는 그 재산을 이방 침략자에게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2:6~7 백성들은 수치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불쾌한 일을 예언하지 말라고 미가에게 일렀다. 그러나 미가는 그들이 “여호와와 신이 제한적인가? 이 심판이 그가 행하신 것인가? 그의 말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유익한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2:8~11 그분의 백성은 그 죄로 인해 여호와와의 대적같이 되어 화평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여자와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일어나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이는 그들이 더럽힌 그 땅이 그들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포도주와 독주를 권하는 거짓 선지자를 신속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다.

3. 회복의 약속(2:12,13)

2:12~13 심판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길을 여는 자’(여호와)가 그들의 회복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다.

4. 방백과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책망(3장)

3:1~4 이스라엘 집의 치리자들이 그 부정과 불의와 탐욕으로 인해 정죄를 당한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잔인하게 대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이들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기대대로 양떼의 목자가 되는 대신 늑대가 되어 양떼를 남비와 솥에 담을 고기가 되게 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 온 참목자인 다윗과 반대였다(삼상 17:15; 삼하 5:2, 7:7). 그들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3:5~7 거짓 선지자들은 샅을 충분히 주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고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쟁을 고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다.

3:8~12 그와 대조적으로 미가는 여호와와 신에 의해 이스라엘과 유다(야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돈에 눈이 어두운 치리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나 미가는 예루살렘이 쓰레기더미로 전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5.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의 영광(4장)

4:1~4 1~8절은 그리스도의 천년통치의 축복을 말한다. 예루살렘은 높임을 받고, 열국이 여호와에 관해 알기 위해 그곳으로 올 것이며, 그분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다음 유명한 말씀에는 전세계적인 무장해제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³⁾ 평화와 안정이 가득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서 인정을 받으실 것이다.

4:5~8 5절은 미가 당시에 행해지던 우상숭배와 천년왕국 때 가득할 순전한 예배를 대조한다. 절뚝거리며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올 것이며(“내가 절름발이들을 모을 것이라”, 6절, 모팻), 여호와께서 왕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전 권능’(8절)은 지상 최고의 정부인 메시아 왕의 통치를 의미한다.

4:9~13 그 어간에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또한 회복에 앞서 여호와께서 열국을 모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벌하는 그분의 도구가 될 것이며, 그들의 부(富)는 ‘온 땅의 대주재’께 바쳐질 것이다.

6.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약속(5장)

5:1 1절은 미가가 글을 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하는 듯하다. 여기서 유다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은 오만하고 거칠게 왕을 다룰 바벨론인에게 포위될 것을 대비하라는 경고를 듣는다. 이것은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능욕한 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모욕한 일을 가리킬 수도 있다.

5:2 2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될 자, 그 근본이 상고에, 태초에 있는 자의 출생을 대망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영원성을,

3) (4:1-4) 이 문구가 뉴욕의 국제연합 건물에 새겨지긴 했지만 평화의 왕이 생략된 까닭에 세상은 그가 올 때까지 영원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신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베들레헴이 있었으므로 미가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6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에 브라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절은 1절과 대조되는 의미가 있다. 비록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5:3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세 단계가 묘사되어 있다:

(1) 주 예수님을 거절한 까닭에 버림을 받는다. 이것이 현 은혜 시대의 상황이다. (2) 이어서 시련기, 즉 대환란이 그들을 기다린다. (3) 그러한 고통을 당한 뒤에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아직 믿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잔존자가 나올 것” (스코필드)을 가리킨다.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땅에 다시 모일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5:4~6 4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의 목양적인 돌봄과 그분의 세계 지배가 묘사되어 있다. 미래의 앗수르군이 예루살렘을 칠 때 메시아가 많은 유능한 지도자를 일으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앗수르군을 쫓아내기 위해 15명의 지도자만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적인 작품에서 어떤 수가 바로 밑의 수 다음에 올 때는⁴⁾ 문맥에 나오는 어떤 것의 충분한 혹은 완전한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5:7~9 그 때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막강하여 능히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

4) (5:4-6) 이러한 숫자의 용례는 구약성경에서 가끔 발견된다. 욥기 5장 19절, 시편 62편 11,12절, 아모스 1장 3절 등을 보라.

찌를 것이다.

5:10~15 그 날에 이스라엘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말과 병거나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술객과 신접한 자들이 소멸할 것이다. 새긴 우상과 주상(이방 신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손길로 징벌당할 것이다.

7. 이스라엘에 대한 재판(6장)

6:1~5 여호와(검사)께서 이스라엘(피고)에 대한 소송을 추궁하시는 동안 산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분은 그들에게 베푸 자신의 인자-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발락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금하심-를 진술하신다.

6:6~8 그 대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값진 짐승의 제물이 아니다! 인간 제물도 물론 아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8절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묘사한다. 사람이 그것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 거둬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종류의 의를 열매 맺을 수 없다.

6:9~12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며 그 죄를 그 재앙의 원인으로 지적하셨다. 그 거민들은 거짓 저울과 저울추를 사용하고 강포를 행하고 거짓을 말했다.

6:13~16 죄는 그 자체의 파멸을 가져오며, 강포한 부자의 죄

는 질병과 황폐와 주림과 불만족과 좌절을 불러온다. 그들은 불의로 얻은 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므리의 율례’(16절)는 오므리가 부추긴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듯하다(왕상 16:25,26).

8. 이스라엘의 참회와 탄식(7:1~10)

7:1~2 여기서 미기는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하나님께 중재를 한다. 성중에 신실하고 정직한 자들이 끊어지고 강포와 살인이 가득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은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송이가 없는 처지에 비유되었다.

7:3~6 방백과 재판관은 뇌물을 원하니 그들의 심판이 임박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친구도, 이웃도, 친지도 서로 속인다.

7:7~10 오직 여호와만이 신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잔존자는 그 대적에게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재앙이 임할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대적이 실패하게도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9. 이스라엘을 장래 축복(7:11~20)

7:11~12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그 경계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쫓겨난 자들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올 것이며, 이교 세계가 그 죄악으로 인해 징벌당할 것이다.

7:13 이 구절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해 보인다. 그 땅이 황무해

지는 것은 아마도 이방인이 그 행위의 열매로 심판을 당한 결과 일 것이다. 그 일은 약속된 회복이 이뤄지기 직전에 일어난다. “땅”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에레츠)는 “세상”(earth)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⁵⁾ 모팻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옮겼다. “온 세상이 그 이교적인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황폐해졌다.”

7:14~17 14절은 하나님께 양식과 목양의 돌봄을 구하는 기도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사 이방 나라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겠다고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신다.

7:18~20 미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위로와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로 그의 예언을 마감한다.

5) (7:13) NIV는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옮겼다.

참고 문헌

Carlson, E. Leslie. "Micah."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8.

Feinberg, Charles L.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il, C. F. "Mic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Mills, Montague S. *The Minor Prophets: A Survey*. Dallas: 3E Ministries, n.d.

Morgan, G. Campbell. *The Minor Prophet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60.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2.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나훔

나훔 서론

“나훔서에 나타난 묘사는 극히 정교하고 생동감있다. 이 책은 마땅히 구약성경 문학 중 최고의 작품의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C. H. H. Wright)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나훔의 짧은 예언은 한 이방 제국의 수도(니느웨)를 대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긴 했지만 민족주의적인 글이 아니라, 당시에 만연한 군국주의와 전제정치를 꾸짖는 글이다(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까닭에). 하나님은 이교도를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의 배도와 죄를 징벌하시지만, 그 도구 자체도 징벌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R. K. 헤리슨은 이렇게 말한다.

“이 작은 저주의 예언을 통해 기자는, 앗수르인이 멸시한 그 민족의 하나님이 실은 전인류의 운명을 조정하고 주관하는 자임을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언어로 드러내었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는 그 어떤 제국이라 하더라도 굴복과 수치 가운데 복종해야 한다.”¹⁾

2. 기자

나훔은 확실치는 않지만 종종 갈릴리 해 근처의 가버나움(‘카팔 나훔’, 나훔의 마을)과 동일시되는 엘고스 사람이었다.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이다.

3. 연대

아무 주어진 연대가 없지만, 집필 시기를 50년 안으로 좁힐 수는 있다. 나훔이 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3:8) 이 책은 BC 663년에 있었던 노-아몬(티베)의 정복 ‘이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니느웨가 멸망한 BC 612년 ‘이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상숭배자인 므낫세 왕의 장기 통치 기간(696~642년) 안에, 아마도 BC 663년에서 654년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4. 배경 및 주제

엘고스 사람 나훔은 앗수르인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유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그의 예언은 요나서를 보완한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지만, 나훔서에서는 니느웨 백성이 옛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 모

1) (서론) R. 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p. 930.

습을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하셨다(마 12:41).

이 짧은 책은 전형적으로 군국주의를 꾸짖는다. 앗수르인은 그들의 대적에게 잔인했다. 그들의 군사적인 승리를 새긴 비문은 피정복민의 가족을 벗겨 장막과 성벽에 걸어둔 얘기를 자랑삼아 적고 있다.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준다.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니느웨의 멸망을 포함해서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나훔은 앗수르의 수도이자 당시의 세계 최대 도시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으나, 다른 의미로 보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미래의 앗수르인을 내다보고 있다.

5. 개관

1.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1:1~8)
2. 니느웨의 멸망의 확실함(1:9~15)
3. 니느웨의 에워싸임에 대한 묘사(2:1~12)
4.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고는 하나님의 결정(2:13~3:19)

나훔 주해

1.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성품(1:1~8)

1:1~5 하나님의 성품이 한편으로는 투기하고 보복적이고 진노를 발하는 모습으로, 또 한편으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큰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거민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투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시기하는 그런 의로운 투기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아내”이다(NKJV, ‘주’; 호세아서를 보라).

1:6~8 그분이 징벌하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선하시다. 그분의 심판이 넘치는 홍수처럼 앗수르를 휩쓸고 그 수도인 니느웨를 멸할 것이다.

2. 니느웨의 멸망의 확실함(1:9~15)

1:9~11 본문은 앗수르인이 그 대상이다. 하나님이 곧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다. 여호와를 향해 악을 꾀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산헤립이나 오만한 랍사게를 가리키는 듯하다.

1:12~13 앗수르인은 지금은 안전할지라도 곧 멸절을 당해 없

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비록 환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떼운 앗수르인의 멍에를 끊으실 것이기에 더 이상 환란을 당치 않을 것이다.

1:14 이어서 여호와께서 직접 앗수르 왕에게 말씀하신다. 그의 이름이 잊혀지고, 그의 우상 신전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가 비루한 까닭에 그의 무덤을 예비하실 것이다.

1:15 이 구절은 앗수르가 멸망하고 그 결과 유다에 평화가 임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묘사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서는 ‘복음’과 관련해서 인용했다(사 52:7).

3. 니느웨의 에워싸임에 대한 묘사(2:1~12)

2:1 1~10절은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을 언급한다. “파괴하는 자”는 여호와나 바벨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성의 놀란 거민들은 “산성을 지키라”, “길을 파수하라”, “네 허리를 견고히 묶으라”, “네 힘을 크게 굳게 하라”는, 싸움에 대비하라는 네 가지 조롱조의 명령을 듣는다.

2:2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소 회복될 것이나 곧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남왕국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으나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본문과 전혀 다른 의미가 가능하다. 나훔의 짧은 예언에 관한 400쪽 가량의 주해에서 월터 A. 메이어는 “회복하다”를 “끊다”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로, “영광”을 “교

만”으로 옮겨놓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야훼께서 야곱의 교만을 끊으셨다’는 말씀은 야훼께서 그곳이 오만하게 전능자를 거절한 까닭에 선지자의 고국인 유다에게 쏟아 부으신 과거의 역사적인 징벌을 묘사한다. 나훔은 유다를 약탈한 것을 자랑하던 산헤립이 저지른 파괴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²⁾

이스라엘을 가리켜 ‘폐허되고’ ‘비어진’ 포도원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 구약성경의 표현들과 부합한다(시 80:8; 사 5:13; 렘 12:10; 호 10:1).

2:3~6 3,4절에는 바벨론 군사가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바벨론인은 붉은 옷을 입었고, 그들의 동맹국인 메대인은 자색 외투를 걸쳤다. (앗수르인의 군복은 푸른색이었다.) 5절의 엎드러질 듯이 달리는 군사는 흔히 앗수르의 수비대로 이해하고 있으나, 문맥으로 보면 바벨론 침략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강들이 그 성에 넘쳐 들어가 기초를 무너뜨려 왕궁이 소멸될 것이다.

2:7~10 왕후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백성들은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 성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니느웨의 부와 재물이 약탈당하고 은금이 노략당할 것이다. 그 성이 이제 황폐하여 사방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2:11~12 본문은, 영국이 사자를, 미국이 독수리를 상징물로

2) (2:2) Walter A. Maier, *The Book of Nahum, A Commentary*, p. 228.

간주하듯이, 앓수르인은 사자를 광적으로 좋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머리는 사람이요 몸은 사자(혹은 그 반대)인 그림이 앓수르인의 미술과 조각에 흔히 나타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자로 생각하고 사자 모양을 내려고 애 썼음이 분명하다.

니느웨를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나훔은 ‘사자’, ‘젊은 사자’, ‘수 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 등의 표현을 두 구절에서 일곱 번 사용하여 냉소의 칼로 니느웨의 오만함에 깊은 상처를 내었다!

4.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2:13~3:19)

2:13 ‘만군의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에 그 성은 화를 면할 가망이 없다. 그 병거는 불탈 것이며, 그 어린 사자들(용사)은 칼로 멸절될 것이다. 그 대적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성이 더 이상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3 3장은 계속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고 그 근본 원인을 밝힌다. 그곳은 피 흘린 성이요 거짓과 강탈이 가득하고 여러 곳에서 전리품을 취해왔다. 이제 바벨론의 마병이 번쩍이는 칼로 공격할 것이며, 거리마다 무수한 시체로 가득할 것이다.

3:4~7 앓수르는 음행과 마술을 행하고 우상숭배와 장사로 다른 이들을 타락케 한 까닭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앓수르의 죄악을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사 미혹하는 음녀에 합당한 징벌을 당케 하실 것이다.

3:8~10 앓수르가 피하지 못할 것은 구스와 애굽의 연합 세력을 상징하는 저 큰 도성 노아몬(테베)³⁾이 피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테베도 안전을 위해 붓과 루빔을 동맹국 내지 돕는 자로 의지했다. 붓과 루빔은 일반적으로 리비아와 관련있는 영토이지 만⁴⁾,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붓은 오늘날의 소말리랜드처럼 남쪽 끝에 있었을 것이다.⁵⁾

3:11~13 니스웨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할 것이다. 잘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그것은 곧 심판 받을 운명이었다. 그 땅의 문들이 대적에게 활짝 열릴 때 그 방어는 헛될 것이다.

3:14~17 물을 준비하고 새로 굽은 벽돌로 요새를 강화하는 등 적의 포위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스웨는 멸망할 것이다. 상인과 지휘관과 장군이 하늘의 못별처럼 무수할 것이나 그들은 동이 틀 때 메뚜기 떼가 날아가 버리듯이 그 성에서 사라질 것이다.

3:18~19 앓수르의 목자들(지도자들)이 이제는 죽음의 잠을 잔다. 그 나라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멸망의 소식이 큰 기쁨을 가져올 것인데 이는 많은 이들이 그 손에 의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니스웨는 BC 612년 멸망했다.

이처럼 나훔의 예언은 철저히 성취되어, 후에 크세노폰과 알렉산더 대제와 같은 이들의 군대는 니스웨 성 폐허 부근이나 그 위

3) (3:8-10) 탈굽과 불가타역은 “인구 많은 알렉산드리아”라고 옮겼다.

4) (3:8-10) “리비아인”(Libyan)이란 현대어는 “루빔”과 관련있는 듯하다.

5) (3:8-10) “붓”(Put)은 애굽의 “분트”(Punt), 즉 소말리랜드처럼 홍해 남단에 위치한 지역인 듯하다(Maier의 *Nahum*, pp. 321,322를 보라).

를 지나가면서도 전혀 그 위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니느웨의 옛 위치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었다.⁶⁾

6) (3:18,19) 폴 에밀리 보타(Paul Emile Botta), 오스틴 헨리 레이야드(Austen Henry Layard), 조지 스미드(George Smith)는 니느웨 성의 폐허를 발굴해낸 개척적인 고고학자들이었다(1840년대에서 1870년대까지).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Lee.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il, C. F. "Nahum."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Maier, Water A. *The Book of Nahum. A Commentary*. Reprint. Minneapolis: James Family, 1977.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1.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하박국

하박국 서론

“하박국은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의 위로와 안전에만 관심이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참된 애국자로서 그는 그의 주변의 도덕적 영적 상태로 인해 심히 괴로워했다. 그는 그의 민족을 사랑했으며, 조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범함으로써 점점 파멸의 벼랑에 이르고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 그의 입술에서 ‘언제까지나?’ ‘어찌하여?’라는 두 가지 고통스런 질문이 터져 나왔다.” (리처드 W. 디한)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하박국 2장 4절은 신약성경에 세 번 인용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구절이다.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관상 모호하고 짧은 구약성경 구절이 얼마나 풍부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를 끝마쳤다. 또한 하박국 3장 17,18절과 빌립보서 4장 4,10~19절을 비교해보라. 선지자 하박국도, 사도 바울도 외적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하박국서의 문체에 대해 히브리 그리스도인 학자인 찰스 화인 베르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히브리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에게 높은 위치를 부여한다. 3장의 시는 어느 모로 보나 극히 뛰어난 히브리 시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이 책의 언어는 매우 아름답다.”¹⁾

2. 기자

우리는 사실 선지자 하박국에 관해 아는바가 없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²⁾ ‘포옹하다’ 혹은 ‘씨름하다’는 뜻인 듯하다.

그는 스스로를 선지자로 부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까닭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예언의 ‘은사’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직분’도 가졌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소명으로는 정치인이었으나 은사로는 선지자였다.) 하박국이 3장에서 악기를 언급하는 까닭에, 비록 추측이긴 하지만 그가 성전 찬양대와 관련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3. 연대

하박국이 아무 왕도 언급하지 않은 관계로 그의 짧은 예언은 연대를 잡기가 어렵다. 일부 합리주의 비평가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를 들어 훨씬 후대의 연대를 제시하지만, 이 책은 BC 600년대

1) (서론) Charles Lee Feinberg, *Habakkuk, Zephaniah, Haggai and Malachi*, p. 12.

2) (서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름의 첫 음절을 강조하지만 영어에서는 둘째 음절이 더 강조된다. 히브리어에서는 마지막 음절이 강조된다(Ha-ba-KOOK).

작품으로 보인다. 보수주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선지자 하박국을 므낫세, 요시아, 여호야김 등 BC 7세기 왕들의 통치기간에 위치시킨다. 마지막에 거론된 왕의 통치기간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는데, 그 때는 바벨론이 승리를 거둔 갈그미스 전투(BC 605년)를 전후한 연대이다.

4. 배경 및 주제

요시아 왕 지도 아래 종교 부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당시의 도덕적인 상황은 다시금 음란한 바알과 아스다롯 종교의 영향을 받아 심히 저급했다. 또 불의가 가득했다. 하박국은 그러한 개탄스런 상황을 다루어야 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 유수(BC 586) 이전에 유다를 향해 예언했다. 그의 이름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인 듯 한데, 그는 유다 백성의 죄악과 징벌을 놓고 여호와와 씨름을 한 것이다.

화인베르그는 “포옹하다”는 뜻을 더 선호하여 다음과 같은 마틴 루터의 글을 인용했다.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혹은 서로 껴안고 팔로 안는 자를 뜻한다. 그는 그의 백성을 껴안고 팔로 안았다. 즉, 사람이 우는 아이를 껴안고 하나님의 뜻이면 곧 괜찮아질 것이라고 진정시키듯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운 것이다.”³⁾

5. 개관

1.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지 않으시는데 대한 하박국

3) (서론) Feinberg, *Habakkuk*, p. 11.

의 당혹스러움(1:1~4)

2. 바벨론인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응답(1:5~11)

3. 더 악한 민족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는 까닭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1:12~17)

4. 유다의 의로운 백성은 보존되고 불의한 자녀는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2장)

1)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2:1)

2) 응답을 기록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라는 명령(2:2,3)

3)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불의한 갈대아인은 죽을 것이다(2:4)

4) 갈대아인의 죄악의 목록(2:5~19)

(1) 끊임없는 정복욕(2:5~8)

(2) 탐욕과 교만(2:9~11)

(3) 피 흘림으로 부요케 됨(2:12~14)

(4) 이웃을 타락케 함(2:15~17)

(5) 우상숭배(2:18,19)

5)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앞에서 잠잠할 것(2:20)

5. 하박국의 기도와 신뢰(3장)

1)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다(3:1,2)

2)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돌아보다(3:3~15)

3) 대적이 징벌 받기를 기다리다(3:16)

4)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3:17~19)

하박국 주해

1.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지 않으시는데 대한 하박국의 당혹스러움(1:1~4)

1:1~4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가 아마 이 책의 제목일 것이다. 2~4절에서 그는 유다의 끔찍한 강포와 간악과 패역과 겁탈과 분쟁과 불의에 대해 여호와께 불평을 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그런 상황이 징벌받지 않은 채 계속되게 방치해두실 것이냐고 물었다.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질문을 던진 까닭에 하박국은 때로 “구약의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운다.

1~11절은 하박국과 여호와 사이의 대화를 다룬다.

2. 바벨론인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여호와의 응답(1:5~11)

1:5~11 하나님의 응답이 5~11절에 주어져 있다. 그분은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그 대적은 사납고 성급하고 두렵고 무섭고 빠르고 그리고 오만할 것이다. 바벨론인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운 기병으로 이름 높았다. 그들은 사로잡은 열왕과 방백을 비웃었고, 그 힘을 자기 신(神)으로 삼았다.

화인베르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갈대아인의 성공은 증대된 것이다. 그들은 바람이 드넓은 대지를 휩쓸 듯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 이끌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게 되는데, 이는 그 불경건한 야망과 많은 무력한 백성들을 압제한 일 때문이다.”⁴⁾

3. 더 악한 민족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는 까닭에 대한 허박국의 질문(1:12~17)

1:12~17 바벨론인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겠다는 응답을 듣고 허박국은 당혹해했으며, 그로 인해 두 번째 대화가 이어졌다(1:12~2:20). 어떻게 하나님이 더 악한 민족의 손으로 유다를 징벌하실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는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과 쟁론을 한다. 그리고 바벨론인은 의심의 여지없이 악했다! 그러나, 유다의 죄악은 더 컸는데, 왜냐하면 유다 백성은 훨씬 더 큰 빛을 거스려 범죄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갈고리와 그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바벨론인의 악을 방관하실 수 있는가?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소득이 풍부했다. 그들이 열국을 살육하는 일이 끝이 없을 것인가? J. E. 에반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부의 생활에서 비유를 끌어냈다. 사람들은 어부가 그물로 모은 고기 같았다. 어부는 덕택에 풍부해진 그 그물에게 성스런 영예를 부여했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세상이고, 고기는 나라이고, 어부는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그물은 느부갓네살이 정복을 통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갈대아인의 군사력이다.”⁵⁾

4) (1:5-11) Feinberg, *Habakkuk*, p. 17.

4. 유다의 의로운 백성은 보존될 것이나 불의한 갈대아인은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2장)

1)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2:1)

2:1 하박국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보기 위해서 그의 파수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 홀로 처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그것을 “조용한 시간”이라 부르든, “경건의 시간”이라 부르든, 다른 무엇으로 부르든 간에 날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2) 응답을 기록하고 그 성취를 기다리라는 명령(2:2,3)

2:2 그것을 읽는 자가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묵시’, 즉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그분의 응답을 ‘기록하라’고 여호와께서 선지자 하박국에게 명하셨다.

2:3 이 구절은 유대인의 소망, 즉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을 굴복시키고 그분의 나라에서 모든 거치는 것을 제하고 그분의 영광스런 통치를 이룩하고 친히 유대 나라의 머리가 되사 이스라엘로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A. J. 폴록은 말한다.⁶⁾ 3절은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인용되었는데, 거기서는 “이 묵시”가 ‘주님’으로 바뀌어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확실히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의 문맥은 그리스도인의

5) (1:12-17) J. E. Evans,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6) (2:3) A. J. Pollock,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소망, 즉 교회의 휴거를 가리킨다.

3)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며, 불의한 갈대아인은 죽을 것이다(2:4)

2:4 바벨론 왕은 마음이 교만으로 높기에 죽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잔존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4절 후반부는 신약성경에 세 번 인용되었다. 그 문구를 이루는 세 부분(의인-믿음으로 말미암아-살리라)이 세 본문에서 각각 강조되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을 강조하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살리라’를 강조한다. 하박국 본문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이다. 이것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는 살리라”라고 풀어쓸 수도 있다.

4) 갈대아인의 죄의 목록(2:5~19)

(1) 끊임없는 정복욕(2:5~8)

2:5 술을 즐기는 것이 바벨론의 국가적인 죄요 분명 느부갓네살의 죄였다. 그러한 술취함은 “고대 작가들이 혐오하는 것이었고,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과 그 나라의 귀인들이 연회에서 흥청망청 즐기던 중 바벨론이 정복당한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카일은 지적한다.⁷⁾ 게다가 느부갓네살은 만족할줄 모르는 정복욕에 사로잡혔다.

2:6~8 6절은 바벨론에 대한 다섯 가지 저주를 담은 조롱의 노래를 시작한다. 첫 번째 저주는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혹은

7) (2:5) C. F. Keil, “Habakkuk”,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pp. 74,75.

침략욕에 대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많은 나라들이 그가 부당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 조롱하고 그가 그들에게 행한 것처럼 바벨론을 압제하고 약탈할 것이다.

(2) 탐욕과 교만(2:9~11)

2:9~11 두 번째 저주는 느부갓네살의 탐욕과 교만에 대해 선 포되었다. 그는 그의 왕조를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지키고자 했으나 그의 불의한 소득과 잔인함이 그를 쳐서 증거할 것이다.

(3) 피흘림으로 부요케 됨(2:12~14)

2:12~14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세 번째 저주는 그가 영광을 탐하고 피 흘림으로 그것을 이룬 것에 대한 것이다. 노예들의 노동으로 건축된 바벨론 성읍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불의 땀감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이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될 날이 올 것이다. 그 영광스런 때가 잘 알려진 시적인 표현으로 예고되어 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2:14).

(4) 이웃을 타락케 함(2:15~17)

2:15~17 네 번째 저주는 느부갓네살이 다른 나라들을 타락시키는 즐거워하고 수치를 모르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킨 일에 대한 것이다.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오늘날 TV와 영화와 ‘문학’의 두 가지 주요 요소인 수치를 모르는 성생활과(성도착증을 포함해서) 과도한 폭력을 조장한 죄가 있었다.

(5) 우상숭배(2:18~19)

2:18~19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저주는 바벨론의 우상숭배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을 신랄하게 정죄한다. 숨도 쉬지 못하는 은 금으로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5)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앞에서 잠잠하라(2:20)

2:20 어떤 교회들은 회중을 안정시켜 조용히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 표현은 그런 분위기에 적합할지 모르나 본문의 문맥상 의미는 여호와께서 막 심판 중에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려 한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온 땅이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5. 하박국의 기도와 신뢰(3장)⁸⁾

1)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다(3:1,2)

3:1~2 하박국은 이제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분의 백성의 대적을 다루신 일을 들은바 있다. 이제 그는 그분의 대적을 벌하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다시금 역사를 이루시라고 그분께 간구한다.

2)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을 돌아보다(3:3~15)

3:3~7 스크로기가 “신의 현현(顯現)의 송시”(하나님의 나타남에 관한 노래)⁹⁾라고 부른 하나님의 위엄에 관한 놀라운 이상 중

8) (3장)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장을 음악에 맞춰 예배 때 사용했다.

9) (3:3-7) Scroggie, “Habakkuk”, in *Know Your Bible*, Vol. 1, The Old Testament, p. 196.

에,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 대적을 향해 나아가 그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영광스런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적을 징벌하신 일과, 출애굽당시에 애굽을 심판하신 일과, 약속의 땅에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했던 민족들을 종종 언급한다.

기도의 앞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명이 하늘과 땅에 나타난다.

데만, 바란산, 구산, 미디안 등의 지명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에돔의 큰 성읍인 데만은 이두메를 대표하고, 구산은 아마도 “구스” 내지 에디오피아와 동일한 듯하다.

3:8~11 본문에는 특히 강과 바다와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기적을 베푸사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그 유명한 기브온의 사건을 가리킨다(수 10:12).

3:12~15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 땅에 행진하시분노 중에 그들의 대적을 짓밟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15절은 양편에 큰 물이 쌓인 채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처럼 통과하던 홍해를 건넌 일을 가리킨다(출 14장).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을 타고 바다를 통과하시는 모습을 상상했다.

3) 대적이 징벌 받기를 기다리다(3:16)

3:16 바벨론 침략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선지자 하박국은 두려워 떨면서 곧 닥쳐올 사건을 조용히 기다리겠다

고 다짐했다.

4)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3:17~19)

3:17~19 그 사이에, 바벨론 침략의 결과로 어떤 시련을 겪게 되든 선지자 하박국과 그의 백성은 잘 견뎌내야 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것이다. 벅스터는 이렇게 환호한다.

“문자적으로는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 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위를 돌 것이다’이다. 여기에 믿음의 기쁨, 즉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로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기를!”¹⁰⁾

10) (3:17~19) J. Sidlow Baxter, *Explore the Bible*, p. 212.

참고 문헌

De Haan, Richard W. *Song in the Night*. Grand Rapids: Radio Bible Class(booklet), 1969.

Feinberg, Charles Lee. *Habakkuk, Zephaniah, Haggai and Malachi*.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s to the Jews, 1951.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Keil, C. F. "Habakkuk."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5.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Scroggie, W. Graham. "Habakkuk." In *Know Your Bible*. Vol. 1. The Old Testament.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n.d.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3. Reprint(3 vols.). Mi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스바냐

스바냐 서론

“만일 어떤 이가 선지서의 모든 비밀한 말씀의 간략한 대요를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이 짧은 스바냐서를 읽게 하라.” (마틴 부서; 1528)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많은 사람들이 “왕의 측근”으로서 왕족에 준하는 예우를 누린다. 선한 왕 히스기야의 현손(玄孫)이자¹⁾ 지금 왕위에 있는 경건한 왕 요시아의 먼 사촌인 스바냐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슬프게도 그 두 의로운 왕 사이엔 아몬과 므낫세에 의한 반세기가 넘는 악한 통치가 시행되었다. 스바냐는 아마 남왕국 유다의 수도의 왕궁을 쉽게 출입한 듯하다.

2. 기자

1) (서론) 1장 1절의 “히스기야”는 히브리어 원문의 히스기야와 철자가 똑같다.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 대해 우리는 이는바가 거의 없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즉 ‘보호하시다’ 혹은 ‘소중히 간수하시다’는 뜻이다. 그의 계보는 앞서 말한 대로 왕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어두움을 빛에 대비하고 빛을 어두움에 대비하기를 즐겼다. 즉, 한편으로는 여호와와 그의 날의 어두침침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장래 영광과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밝게 묘사했다. 히윗이 지적한대로 선지자 스바냐는 조금도 말을 꾸미지 않았다.

“그는 일절 타협적인 표현을 사용치 않았다. 그는 담대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으며, 그리고 천년왕국의 도래를 대망하는 영감과 소망이 넘치는 노래로 그의 책을 마감했다.”²⁾

3. 연대

스바냐는 요시아 통치 기간에(BC 640~609) 사역을 했다. 그가 BC 621년의 대부흥 이전에 집필을 했는지 그 이후에 집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믿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나뉜다. 만일 이전이라면, 그의 예언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재발견한 율법을 인용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실은 621년 이후의 연대를 암시해준다. 스바냐 2장 13절은 니느웨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성이 멸망한 BC 612년 이전의 연대여야 함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아마도 BC 621년에서 612년 사이에 집필되었을 것이다.

4. 배경 및 주제

2) (서론) J. B. Hewitt, *Outline Studies in the Minor Prophets*, p. 45.

스바냐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언을 한 듯하다(“그곳”, 1:4).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21~23장과 예레미야서 앞 부분에서 발견된다.

“스바냐는 스구디아인 무리가 신속하고 위협적으로 지평선 너머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유다는 강대국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기에 무력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유다 남쪽과 북쪽의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권을 놓고 싸울 때면 자연 그 사이에 위치한 약소국들은 그 싸움에 연루되어 약탈을 당하곤 했다. 요동치듯 불안한 주변 정세를 인식한 가운데 스바냐는 의를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어 그 시대의 죄악을 가차없이 꾸짖었다.”³⁾

그는 이 작은 책에서 “여호와와 날”이라는 표현을 일곱 번 사용했다. 이것은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책의 주제를 암시해준다. 다른 주요 표현들로는 “투기”, “그 중에 거하다” 등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에 대해 분개하신다는 의미에서 투기하신다. 그분은 첫째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3:5), 그리고 그들의 대적의 정복자로서(3:15) “그 중에 거하신다.”

5. 개관

1.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1:1~18)
 - 1) 온 땅에 대해(1:1~3)
 - 2)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에 대해(1:4~6)
 - 3) 희생제사로 비유된 여호와와 날(1:7~13)

3) (서론) J. B. Hewitt, *Outline Studies in the Minor Prophets*, p. 44.

- (1) 초청객-유다의 대적들(1:7)
- (2) 희생물-유다의 악한 백성들(1:8~13)
- 4) 여호와의 날의 두려움(1:14~18)
- 2. 유다의 회개 촉구(2:1~3)
- 3. 열국의 운명(2:4~15)
 - 1) 블레셋(2:4~7)
 - 2) 모압과 암몬(2:8~11)
 - 3) 구스(2:12)
 - 4) 앗수르와 니느웨 성(2:13~15)
- 4. 예루살렘에 선포된 화(禍)(3:1~7)
 - 1) 불순종, 무책임, 불신앙, 회개치 않음(3:1,2)
 - 2) 방백과 재판관들의 탐욕(3:3)
 - 3) 선지자들의 경거망동과 패역함 및 제사장들의 신성모독(3:4)
 - 4) 여호와의 심판(3:5~7)
- 5. 신실한 잔존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3:8~20)
 - 1) 악한 열국의 멸망(3:8)
 - 2) 남은 열방의 회심(3:9)
 - 3) 흩어진 이스라엘의 회복(3:10~13)
 - 4)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즐거워함(3:14~17)
 - 5)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3:18~20)

스바냐 주해

1.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1:1~18)

1) 온 땅에 대해(1:1~3)

1:1~3 오늘날 흔히 말하듯이 유대인은 “뿌리”를 대단히 중시했기 때문에 대개 선지자들은 그 부친과 때로는 그 조부의 이름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구시의 아들 스바냐는 분명 그가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대의 선조를 소급해 올라간다. 1장은 전체적으로 온 땅의 멸망과 특히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묘사한다. 하나님이 온 땅을 완전히 멸절하실 것이다.

2)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에 대해(1:4~6)

1:4~6 유다의 거민이 그 우상숭배로 인해, 즉 바알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을 숭배한 까닭에 징벌을 당할 것이다.

3) 희생제사에 비유된 여호와와 의 날(1:7~13)

(1) 초청객-유다의 대적들(1:7)

1:7 여호와께서 제물을 예비하셨다. 유다가 희생물이고 바벨론인이 초청객이다.

(2) 희생물-유다의 악한 백성(1:8~13)

1:8~13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의복과 관습과, 강포와 속임으로 인해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다. 침략자들이 살육과 약탈을 자행할 때 어문과 제2구역과 작은 산 등 여러 곳에서 부르짖음이 사무칠 것이다.

4) 여호와와의 날의 두려움(1:14~18)

1:14~18 여호와와의 날에 대한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묘사가 여기에 나온다. 그날은 사람들, 특히 유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다. 그날은 전쟁과 환란과 살육의 날이다. 어떤 유명한 라틴 찬송가는 이 15,16절에 근거한다.

“1250년 셀라노의 토마스는 15절을 근거로 ‘그날은 진노의 날’이라는 뜻의 ‘*디에스 이라에, 디에스 일라*’라는 유명한 심판의 시를 지었다. 그날은 분노와 환란과 고통과 황무와 폐괴(히브리어의 ‘황무와 폐괴’(쇼아)와 ‘우메쇼아’)는 소리가 비슷하여 파괴의 단조로움을 말해준다)와 캄캄함과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과, 그리고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를 향해 나팔소리와 경보가 울리는 그런 날이다.”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사랑을 투기하시며 모든 경쟁자를 징벌하실 것이다.

2. 유다의 회개 촉구(2:1~3)

2:1~3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

4) (1:14-18) Charles Lee Feinberg, *Habakkuk, Zephaniah, Haggai, Malachi*, p. 50.

3절은 유다의 의로운 잔존자를 가리키는 듯하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의 구한다면 그분의 무서운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3. 열국의 운명(2:4~15)

1) 블레셋(2:4~7)

2:4~7 4~15절은 동서남북 사방의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첫째는 그렛 족속으로도 알려진 블레셋 족속이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등의 성읍들이 버림받고 황폐할 것이다. 그들은 멸절될 것이며, 그들의 땅은 유다의 목초지로 사용될 것이다.

2) 모압과 암몬(2:8~11)

2:8~11 이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향한 그들의 오만한 말과 자랑을 들으셨다. 그들은 황무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11절은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쇠잔케 하실 천년왕국의 상황을 대망한다.

3) 구스(2:12)

2:12 구스(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의 칼(바벨론왕)로 징벌받을 것이다. 화인베르그 같은 이는 여기에 나오는 “구스인”을 애굽과 관련시킨다.

“구스의 부(富)는 구스 왕조에 복속된 애굽의 부와 결합되었다. 예레미야 46장 9절과 에스겔 30장 5절을 보라. 애굽이 구스리는 표현에 내포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⁵⁾

5) (2:12) Charles Lee Feinberg, *Habakkuk, Zephaniah, Haggai, Malachi*, p. 59.

4) 앓수르와 니느웨 성(2:13~15)

2:13~15 느부갓네살은 또한 앓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다. 니느웨는 짐승과 새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그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4. 예루살렘에 선포된 화(禍)(3:1~7)

1) 불순종, 무책임, 불신앙, 회개치 않음(3:1,2)

3:1~2 여자로 의인화된 예루살렘 성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자로 정죄를 받았다. 그녀는 불순종했으며 여호와를 의뢰하거나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

2) 방백과 재판관들의 탐욕(3:3)

3:3 그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그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 같이 탐욕스럽다.

3) 선지자들의 경거망동과 패역 및 제사장들의 신성모독(3:4)

3:4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신실치 못했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화인베르그는 이렇게 말한다.

“4절에서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선지자들에 대한 유일한 비난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경거망동, 즉 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죄를 범했다. 그들의 삶이나 가르침에는 무게감이나 견고함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백성들을 권하여 배도한데서 주께로 돌이키는 대신 그들 스스로 그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그분께 신실치 못했다는 점에서 간사했다. 그들은 불경건한 행위로 성소를 모독했다.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 명백한 의도와 의미를 왜곡함으로써 율법을 범하였다.”⁶⁾

4) 여호와와의 심판(3:5~7)

3:5~7 그 모든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 그 중에 거하신다. 그분은 유다가 그분을 경외하게 될 줄로 기대하고 다른 열방을 징벌하셨으나 유다 백성은 더욱 타락했다.

5. 신실한 잔존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3:8~20)

1) 악한 열국의 멸망(3:8)

3:8 유다의 신실한 잔존자는 그분이 그 투기의 불로 모든 대적을 멸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권면을 듣는다.⁷⁾

2) 남은 열방의 회심(3:9)

3:9 9절의 ‘깨끗한 입술’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술 내지 여호와께 대한 찬양으로 순수한 언어를 가리킨다. 온 백성이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3) 흩어진 이스라엘의 회복(3:10~13)

3:10~13 그 천년왕국 시대에 열국은 흩어진 유대인을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그 땅에 돌려보낼 것이다. 교만 중에 자랑하는 악한 자들은 유다에게서 끊어질 것이며, 따라서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믿는 잔존자로 두려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남은

6) (3:4) Charles Lee Feinberg, *Habakkuk, Zephaniah, Haggai, Malachi*, p. 64.

7) (3:8) 스바냐 3장 8절은 구약성경 원문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모든 문자를 내포한 유일한 구절이다.

자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여호와와 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 것이다.

4)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즐거워함(3:14~17)

3:14~17 14~20절은 그분의 능한 구원으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기리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노래를 보여준다. 시온의 딸은 노래하고 외치고 즐거워할 이유가 풍부하다! 그 대적이 쓰러졌을 뿐 아니라 메시아-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 중에 거하신다. 약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를 고요케 하실 것이다.

5)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3:18~20)

3:18~20 곧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경건한 잔존자의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강한 약속으로 예언을 마감하신다. ‘대회’를 잃어버린 수치와 슬픔 대신에 쫓겨난 자들은 수치를 당했던 모든 땅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Feinberg, Charles Lee. *Habakkuk, Zephaniah, Haggai and Malachi*.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s to the Jews, Inc., 1951.

Feinberg, Charles Lee.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Hewitt, J. B. *Outline Studies in the Minor Prophets*. West Glamorgan, U. K.: Precious Seed Publications, n.d.

Keil, C. F. "Zephaniah."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Testament*. Vol. 2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Morgan, G. Campbell. *The Minor Prophets*. Old Tappan, N. J.: Fleming H. Revell Company, 1960.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3. Reprint(3 vols.). Mineapolis: Reprint(3 vols.). Mi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학개

학개 서론

“학개처럼 그렇게 풍부한 영적인 개념들을 그렇게 짧은 지면 안에 함축시킨 선지자는 거의 없었다.” (프랭크 E. 케벨라인)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이 책의 요점은 간단하다: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사역을 위해 일찍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온 잔존자가 16년 동안 그 일을 손에서 놓고 있었으며, 이에 학개가 깊은 잠에 빠진 유다 백성을 깨워 일을 시작하게 할 사명을 위임받았다. 학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 영광뿐 아니라 불경건한 열국에 대한 심판도 그의 메시지에 담았다.

2. 기자

학개는 그 이름이 “축제(명절)의”라는 뜻인 것으로 보아 유대인

의 절기에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혹은, 추방 중에 태어난 까닭에(추측임) 믿는 부모가 장래의 즐거운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수도 있다.

학개는 스가라와 말라기와 더불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사역을 한 세 선지자 중 첫 번째이다. 에스라가 5장 1절과 6장 14절에서 학개를 언급했는데, 사실 학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바가 없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현대의(또한 오랜 세월에 걸친) 경향과 대조적으로, 메시지와 선지자를 임명하신 하나님의 중요성을 지적해준다.¹⁾

3. 연대

학개서는 정확히 BC 520년, 곧 “다리오 왕(다리오 1세) 2년”으로 연대를 확정할 수 있다.

4. 배경 및 주제

포로 후 선지자로서 학개는 스룹바벨이 첫 번째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의 사역은 백성들을 권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스 5:1).

주요 표현은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이다(1:13; 2:4). 다른 중요한 표현으로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1:5,7; 2:15,18), “스스로 굳세게 하라”(2:4) 등이 있

1) 1(서론) 하워드 웬드릭스는 설교가 끝난 후 성공적인 설교자를 자랑하는 이러한 일반화된 경향을 가리켜 “별레 같은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의식”이라고 적절히 지적했다.

다.

5. 개관

1. 첫 번째 예언-제 6월 초하루(1장)
 - 1) 성전재건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망(1:1~4)
 - 2) 성전재건 실패로 인한 기근과 곤핍(1:5~11)
 - 3) 학개의 권고로 인한 재건사역 재개(1:12~15)
2. 두 번째 예언-제 7월 21일(2:1~9)
 - 1) 학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다(2:1~5).
 - 2) 장래의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다(2:6~9).
3. 세 번째 예언-제 9월 24일(2:10~19)
 - 1)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동안 제단에 드러진 제물은 더러웠다(2:10~14).
 - 2)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백성들이 곤핍을 겪었다(2:15~17).
 - 3) 만일 그들이 성전재건을 재개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2:18,19).
4. 네 번째 예언-제 9월 24일(2:20~23)

열국이 몰락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뤄진다는 약속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다.

학개 주해

1. 첫 번째 예언-제 6월 초하루(1장)

1) 성전 재건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망(1:1~4)

1:1~4 이 예언은 메대 바사 왕인 다리오 왕 제 2년으로 연대가 밝혀졌다. 여호와께서 성전 재건을 지체하고 판벽한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꾸짖으셨다.

2) 성전 재건의 실패로 인한 기근과 곤핍(1:5~11)

1:5~11 그들은 최근의 모습으로 인해 마땅히 경고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여호와와의 전을 소홀히 하자 주립과 갈함과 곤핍을 겪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재건을 시작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전이 폐허로 있는 한 그들은 가뭄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었다.

3) 학개의 권고로 인한 재건 사역 재개(1:12~15)

1:12~15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재건 명령이 떨어진 지 23일만에 재건을 시작했다.

2. 두 번째 예언-제 7월 21일(2:1~9)

1) 학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백성들을 다시

격려하다(2:1~5)

2:1~5 한달 후 제 7월에 백성들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며 새 성전에 낙심이 되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에 “굳세게 하고” 두려워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2) 장래의 성전의 영광이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다 (2:6~9)

2:6~9 하나님은 장래(천년왕국)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도자들을 격려하셨다. “만국의 보배”는 종종 메시아와, 그분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문맥에 의하면 ‘만국의 보물’을 의미하는 듯하다(NKJV 난하주).²⁾ 그들의 은금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흘러 들어올 것이다. 9절 상반절의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은 두 성전을 한 건물로 보았다. 영광 외에 또한 평강이 장래에 약속되었다.

3. 세 번째 예언-제 9월 24일(2:10~19)

1)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한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더러웠다(2:10~14)

2:10~14 세 번째 예언은 제 9월 24일에 주어졌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명령을 들었다:

(1) 옷자락에 찢 거룩한 고기가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 식물이 거룩하게 되겠는가?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옹계 답변했다. (2)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그 식물을 만진다면 그 식물이

2) (2:6-9) NKJV의 대문자표기는 그런 전통적인 해석과 맥을 같이 하나, 그러나 난하주의 “만국의 소원”이란 표현은 다른 견해를 암시한다.

부정하게 되겠는가? 제사장들은 “그렇다”라고 옳게 답변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는 다른 것에 거룩을 끼치지 못하지만, 더럽혀진 자는 그 더러움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이다.³⁾ 혹은 달리 표현하면, “일이나 예배는 죄를 거룩하게 못하지만 죄는 일과 예배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⁴⁾ 이것은, 성전이 폐허로 있는 한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제물이 오염되며 그들 자신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2) 성전 기초가 놓이기 전에는 백성들이 곤핍을 겪었다(2:15~17)

2:15~17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는 곡식과 포도주의 부족을 겪었으며, 그들의 곡식은 폭풍과 곰팡과 우박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성전 재건을 지체했으며 그 결과 가혹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다.

3) 만일 그들이 성전 재건을 재개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2:18,19)

2:18~19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4. 네 번째 예언-제 9월 24일(2:20~23)

열국이 몰락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뤄진다는 약속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다

2:20~23 스룹바벨은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

3) (2:10-14) William Kelly,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p. 427.

4) (2:10-14) Donald Campbell, 더 이상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나님이 이 세상 열국을 뒤엎어 멸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인’(印)은 하나님의 통치권위가 메시아에게 맡겨지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문헌

Baldwin, Joyce G.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2.

Feinberg,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Keil, C. F. "Haggai."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3.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스가랴

스가랴 서론

“스가랴의 예언은 메시아에 독특한 강조점을 두고,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특히 재림과 연관된 사건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천년왕국의 회복을 펼쳐 보인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메릴 F. 영거)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창세기와 시편과 이사야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책들이며, 그들의 분량과 내용의 중요성을 보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14장으로 이뤄진 스가랴서가 신약성경에 약 40회 인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것은 특히, 이 책이 매우 메시아적이며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포로 후기 책인 스가랴서는 그 메시지와 계시 외에 흥미로운 상징적인 이상들이 더해져 그 중요성을 더욱 높여준다.

2. 기자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의 사가라와 같은, 스가라(‘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명 가량 된다.

이 선지자이자 제사장 스가라는 포로기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듯하다.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일을 언급했고(12:4,16), 에스라는 그의 사역을 언급했다(5:1; 6:14). 스가라는 연로한 학개의 짧은 공사역을 인계 받고 남은 지들을 격려했다.

스가라는 장기간 사역을 했으며, 연대가 밝혀진 부분보다 훨씬 연대가 늦은 듯한 9~14장을 집필했다.

3. 연대

스가라는 학개가 사역을 한 그 해인 BC 520년에 예언을 시작했으나, 그 후 적어도 3년간 계속했다.

4. 배경 및 주제

스가라는 베레가의 아들이었다. 학개처럼 그는 포로 후 그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였다. 그는 학개와 협력하여 그들을 독려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했다(스 5:1). 스가라의 예언은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와 세 번째 메시지 중간에 시작되었다.

극히 상징적인 표현을 동원한 여덟 가지 이상을 통해 그는 이방 세계제국의 몰락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배도한 유대인의 심판과, 잔존자의 정결과 회복 및 영광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장래 영광을 예언했다. 앞의 다섯 가지 이상은 은혜의 메시지며, 뒤의 세 가지 이상은 심판의 메시지이다.

메시아에 관한 스가라의 잘 알려진 예언들로는,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9:9), 은 30에 팔림(11:12,13), 매를 맞은 목자와 같은 죽음(13:7), 감람산에 다시 오심(14:4), 대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천년통치(14:9) 등이 있다.

이 예언 중 많은 부분이 스가라 당시에 부분적으로 적용 내지 성취되었으나 많은 부분이 미래의 성취를 기다린다.

5. 개관

1. 회개와 순종의 촉구 및 열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경고(1:1~6)
2. 성전재건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진 여덟 가지 이상(1:7~6:8)
 - 1) 붉은 말을 탄 사람(1:7~17)
 - 2) 네 뿔과 네 장인(匠人)(1:18~21)
 - 3) 척량줄을 잡은 사람(2:1~13)
 - 4) 대제사장 여호수아(3장)
 - 5)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4장)
 - 6)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 7) 에바 속에 앉은 여자(5:5~11)
 - 8) 네 병거(6:9~15)
3.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6:9~15)
4. 벨엘에서 온 유다인들이 금식을 계속 행할지를 묻다(7~8장)
 - 1) 금식에 관한 질문(7:1~3)
 - 2) 첫 번째 메시지(7:4~7)
 - 3) 두 번째 메시지(7:8~14)
 - 4) 세 번째 메시지(8:1~17)
 - 5) 네 번째 메시지(8:18~23)

5. 메시아의 초림을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9~11장)

- 1) 열국이 심판 받을 것이다(9:1~8)
- 2) 메시아의 시온 초림(9:9)
- 3)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무장해제와 우주적인 평화(9:10)
- 4) 포로된 자들의 예루살렘 귀환(9:11,12)
- 5) 온 이스라엘의 헬라에 대한 승리(9:13)
- 6)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와 개입(9:14~17)
- 7) 백성들이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권고를 받다(10:1,2)
- 8)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징벌하고, 메시아를 일으키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10:3~5)
- 9)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시 모여 회복될 것이다(10:6~12)
- 10) 신실치 못한 방백들은 징벌 받을 것이다(11:1~3)
- 11) 메시아가 양떼의 참 목자가 되다(11:4~8상)
- 12)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다(11:8하~14)
- 13)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 목자(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다(11:15~17)

6. 메시아의 재림을 강조하는 두 번째 말씀(12~14장)

- 1) 예루살렘은 열국에게 환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12:1~3)
- 2) 여호와께서 유다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12:4)
- 3) 유대인이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인정할 것이다(12:5)
- 4) 쫓겨난 유다가 그 대적을 삼키고 첫 승리자가 될 것이다(12:6~9)
- 5)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애통해할 것이다(12:10~14)
- 6) 죄 씻음을 위한 대책이 예비될 것이다(13:1)
- 7)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질 것이다(13:2~6)

- 8) 메시아가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13:7)
- 9) 이스라엘의 잔존자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13:8,9)
- 10)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14:1,2)
- 11)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이다(14:3~5)
- 12) 우주적인 기후 및 낮과 밤의 변화(14:6,7)
- 13) 생수의 강(14:8)
- 14)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14:9)
- 15) 그 땅의 지형적인 변화(14:10)
- 16)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고 안전할 것이다(14:1)
- 17) 재앙과 두려움이 이방 대적을 괴롭힐 것이다(14:12~15)
- 18) 이방 생존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든지 아니면 재앙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14:16~19)
- 19) 평범한 그릇과 물체도 여호와께 성결할 것이며, 상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장사하지 못할 것이다(14:20~21)

스가랴 주해

1. 회개와 순종의 촉구 및 열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으라는 경고(1:1~6)

1:1~6 처음 여섯 구절은 서론이다. 본문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를 통한 여호와와의 말씀들을 담고 있다. 3절은 이 책의 열쇠와 같은 구절이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한 그들의 열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으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신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신대로 심판이 백성에게 임했으며, 그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 그들을 다루고 계심을 깨달았다.

2.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주어진 여덟 가지 이상(1:7~6:8)

스가랴는 그의 시대에서 천년왕국에 이르는 예언적인 파노라마를 지닌 그의 책을 시작한다.

1) 붉은 말을 탄 사람(1:7~17)

의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동안 편안히 쉬고

있는 열방을 불쾌히 여기신다. 그분은 열국을 징벌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1:7~11 7절에서 선지자는 여덟 가지 이상을 시작한다.

첫 번째 이상에서, 여호와께서 홍색, 자색, 흰색 말을 타고 땅을 순찰하는 그분의 대리인들(아마도 천사들)과 함께 계신 모습을 나타내신다(‘홍마 탄 사람’을 11절의 ‘여호와와 사자’와 비교하라).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는 이방에게 복속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선지자 스가라가 말탄 자들의 의미하는 바를 문자 해석하는 천사가 그 뜻을 설명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여호와(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께서 그들의 역할이 땅을 순찰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다. 그 순찰자들은 온 땅이 조용히 쉬고 있다고 여호와께 보고를 했는데, 이는 아마도 열국, 특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당하는 동안 안락을 즐기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1:12~17 여호와와 사자가 70년간 황폐해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 만군의 여호와께 중재를 했다. 고무적인 답변을 듣자 이 해석하는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하실 것이라고 선포할 것을 선지자 스가라에게 명했다. 일찍이 열국이 유다에게 잔폭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자극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것이며,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여기서는 ‘떡줄’이 재건축을 의미하나,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는 파괴를 의미한다. 선지자 스가라는 하나님이 유다 성읍을 번성케 하고,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했다.

2) 네 뿔과 네 장인(1:18~21)

의미: 네 이방 세계제국의 멸망

1:18~21 이 두 번째 이상의 완전한 성취는 미래를 기다린다.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흠어지게 한 네 나라, 즉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등 네 이방 세계제국으로 밝혀진다. 1) ‘네 장인’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않지만, 유다를 흠어지게 한 열강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리자임이 분명하다. G. 콜먼 룩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 네 하나님의 대리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에스겔 14장 21절과 계시록 6장 1~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네 가지 심판, 즉 전쟁과 기근과 들짐승과 역병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 또 앞의 이상에서 묘사된 네 제국을 전복시킨, 차례로 그 자리를 이은 네 열강을 가리킨다는 한결 가능성 있는 주장이 있다. 즉,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헬라가 메대 바사를, 로마가 헬라를, 그리고 위대한 메시아 왕국이 마지막 때의 소생한 로마제국을 전복시킬 역사의 전개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분명한 일반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마침내 전복되고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이다.”²⁾

3) 척량줄을 잡은 사람(2:1~13)

의미: 예루살렘의 장래의 번성과 인구증가 및 안전

2:1~5 세 번째 이상은 척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준다. 선지자 스가랴가 어디 가는지를 묻자 그는 예루살렘 부지(敷地), 즉

1) (1:18-21) 어떤 이들은 이 ‘네’ 뿔을, “여덟 번째 이상에서 그것이 모든 방향을 가리키듯이 적대(敵對)의 철저함”을 가리킨다고 본다(Joyce G.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p. 407). 그러나 개개 나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고대의 해석이다.

2) (1:18-21) G. Coleman Luck, *Zechariah*, pp. 26,27.

그 성이 지어질 곳에 간다고 답변했다. 그 해석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를 만났는데, 그 다른 천사가 해석하는 천사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이 사람이 가득 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것이기에 성벽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청년(스가라나 척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동안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2:6~12 여기서 추방지에 남은 유대인 포로들이 북방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비록 바벨론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지만, 포로된 자들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경유해서 올 것이며 따라서 북방에서 이스라엘에 진입할 것이다.) 이 일 역시 “영광”이 나타나고 세워진 후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성취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을 징벌하실 것인데, 이는 그 백성이 “그의 눈동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성전에 오실 때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이며, 그 날에 열국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란 표현을 사용한 곳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2:13 모든 육체는 잠잠하라는 명령을 들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열국을 징벌하기 위해 친히 일어나실 것이다.

4) 대제사장 여호수아(3장)

의미: 이스라엘의 대표자 되는 제사장직이 정결케 되고 회복될 것이다.

3:1~3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제사장직을 묘사한다. ‘사단’(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이스라엘을 고소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불에서, 즉 포로된 데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건져내셨다고 사단에게 답하셨다.

3:4~7 천사는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가라의 요청대로 여호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한 관이 쓰워지고 옷이 입혀졌다. 만일 백성이 여호와께 신실하고 순종적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을 책임 맡고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자들 중에 가까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3:8~9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즉, 예표를 위한 사람들)이었다. 영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언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 그 공적인 직임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속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예표하는바 대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을 것이다.”³⁾

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종 순”으로 표현되었고, 9절에서는 새긴 돌에 비유되었다(단 2:34,35). 어떤 이들은 “순”은 초림에 적용되고 “돌”은 재림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게벨라인은, 일곱 눈이 새겨진 돌 역시 구속받은 민족, 즉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왕국의 기초를 의미함에 틀림없는데, 이는 그와 관련하여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는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3) (3:8,9) Merrill F. Unger, *Zechariah: Prophet of Messiah's Glory*, pp. 64,65.

라고 일컫는다.⁴⁾

3:10 3장은 천년왕국의 목가적인 생활의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하는 말로 마감된다.

“만군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5)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4장)

의미: 하나님의 등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기름으로 묘사됨)에 의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4:1~6 다섯 번째 이상은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 순금 등대를 묘사한다. 그 등대는 받침이 있고 거기서 가지가 뿔은 모양이었다. 가지 끝에는 주발이 있어서 기름 그릇 역할을 했다. 가지 위에는 일곱 관이 있었고 그 끝에는 일곱 개의 작은 등잔이 있었다. 등대 양편에는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아마도 등대 주발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을 타고 주발에서 일곱 등잔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 순금 등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 등대는 기름, 즉 성령에 의해 세상의 빛된 그 기능을 완수할 수 있다. 이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여호와와 영에 의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이다. 장애가 제거될 것이며, 스투바벨의 손이 전에 그 기초를 놓았듯이 성전 재건을 끝마칠 것이다. 엉거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영적인 원리는(6절), 인간적인 힘과 전혀 상관없

4) (3:8,9) Arno C. Gaebelin, *Studies in Zechariah*, p. 42.

이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령의 충만한 부어짐으로 천년왕국의 증인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이상을 통해 아름답게 묘사되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그 약속은 당시에 성전을 완성하는 큰 과제를 당면한 스룹바벨에게 직접 적용된다.”⁵⁾

4:7~10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완성될 것이며, 그 아름다움에 놀라 “은총,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는 환호가 터져 나올 것이다.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한 자들, 즉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가능성을 조롱한 자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을,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 건축을 끝마칠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일곱 등잔은 여호와와 일곱 눈으로서, 그분이 재건사역과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모습을 말해준다.

4:11~14 스가라가 두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 가지에 대해 묻자, 여호와 옆에 서 있는 두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천사가 대답했다. 이것은 왕과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된다.

이 이상은, 이전의 이상이 정결이 필요함을 가르쳐주었듯이, 회복에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

6) 날아가는 두루마리(5:1~4)

의미: 이 땅의 거짓 맹세하는 자와 도적질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다.

5:1~2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이상은 치리와 재판과 관계된 세

5) (4:1-6) Unger, *Zechariah*, p. 75.

가지 이상 중 첫째이다. ‘두루마리’는 솔로몬 성전의 현관과 같은 크기인, 길이 30피트에 넓이 15피트였다.

5:3~4 그 두루마리는 모든 도적질하는 자와 모든 맹세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다. 그 저주의 일부로, 도적질한 자나 거짓 맹세한 자의 모든 집이 살라지되 나무와 돌이 다 살라질 것이다. 아마 이 이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행해질 전세계적인 심판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대한 죄(도적질)와 하나님에 대한 죄(거짓 맹세)가 그 때에 치리될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두 돌판을 가리킬 수도 있다.)

7) 에바 속의 여자(5:5~11)

의미: 우상숭배와 금전숭배가 그 땅에서 그 본래 속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5:1~11 일곱 번째 이상은 에바(바구니) 속에 있는 여자를 보여준다. 에바는 장사할 때 무게를 다는데 사용하는 가장 단위가 큰 바구니였다. 여자는 “악”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 땅에서 ‘납 조각’이 에바 위에 덮였는데 이는 악이 제약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두 여자가 에바를 가지고 시날(바벨론)로 날아갔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금전숭배를 이스라엘에서 그 발생지인 바벨론 땅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한 이동은 물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왕국의 수립을 위한 예비조치일 것이다. 11 절의 “집”은 “이방 신전”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숭배가 제거되었으나, 그러나 장차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할 때 더 악한 형태의 우상숭배를 범하게 될 것이다.

8) 네 병거(6:1~8)

의미: 하나님의 순찰대가 순찰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몰락했음을 암시한다.

6:1~4 스가라는 이어서 네 대의 말과 병거가 두 늦산 사이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말들은 홍마와 흑마와 백마와 어룽진 말이었으며 모두 건장했다.

6:5~7 해석하는 천사가 이르기를, 이 네 대의 말과 병거는 하늘의 네 영, 즉 이방 세계를 메시아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인을 가리킨다고 했다. 흑마는 북쪽으로 갔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예언서에서 이 두 방향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관련이 있다(예를 들어, 북방 왕과 남방 왕). 백마는 흑마를 따라 갔고, 아마도 홍마는 지명이 밝혀지지 않은 지역으로 순찰을 갔을 것이다.

6:8 해석하는 천사가 이르기를, 북방으로 나간 말들이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늘 위협적인 존재였던 북방 군대(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이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와 사자에 의한 이스라엘 대적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듯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이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

3.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6:9~15)

의미: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국가의 이상적인 결합을 말하는 왕과 대제사장으로 임하실 것을 보여준다.

6:9~13 심판에 대한 이상들이 그치자 매우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 스가라는 포로 귀환자 중 세 사람-헬대, 도비아,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취하여 요시아의 집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면류관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⁶⁾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대제사장이 아닌 통치자를 위해 만든다. 그러나 이 행동은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심을 대망한다. 그는 12절에서 천년왕국 성전을 짓고, 왕의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순’으로 묘사되었다. 데이빗 바론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성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왕궁과 성소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은 확실히 메시아의 왕같은 제사장직과 잘 부합한다. 그분은 왕으로서 그 왕궁에 들어가셨고, 제사장으로서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⁷⁾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즉 왕과 제사장 사이에 (한 인격 안에) 평화로운 이해가 존재할 것이다.

6:14 그 면류관은 기념물로 성전에 보관되어야 했다. 헬렘은 헬대와 동일 인물이고 헨은 여호수아이다.

6:15 흠어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준종을 격려하는 말로 백성들 앞에 진술되었다.

4. 벤엘에서 온 유대인이 금식을 계속 행할지를 묻다(7,8장)

6) (6:9-13) ‘여호수아’와 ‘예수아’(예수의 히브리어 형태)가 사실상 같은 이름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7) (6:9-13) David Baron, *The Visions and Prophecies of Zechariah*.

1) 금식에 관한 질문(7:1~3)

7:1~3 7,8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단락을 이루며 금식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베엘에서 보냄 받은 사람들이(NKJV 난하주)⁸⁾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는 해에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70년간 그것을 행해왔다.

2) 첫 번째 메시지(7:4~7)

의미: 이 금식은 그들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실재를 원하신다.

7:4~7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 가지 메시지로 주어졌다 (7:4~7; 7:8~14; 8:1~17; 8:18~23). 첫째로, 하나님은 그 5월과 7월의 금식이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에 의해서 제정된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 그들의 금식과 연회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의식보다 의와 실재를 더 원하신다고 백성들을 일깨운바 있었다.

3) 두 번째 메시지(7:8~14)

의미: 백성들이 공평과 의와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한 까닭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

8) (7:1-3) ‘베엘’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히브리어지만, 성전은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불리운다. 따라서 여기서는 KJV와 NKJV의 전통과 반대로 베엘 성읍을 의미하는 듯하다. 또한 ‘*to*’가 이탤릭체인 점을 주목하라(2절). 그것은 그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없음을 의미한다. 볼드윈의 말대로, “이 구절을 옮기는 정확한 방법은 분명치 않다.”(Joyce G. Baldwin, *Zechariah, Malachi*, pp. 14 1~143).

7:8~14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했는지를 설명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공평과 인자와 긍휼을 베풀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주목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고, 백성이 열국 중에 흩어졌고, 그 땅이 황폐해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묻고 있는 금식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였다.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경고한다.

“의식은, 무엇을 해낼는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믿음은 더더욱 대신할 수 없다.”⁹⁾

4) 세 번째 메시지(8:1~17)

의미: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8:1~5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메시지는 유다에게 장래의 축복을 약속해준다. 유다의 대적들에게 큰 진노가 부여될 것이다(2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진리의 성읍”으로 불리울 것이며, 그 거리가 소년 소녀들의 놀이터와 늙은이들의 사교장으로 바뀔 것이다.

8:6~8 그 일이 소수에 불과한 남은 자들에게 기이하게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어려운 일이겠는가?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실 분이다.

9) (7:8-14) William Kelly,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p. 467.

본문은 스가랴 당시 백성에게 직접 적용되긴 했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8:9~13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하는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그들이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전에는 실업자가 많았고 거리마다 폭력이 넘쳤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셨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저주 대신 축복이 될 것이다.

8:14~17 불순종의 날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확실히 재앙을 약속하셨듯이, 이제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배경 아래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웃에게 악을 꾀하고 거짓 맹세를 즐기는 것)을 금하고 진실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살라는 권면을 받았다.

5) 네 번째 메시지(8:18~23)

의미: 이스라엘의 금식은 연회로 바뀔 것이며, 예루살렘은 세계의 예배 중심지 될 것이다.

8:18 베냐민에서 온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로, 슬픔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절기의 기간으로 바뀔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을 슬퍼했고(왕하 25:1),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을 기렸고(왕하 25:3),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을(왕하 25:8~10), 7월의 금식은 그달라의 살해당함을(왕하 25:25) 각각 기렸다.

8:19~23 8장 마지막 부분은 많은 이방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자 전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날에 유다 백성은 세계에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을 보라(2,3,4,6,7,9,14,19,20,23절).

5. 메시아의 초림을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9~11장)

나머지 장들은 두 가지 말씀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말씀인 9~11장은 메시아의 초림을 강조하는 반면, 두 번째 말씀인 12~14장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출현을 대망한다.

1) 열국이 심판 받을 것이다(9:1~8)

9:1~7 여기 9장에서 먼저 수리아(하드락, 다메섹, 하맛-1,2절 상), 두로, 시돈(2하~4절), 블레셋(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5~7절) 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 두로는 그 부(富)와 견고한 성읍을 자랑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바다에 던지실 것이다. 블레셋 성읍들은 두로의 멸망을 보고 경악할 것이다. 그들은 두로가 난공불락의 성인줄로만 알았다. 블레셋인의 경우에도 우상숭배가 제거되고 이스라엘 중에 적은 무리로 거하게 될 것이다. 에그론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성스럽고 평화로운 시민으로 거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여부스족과 같이 될 것이다.

9:8 이방의 침략자가 더 이상 성전이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1~8절은 그 이방 세력이 알렉산더 대제에게 정복당할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13절에 헬라가 언급된 것을 보라).

2) 메시아의 시온 초림(9:9)

9:9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왕)의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 격려를 받았다. 9절은 그분의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의 초림을 묘사한다. 사복음서 중 가장 유대적인 마태복음과, 가장 보편적인 요한복음이 우리 주님의 소위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

3)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뤄질 무장해제와 우주적인 평화(9:10)

9:10 그러나 10절은 그분이 권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을 대망한다. 전쟁 무기가 없어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실 것이다(스가라는 시편 72편 8절을 인용하고 있다). 9절과 10절 사이에는 현재의 은혜시대가 숨겨져 있다.

4) 포로된 자들의 예루살렘 귀환(9:11,12)

9:11~12 “네 언약의 피”는 언약이 인봉된 피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율법의 언약이나(출 24:8),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는 언약이나(신 30:1~10), 다윗 언약이나(삼하 7:4~17), 아니면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일반적인 언약관계를 가리킬 수 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방 나라의 ‘물 없는 웅덩이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혹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할 수 있는 ‘견고한 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5) 온 이스라엘의 헬라에 대한 승리(9:13)

9:13 유다와 이스라엘(에브라임)이 그 날에 열국을 정복하고 헬라를 굴복시킬 것이다. 이 예언은 BC 175~163년에 있었던 마

카비 전쟁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아울러 그 예언은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분산에서 마침내 돌아올 것을 대망한다.

6)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와의 개입(9:14~17)

9:14~17 어느 알려지지 않은 주석가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전쟁을 이렇게 생생히 묘사한다.

“하나님의 승리자들은 패배당한 대적의 피를 가득히 마실 것이며, 제단과 그 뿔에 뿌려질 피로 가득한 제사 그릇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승리를 통해 제단 모퉁이처럼 피 묻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매릴 영거는 이스라엘과 그 대적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한다.

“앞절에서 묘사된 진흙창에서 밟히는 물매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뚜렷히 대조되게도, 스가라는 시온의 승리의 자손들(구원받은 잔존자)을, 여호와와 땅에서 빛을 발하는 면류관의 ‘보석’에 비유한다. 이 묘사는 분명,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신실한 순교자들과 이스라엘의 용맹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해준다.”¹⁰⁾

7) 우상이 아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권면을 받다(10:1,2)

10:1~2 백성들은 무가치한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권면을 받았다. 우상숭배는 백성들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한다.

10) (9:14-17) Unger, *Zechriah*, p. 170.

8) 하나님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벌하고 메시아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10:3~5)

10:3 백성들을 방황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목자들과 지도자들(수염소들)에게 표출되었다. 여호와께서 유다 족속에게 임하여 그들을 전쟁의 말과 같게 하실 것이다.

10:4~5 많은 주석가들이 4절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한다. 그는 유다에게서 나와 요긴한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과 그리고 권세 잡은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한다고 믿는다. 마지막 문장은 메시아가 행할 일, 즉 이방 압제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을 묘사한다고 화인 베르그는 말한다¹¹⁾(KJV 참조). 어쨌든, 유다 백성은 그들의 대적에게 영광스런 승리를 거둘 것이다.

9) 이스라엘과 유다가 재집결되고 회복될 것이다(10:6~12)

10:6~12 6~12절은 이스라엘(요셉)과 유다가 세계적인 분산에서 다시 집결될 것을 예언한다. 이스라엘(에브라임)은 용사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자신이 심거나 흠으신 길르앗과 레바논과 애굽에서 그들을 모아들이실 것이다. 전에 그들을 속박했던 열국은 징벌을 당할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겠다’는 것은 홍해가 출애굽을 방해했듯이 귀환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0) 신실치 않은 지도자들은 징벌받을 것이다(11:1~3)

11) (10:4,5) Charles Lee Feinberg, *God Remembers*, p. 188.

11:1~3 11장은 메시아의 거절과,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다룬다.

처음 세 구절은 산지와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레바논)의 숲에서 일어날 파괴를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듯하다. 요단의 초장이 황폐하고 그들의 양떼가 먹을 것이 없는 까닭에 목자들이 부르짖는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AD 70년 로마에 의한 그 땅의 황폐화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11) 메시아가 양떼의 참 목자가 될 것이다(11:4~8상)

11:4~6 여호와께서 죽을 운명인 양떼의 목자 역할을 떠맡으라고 스가랴에게 명하셨다. 여기서 스가랴는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양떼(유다의 잔존자)가 이전 목자들(통치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학사당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악한 거민을, 그들이 왕으로 인정할(요 19:15) 로마 황제의 손에 내어주기로 작정하셨다.

11:7~8(상)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가랴는 은총(아름다움)과 연락(결속)이라는 두 개의 막대기를 취했다. 이 막대기는 그분의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결합시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준다. 스가랴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등 세 직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세 거짓 목자들을 쫓아내야만 했다. (영거는 이 세 목자가 유대 국가 지도자들의 세 계층-제사장, 율법 교사, 관원-을 묘사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한 달’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바로 직전의 최고조에 달한 불신앙의 시기로 설명한다.)¹²⁾

12) (11:7,8상) Unger, *Zechariah*, p. 195.

12)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다(11:8하~14)

11:8(하)~11 백성들이 목자를 거절하자 목자는 그들을 그 운명에 내버려둔다. 스가라는 그런 다음 첫 번째 막대기(은총)를 둘로 꺾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저지한 언약을 폐했다. 오직 ‘가련한 양들’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왜 행하시는지 이해했다.

11:12~13 스가라가 자신의 삶을 요구하자 그들은 그에게, 소뿔에 받힌 노예의 몸값인 은 30을 주었다. 이 값이 토기장이에게 던져졌는데 이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후 행할 일에 대한 예언이다.

11:14 그런 다음 스가라는 다른 막대기(연락)를 둘로 꺾었는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간의 형제우애가 끊어졌으며 유다 백성 간에 분열과 내분이 있게 될 것을 암시했다.

13) 하나님이 그들을 거짓 목자(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시다(11:15~17)

11:15~17 화인베르그는 14절과 15절 사이에 교회시대가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¹³⁾

이스라엘은 ‘선한’ 목자를 거절한 까닭에 ‘거짓’ 목자에게 내어줄 것이다. 스가라는 무가치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함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다. 이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대신 약탈하고 살해할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전쟁으로 그의 팔이 마르고 그 우편 눈이 멀 것이다.

13) (11:15-17) Feinberg, *God Remembers*, p. 211.

6. 메시아의 재림을 강조하는 두 번째 말씀(12~14장)

1) 예루살렘이 열국에게 환란의 근원이 될 것이다(12:1~3)

12:1~3 여기에 열방이 장차 예루살렘을 치러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 성을 괴롭히는 모든 자는 큰 환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 육중한 맷돌을 들어올리다가 스스로 상할 것이다.

2) 여호와께서 유다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다(12:4)

12:4 그 날에 하나님이 침략자, 즉 말과 말 탄 자를 쳐서 미치고 놀라게 하실 것이다.

3)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의 힘으로 인정할 것이다(12:5)

12:5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다의 두목들(총독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4) 외곽에 있는 유다가 그 대적을 삼키고 첫 번째 승리자가 될 것이다(12:6~9)

12:6~9 그 날에 유다의 두목들이 그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삼키는 불처럼 될 것이다. 우선 외곽에 있는 유다 거민에게 승리가 임할 것이며, 예루살렘 백성은 유다 백성보다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은 보호와 힘을 얻을 것이며, 열방의 침략자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5)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일을 슬퍼할 것이다(12:10~14)

12:10~14 백성들은 그 찌른 메시아를 보고 심히 애통해할 것이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

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 하리로다”(10하). “...나를”(우리말 성경 난하 주 참조-역주)이란 표현을 주목하라. 그들이 찌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였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형태의 슬픔이었다.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에 관해서는(11절) 역대하 35장 20~24절을 보라. 애곡하는 자에는 왕족, 선지자(나단), 제사장(레위), 교사(시므이), 백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시므이가,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룬 시므온이라고 믿는다(창 34:25).¹⁴⁾ “따로 하다”는 표현이 반복된 것을 보라(12~14절). 참된 자백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것을 요구한다.

6) 죄 씻음을 위한 대책이 예비될 것이다(13:1)

13:1 13장 첫 구절은 앞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는 위치에 이른 후에, 민족적인 속죄의 날이 임할 것이다. 정결케 하는 샘이 갈보리에서 열렸으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7)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거될 것이다(13:2~6)

13:2 그 땅에서 우상이 제거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이 사라질 것이다.

13:3~5 본문은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

14) (12:10-14) 히브리어에서 시므온은 시몬(Shimon)이다. 모음이 더해지기 전에 자음만으로 이뤄진 고대 원문에서는 시므온이 시므이(Shimei)로 곧잘 오기(誤記)될 수 있었다.

에게 임할 진노를 묘사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되이 선지자 인채 한다면, 그의 부모가 그를 위협하고 칼로 찌를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은 경솔히 선지자로 자처하지 않고 농부나, 그밖에 그들의 실제 직업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것이다.

13:6 어떤 거짓 선지자가 칼로 찔림을 당하거나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인 관습의 하나로 자해한 상처가 있을 경우, 그는 그에 대해 질문을 받아도 실제 이유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식의 모호한 대답을 할 것이다.

많은 경건한 설교자들이 6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갈보리에서 받으신 못 박힌 상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한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맥과 그런 의미를 조화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¹⁵⁾ 우리는 합리주의 비평가들의 불신앙으로부터 구약의 메시아 구절들을 보호하려는 열정이 지나쳐서 어느 구절을 그 배경과 상관없이 강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G. 콜만 렉과 같은 보수적인 성경학자는 본문에 대한 비(非) 메시아적 해석에 동의한다.

15) (136) 저명한 구약학자인 엉거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한편,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성경학자가 거의 없음을 인정한다.

“이 메시아 예언의 대담무쌍함과, 그것이 소개되는 ‘극적인 당돌함’에 놀라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것이 2~5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거짓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은 터무니없게도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란 주장하에 본문의 참 의미를 저버리고 있다.”

엉거 박사는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그의 주석에 다섯 편의 글을 실었다(pp. 228~230).

“여기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그에게 질문한 사람은 그를 의심하고 계속 심문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는 관습이 있었다(왕상 18:28; 렘 16:6 등).”¹⁶⁾

이 구절 자체도 거짓 선지자에 더 잘 부합한다. ‘손’(KJV)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팔뚝을 가리킨다. NKJV가 보다 정확히 옮긴바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이교적인 관습에서 행해지는 것 같은 몸 앞이나 뒤에 상처를 내는 것(혹은 이 거짓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친구들”에 의해 받은 상처)을 가리킬 수 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친구들’의 집에서가 아니라 그 가장 잔인한 대적들의 집에서 상처를 받으셨다.

8)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13:7)

13:7 7절은 모든 믿는 성경학도들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간주하는 부분을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칼에게 깨어서 주 예수님을 치라고 명하신다. 목자가 갈보리에서 침을 당했으며 유다의 양들이 그 후로 흩어졌다.

9) 이스라엘의 잔존자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13:8,9)

13:8~9 주 예수님을 거절한 까닭에 이스라엘의 3분의 2는 대환란 기간에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은 은금같이 단련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다.

10)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14:1,2)

16) (13:6) G. Coleman Luck, *Zechariah*, p. 113.

14:1~2 여기서 여호와와의 날은 예루살렘이 열국에 의해 마지막으로 포위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침략군이 그 성 안에서 취한 노략물을 나눌 것이다. 백성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절반은 성에 남아있을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실 것이다(14:3~5)

14:3~5 그 때 여호와께서 친히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다.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길 것이며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영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황홀경을 표현하기 위해 목격자는 간접적인 묘사에서 직접적인 묘사로 나아가는데, 이는 생동감 넘치는 히브리어 문체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⁷⁾

12) 일기와 조명상의 우주적인 변화(14:6,7)

14:6~7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매우 모호해서 모팻, RSV, NEB, NIV 등과 같은 많은 현대 역본들은 “모든 극단적인 온도가 멈출 것”이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한두 가지 고대 번역을 받아들이고 있다.¹⁸⁾ 볼드윈은 히브리어 원문의 6절 마지막 문장을 “광명한 것들(별)이 그 빛을 잃는다”라고 달리 번역했다.¹⁹⁾

본문의 ‘일반적인’ 의미는 분명한데, 즉 예고된 변화는 범위에 있어 ‘우주적’이라는 것이다.

17) (14:3-5) Unger, *Zechariah*, p. 250.

18) (14:6,7)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p. 203.

19) (14:6,7)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p. 203

초기 역본들의 지지를 받는 번역을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거부하는 영거는 ‘날’을 24시간의 간격이 아닌 기간(여호와의 날)으로 본다. 그는 본문을 이사가야 30장 26절과 연결시킨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 상한 자국을 치료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아질 것이며, 햇빛은 7일간의 빛처럼 일곱 배로 빛날 것이다.”²⁰⁾

13) 생수의 강(14:8)

14:8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동해)로 절반은 지중해(서해)로 흐르되 사시사철 그러할 것이다.

14)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14:9)

14:9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실 것이다.

15) 그 땅의 지형상의 변화(14:10)

14:10 온 땅이 평지로 변할 것이며 그 위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다.

16) 예루살렘이 사람이 거하고 안전할 것이다(14:11)

14:11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며,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적의 침략과 완전한 파멸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7) 재앙과 두려움이 대적들에게 임할 것이다(14:12~15)

20) (14:6,7) Unger, *Zechariah*, pp. 252,253.

14:12~15 연대적으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14장 3절에 속한다. 이 대적들은 무서운 재앙을 당할 것이다.²¹⁾ “그 살이 찢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찢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찢을 것이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다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도울 것이며 큰 노략이 있을 것이다.

18) 열방의 생존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경배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형벌을 당할 것이다(14:16~19)

14:16~19 살아남은 열방 백성이 왕되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언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일곱 절기 가운데, 천년왕국 시대에 준수되는 것으로 이 예언에 나와있는 유일한 절기이다. 그 까닭은 초막절은 그 때에 상징적으로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절기요, 천년왕국 자체에 의해 성취되는 과정 중에 있을 유일한 절기이기 때문이다.”²²⁾ 여호와께 나아와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가뭄을 당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을 나라 중 하나로 특히 ‘애굽’이 언급되었다.

19) 평범한 그릇 같은 물건도 여호와께 성결케 될 것이며, 상인은 여호와의 전에서 장사하지 못할 것이다(14:20~21)

14:20~21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될 것

21) (14:12-15) 오늘날 많은 독자들은 본문이 핵공격의 무서운 결과와 매우 흡사함을 주목하고 있다.

22) (14:16-19) Unger, *Zechariah*, p. 265.

이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다. 말에 달린 방울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평범한 단지들도 성결케 될 것이다! ‘가나안족’-행상인이나 부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조롱조의 표현-은 성전, 즉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서 사라질 것이다.

참고 문헌

Baldwin, Joyce G.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3: InterVarsity Press, 1972.

Feinberg, Charles Lee. *God Remembers*.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s to the Jews, Inc., 1965.

Gaebelein, Arno C. *Studies in Zechariah*. New York: Our Hope Publishers, 1904.

Lanely, J. Carl. "Zechariah." In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84.

Lindsey, F. Duane. "Zechariah."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Victor Books, 1985.

Luck, G. Coleman. *Zechariah*. Chicago: Moody Press, 1969.

Mills, Montague S. "Zechariah." In *The Minor Prophets: A Survey*. Distributed by 3E Ministries. Dallas:n.d.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3.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Tatford, Frederick A. *Prophet of the Myrtle Grove*. Eastbourne, England: Prophetic Witness Publishing House, 1971.

Unger, Merrill F. *Zechariah: Prophet of Messiah's Glo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2.

말라기

말라기 서론

“말라기는 긴 하루를 끝나게 하는 늦은 저녁과 같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날을 품은 아침 여명이기도 하다.” (네겔스바크).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말라기(나의 사자,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를 뜻하는 ‘말라키야’의 단축형인 듯하다)서는 세례 요한과 주 예수님 모두를 대망하는, 선지서의 마지막이자 신구약 사이의 교량이 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은 말라기의 예언이 저자 익명이며, 말라기라는 이름은 에스라나 다른 작가를 일컫는 칭호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심지어 어떤 교부들은 기자가 천사였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말라기라는 이름이 ‘천사’ 내지 ‘사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¹⁾

1) (서론) ‘천사’(angel)라는 영어단어는 ‘앙겔로스’(사자 혹은 천사)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 책의 제목은 같은 의미를 지닌 ‘말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

또한 말라기서는 독특한 대화체(질문과 대답) 문장으로 이뤄져 있기에 어떤 이들은 말라기를 가리켜 “히브리인 소크라테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기자

비록 유대인의 전통은 말라기가 “유대인 공회”(Great Synagogue)의 일원이었고 스블론의 수바 출신의 레위인이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선지자에 대해 그의 책 외에 명확히 아는바가 없다. 우리는 그를, 학개와 스가랴와 함께 포로 후기 유대인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로 돌아오도록 촉구한 담대하고 종종 엄한 기자로 이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3. 연대

말라기는 BC 538년 이후에 이 글을 기록했음이 분명한데, 이는 그가 ‘총독’을 가리키는, 거의 포로 후기에만 사용되던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²⁾ 또한 그는 다른 두 포로 후기 ‘소’선지서인 학개서와 스가랴서보다 늦게 집필했음이 분명한데, 이는 말라기서에서는 성전이 완성되었고, 의식들이 재정비되었고, 그리고 사실 영적인 하락이 시작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이미 중건된 상태였다.

말라기서는 BC 470년에서 460년 사이로 연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에서 나왔다.

2) (서론) Joyce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p. 241.

4. 배경 및 주제

말라기서의 문제는 이방인과의 혼인, 부당한 금전관계, 하나님
의 집에 십일조를 바치지 않음, 전반적인 영적인 냉담함 등 느헤
미야서의 문제와 동일하다. 그것은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동일한
문제들이거나, 아니면 느헤미야 이후로 오래지 않아 그 문제들이
반복 내지 지속된 것이다.

포로 후기 유다인의 냉랭한 종교생활로 인해 말라기는 신실치
않은 백성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생생한 대화법을 사용하여 그들
을 일깨우고자 노력했다.

말라기의 이름 뜻이 “나의 사자” 혹은 “여호와와의 사자”라는 것
은 이 글에 매우 합당한 뜻인데, 이는 이 짧은 네 장의 글에서 선
지자 말라기는 여호와와의 제사장(2:2), 세레 요한(3:1), 우리 주님
(3:16) 등 세 명의 사자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과 마지막으로 변
론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글 후에는, 세레 요한이 오기
까지 4백년간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이 말라기서나 다른 선지서들의 연대를 아무리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 글은 요한과 주 예수님이 출현하기
오래 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것은 일부 파괴적인
비평가들의 주장하는 “예언 ‘처럼’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언’이다.

5. 개관

1.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의 추궁과 그들의 답변과 여호와와의
심판 경고(1:1~3:15)

- 1) 감사치 않음(1:1~5)
 - 2) 제사장들의 신성모독(1:6~14)
 - 3) 제사장들에 대한 정죄(2:1~9)
 - 4) 이혼 및 이방인과의 혼인(2:10~16)
 - 5)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인함(2:17)
 - 6) 삽입부: 메시야의 강림과 심판(3:1~6)
 - 7) 하나님의 십일조와 예물을 가로챌(3:8~12)
 - 8)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비난(3:13~15)
2. 남은 자의 축복과 악인의 심판(3:16~4:6)
- 1) 신실한 잔존자의 회복(3:16~18)
 - 2) 악인의 심판(4:1)
 - 3) 메시야가 잔존자에게 오심(4:2,3)
 - 4) 순종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약속(4:4~6)

말라기 주해

1.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와 그의 추궁과 그들의 답변과 여호와와의 심판 경고(1:1~3:15)

1) 감사치 않음(1:1~5)

1:1~5 첫 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잘못을 추궁하시는 것과 백성들이 그것을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에 여호와께서는 야곱(그들의 선조)을 사랑하고 에서를 거절한 일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을 심판하신 일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증명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은 에돔의 황폐함을 목도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것이다.

2) 제사장들의 신성모독(1:6~14)

1:6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분을 높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추궁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힌 행동의 증거를 요구했다.

1:7~8 여호와께서는 더러운 예물을 가져온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셨다. 그들은 또 부인했으나, 그분은 그들이 여호와께 아무것

이나 바쳐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 일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눈 멀고 저는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의 총독에게는 그런 것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1:9 선지자 말라기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라고 촉구했다.

1:10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예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누군가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셨다. 그런 예물은 그분께서 전혀 열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1:11 그러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높이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실 것이다.

1:11~14 유다인은 성전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역겨워했다. 흠투성이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온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는 큰 임금이요 그분의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할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제사장들에 대한 징죄(2:1~9)

2:1~9 제사장들은 만일 회개하고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들은, 이전의 제사장들은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으나 지금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타락했으며 이에 하나님이 그들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움 받았다.

4) 이혼 및 이방인과의 혼인(2:10~16)

2:10~12 이어서 이혼과,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여인과 혼인한 일을 다룬다. 유다 백성은 이방인과 혼인하여 제사를 행했으며 그로써 그들의 민족적인 일체성을 깨트렸다. 이방인과 혼인한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2:13~16 여호와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물을 열납하지 않으신 까닭에 백성들은 제단에서 애곡했다. 왜 그들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결혼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여호와께서 친히 목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이 한 순결한 백성이 되어 경건한 자손을 낳고 이방인의 타락한 모습과 분리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비성경적인 이혼과 그로 인한 ‘학대’를 미워하신다. ‘이혼’과 ‘학대’의 관계를 볼드윈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와께서는 이혼을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과 같다고 보셨는데, 이는 살해당한 희생물의 피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증표를 남기는 온갖 종류의 불의한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다.”³⁾

5)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인함(2:17)

2:17 그들은 그분이 모든 행악자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들은 위선되게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그분께 도전했다.

6) 삽입부: 메시아의 강림과 심판(3:1~6)

3:1 이에 하나님은 앞 구절의 오만불손한 도전에 답하신다. 그

3) (2:13-16) Joyce Baldwin, *Haggai, Zechariah, Malachi*, p. 241.

분은 자기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이는 세례 요한을 통해 먼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장차 엘리야가(4:5) 주(主), 즉 그들이 사모한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약속이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이 후에 왔을 때(그분의 초림)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점이다.

3:2~4 ‘그의 임하는 날’은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죄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 때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성전정화에 의해 묘사된 이 정결케 하는 사역은 그분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레위 자손’(제사장들)은 정결케 되어 옛날처럼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3:5 또한 여호와께서는 술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징벌하실 것이다.

3:6 여호와께서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야곱의 자손이 멸망에서 보호받을 것을 보증한다.

7) 백성들의 떠남(3:7)

3:7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을 떠난 사실을 부인하고 위선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라고 묻는다.

8) 하나님의 십일조와 예물을 가로챌(3:8~12)

3:8~12 모세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소산과 가축의 십분의 일을 여호와께 바쳐야 했다(아니면 돈으로 그것을 구속하고 5분의 1일을 더 내야 했다). 십일조는 무수한 예물 외에 드러진 것이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은 모든 소유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신약성경은 체계적으로, 풍성히, 즐거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는데로, 다시 말해서 비울적으로 드릴 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나 십일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그 대신,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이 십일조를 드렸다면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많이 드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약의 경우 온전한 십일조에 대한 보상은 물질적인 부였으나, 오늘날 시대에 충성된 청지기직에 대한 보상은 영적인 부요이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십일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저주를 자초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 만일 그들이 십일조에 충실한다면 그분은 쌓을 곳이 없도록 믿을 수 없을 만한 양으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가뭄과 질병과 대적과 메뚜기 떼에서 구원하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9)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비난(3:13~15)

3:13~15 다시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추궁하시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하며 그분을 향해 완악한 말을 발했다고 꾸짖으셨다. 그들은 교만한 자와 행악자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형통할 뿐 아니라 화를 면한다고 얘기했다.

2. 남은 자의 축복과 악인의 심판(3:16~4:6)

1) 신실한 잔존자의 회복(3:16~18)

3:16~18 그러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백성이 있었다. 그들은 생명을 보존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인정을 받고 그분의 보석이 될 것이다. 윌리엄 켈리는 이렇게 설명한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외적인 지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악한 자들을, 그들이 유대인인 까닭에 더욱더 미워하게 될 것이다(18절).”⁴⁾

2) 악인의 심판(4:1)

4:1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멸절하여 그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을 풀무와 같이 타는 날이 임할 것이다.

3) 메시아가 잔존자에게 도래함(4:2,3)

4:2~3 신실한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의로운 해’를 반가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들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4) 순종에 대한 마지막 권면과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약속(4:4~6)

4:4~6 이 책은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는 ‘권면’과,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낼 것이라는 약속으로 마감한다. 그가 백성들의 삶에 개혁을 일으키고 그들의 경건한 선조들을 본받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가

4) (2:13-18) William Kelly,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p. 536.

지고 그 땅에 임하실 것이다.⁵⁾ 회당에서 말라기서를 읽을 때 유대인들은 6절을 먼저 읽고 5절을 나중에 읽기 때문에 이 책은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월프의 말대로, “그러한 메시지를 완회시키려는 시도가 그 냉엄한 실재를 바꾸지는 못한다.”⁶⁾

우리는 구약을 신약의 온전한 빛 안에서 보기 때문에, 신구약을 훌륭하게 결합시키는 카일과 델리취의 경건하고 학적인 구약주석⁷⁾의 마지막 단락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본 ‘신자성경 주석’을 마감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산 위에 율법의 설립자요 옛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와, 율법을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시킨 선지자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나타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죽음에 대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생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스런 아들이셨다는 것을 사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였다.”⁸⁾

5) (4:4-6)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에레츠)가 ‘땅’을 뜻할 수도 있고 ‘세상’을 뜻할 수도 있다.

6) (4:4-6) Herbert Wolf, *Haggai and Malachi*, p. 126.

7) (4:4-6) 카일과 델리취의 방대한 작품이 1세기가 넘도록 여전히 간행되어 널리 사용된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합리주의적인 주석들은 끊임없이 보다 불신앙적인 것으로 대치되고 있는데 반해,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충실한 주석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그 가치를 발할 것이다.

8) (4:4-6) C. F. Keil, “Malachi”,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6:475.

참고 문헌

Baldwin, Joyce G. *Haggai, Zechariah, Malachi: An Introductory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2.

Feinberg, Charles Lee. *Habbakkuk, Zephaniah, Haggai and Malachi*. New York: American Board of Mission to the Jews, Inc., 1951.

Feinberg, Charles Lee. *The Minor Prophets*. Chicago: Moody Press, 1976.

Keil, C. F. "Malachi".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26.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Kelly, William.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Logsdon, S. Franklin. *Malachi or 'Will a Man Rob God?'* Chicago: Moody Press, 1961.

Morgan, G. Campell. *The Minor Prophet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60.

Tatford, Frederick A. *The Minor Prophets*. Vol. 3. Reprint(3 vols.). Minneapolis: Klock & Klock Christian Publishers, 1982.

Wolf, Herbert. *Haggai and Malachi*. Chicago: Moody Press, 1976.

참고 문헌 일람

Abels, Jules. *The Rockefeller Billions*. New York: Macmillan, 1965.

Adams, J.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0.

Adolph, Paul Ernest. "God in Medical Practice," a chapter in *The Evidence of God in an Expanding Universe* by John Clover Monisma. Bangalore, India: Thomas Samuel, 1968.

Alexander, Denis. *Beyond Science*. Philadelphia: Holman, 1972.

The Apocrypha.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Thomas Nelson & Sons, 1957.

Archer, Gleason. *A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Chicago: Moody Press, 1974.

Armerding, Carl. *The Fight for Palestine*. Wheaton, IL: Van Kampen Press, 1949.

Barnes, Albert. *The Bible Commentary, Proverbs-Ezekie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3.

Barnhouse, Donald Grey. *Words Fitly Spoken*. Wheaton, IL: Tyndale House, 1969.

Baron, David. *The Shepherd of Israel*. London: Morgan and Scott, Ltd., n.d.

Baxter, J. Sidlow. *Explore the Book*. London: Marshall, Morgan and Scott, Ltd., 1958.

Bermant, Chaim, and Michael Weitzman. *Ebla: A Revelation in Archaeology*. New York: Times Books, 1979.

Borland, James A. *Christ in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Press, 1978.

Bright, Bill. *Revolution Now*. San Bernardino, CA: Campus Crusade, 1969.

Bullinger, E. W. *The Companion Bible*. London: Lamp Press, n.d.

Campbell, M. *From Grace to Glory*.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70.

Chafer, L. S. *Systematic Theology*. 8vols. Dallas: Dallas Seminary Press, 1947.

Christenson, Larry. *The Christian Family*.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0.

Collins, Larry, and Dominique Lapierre, *O Jerusale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2.

Cook, F. C., ed. *Barnes' Notes on the Old and New Testament*. Repri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Crockett, William D. *A Harmony of Samuel, Kings and Chronic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1.

Darby, J. N. *The Collected Writings of J. N. Darby*. 34vols. plus Index. Reprint. Oak Park, IL: Bible Truth Publishers, 1972.

Darby, J. N. *Synopsis of the Books of the Bible*. 5vols. Reprint. Winshoten, Netherlands: H. L. Heijkoop, 1970.

Davidson, Stibbs and Kevan, eds. *The New Bible Commentary*. Chicago: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1953.

Durbanville, Henry. *Winsome Christianity*. Edinburgh: B. McCall Barbour, n.d.

Edersheim, Alfred. *Bible History. Old Testament*. Reprint(7vols. in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Falwell, Jerry, ed. *Liberty Bible Commentary*. Vols.1. *Old Testament*. Lynchburg, VA: The Old Time Gospel Hour, 1982.

Flynn, Leslie B. *Your God and Your Gold*. Williamsport, PA:

Hearthstone Publishers, Inc., 1961.

Gehman, Henry Snyder,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Gish, Arthur. *Beyond the Rat Race*.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3.

Grant, F. W. *The Numerical Bible*. 7vols. Neptune, NJ: Loezearux Bros., 1977.

Gray, James M. *Christian Worker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Co., 1953.

Griffiths, Michael. *Take My Lif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7.

Griffith Thomas, W. H. *The Pentateuch*,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5.

Haley, John W.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Nashville: Gospel Advocate Company, 1967.

Halley, Henry H. *Halley's Bible Handbook*. 24th e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5.

Harrison, Roland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9.

Harrison, Roland K. Ed. *Major Cities of the Biblical World*.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5.

Henry, Matthew. *The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6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74.

Henry, Scott and others. *The Pocket Bible Commentary*. Vols.4. Chicago: Moody Press, n.d.

Hoste, William, and William Rodgers. *Bible Problems and Answers*. Kilmarnock, Scotland: John Ritchie Ltd., 1957.

Ironside, H. A. *The Continual Burnt Offering*. New York: Loizeaux Bros., 1941.

Jamieson, Fausset, and Brown. *A Commentary, Critical, Experimental, and Practical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6vols.

London: Wm. Collins and Co. Ltd., n.d.

Johnson, Samuel. *The History of Rasselas, Prince of Abyssinia*. ed. J. P. Hardy. London: Oxford University, 1968.

Jones, E. Stanley, *Is the Kingdom of God Realism?* Nashville; Abingdon Cokesbury, 1940.

Jones, E. Stanley, *Growing Spiritually*. Nashville: Abingdon Press, 1953.

Josephus, Flavius. *The Works of Flavius Josephus*. Trans. William Whiston. Hartford, CT: The S. S. Scranton Co., 1905.

Kautzsch, E. ed. *Gesenius' Hebrew Grammar*. Revised by A. E. Cowley. Reprint. Oxford: Clarendon Press, 1976.

Keil, C. F. *Manual of Historico-Critical Introduction to the Canonical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2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2.

Keil, C. F. and Franz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26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Keil, C. F. and Franz Delitzsch. *Lectures Introductory to the Study of the Minor Prophets*. Fifth Edition., London: C. A. Hammond Trust Bible Depot, n.d.

Kitchen, J. Howard. *Holy Field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Holy Lan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5.

Kollek, Teddy and Moshe Pearlman. *Jerusalem, a History of Forty Centuries*.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68.

Lange, John Peter. *A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25 vols. Repri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0.

Lewis, C. S. *Weight of Glory*. Ed. by Walter Hooper.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0.

Lockyer, Herbert, Sr., ed. *Nelson's Illustrated Bible Dictionary*.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6.

MacDonald, William. *Kingdom Divided: A Study of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from Kings to Esther*. Toronto: Everyday Publications, 1974.

MacDonald, William. *16 Men with a Message: The Old Testament Prophets*. Toronto: Everyday Publications, 1972.

Mackintosh, C. H. *Genesis to Deuteronomy*. Neptune, NJ: Loizeaux Bros, 1972.

Mackintosh, C. H. *The Mackintosh Treasury*. Neptune: NJ: Loizeaux Bros., 1976.

Mantle, J. G. *Better Things*. New York: Christian Alliance Publishing Co., 1921.

McMillen, S. I. *None of These Disease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 1972.

Meyer, F. B. *Through the Bible Day by Day*. 7vols. Philadelphia: American Sunday-School Union, 1917.

Miller, Rev. H. S.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 Houghton, NY: The Word-Bearer Press, 1956.

Moody, D. L. *Notes from My Bible*.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5.

Morgan, G. Campbell. *An Exposition of the Whole Bible*. Westwood,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59.

Morgan, G. Campbell. *Living Message From the Books of the Bible, Genesis-Malachi*. New York: Fleming G. Revell Company, 1912.

Morgan, G. Campbell. *Searchlights from the Word*. London: Oliphants, 1970.

Muggeridge, Malcolm. *Jesus Rediscovered*. Garden City, NY: Doubleday, 1969.

Naismith, *1200 More Notes, Quotes and Anecdotes*. London: Pickering & Inglis, 1975.

Nee, Watchman. *Do All To The Glory of God*. New York: Chris-

tian Fellowship Publishers, Inc., 1974.

A New Concise Bible Dictionary. London: Central Bible Hammond Trust, 1973.

Orr, James,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5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39.

Packer, J. I. *Knowing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7.

Pentecost, J. D. *Things to Com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Pfeiffer, Charles F. *Baker's Bible Atla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Pfeiffer, Charles F. *The Biblical Worl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6.

Pfeiffer, Charles F. *An Outline of Old Testament History*. Chicago: Moody Press, 1960.

Pfeiffer, Charles F. and Everett F. Harrison, eds.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Pierson, Arthur T. *Knowing the Scriptures*. Fincastle, VA: Scripture Truth Book Company, 1975.

Pierson, Arthur T. *An Outline of Old Testament History*. Chicago: Moody Press, 1960.

Pilkey, John. *Origin of the Nations*. San Diego, CA: Master Book Publishers, 1984.

Pink, A. W. *The Attributes of Go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5.

Poole, Matthew. *Matthew Poole's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4.

Pritchard, James A.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8.

Reid, John. *The Chief Meeting of the Church*. Waynesboro, GA: Christian Missions Press, 1978.

The Revell Bible Dictionary. Ed. by Lawrence O. Richard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90.

Ridout, Samuel. *How to Study the Bible*. New York: Loizeaux Brothers, 1947.

Ryrie, Charles C., *The Grace of God*. Chicago: Moody Press, 1975.

Ryrie, Charles C., ed. *The Ryrie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Chicago: Moody Press, 1985.

Sanders, J. Oswald. *On to Maturity*. Chicago: Moody Press, 1969.

Schaeffer, Francis A.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0.

Schultz, Samuel J. *The Old Testament Speaks*.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60.

Scofield, C. I., E. Schuyler English, et al., eds.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9.

Scott, Walter. *Handbook to the Bible. Old Testament*. Reprint. Charlotte, NC: Books for Christians, 1977.

Scroggie, W. Graham. *Know Your Bible. A Brief Introduction to the Scriptures. Vol.1, The Old Testament*. London: Pickering & Inglis Ltd., n.d.

The Serious Christian. Series I. Reprints in 22 vols. Charlotte, NC: Books for Christians, n.d.

The Serious Christian. Serie 2. Reprints in 13 vols. to date. Charlotte, NC: Books for Christians, n.d.

Sider, Ronald J.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8.

Sparks, T. Austin. *What Is Man?* Indianapolis: Pratt Printing Co., n.d.

Spurgeon, C. H. *Morning and Evening*.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Spurgeon, C. H. *Spurgeon's Devotional Bib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Spurgeon, C. H. *Spurgeon's Sermons*. Vol.1.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4.

Stevenson, Herbert F. *Three Prophetic Voices*.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Company, 1971.

Stoner, Peter W. *Science Speaks*. Chicago: Moody Press, n.d.

Tan, Paul Lee. *The Interpretation of Prophecy*. Winona Lake, IN: BMH Books, Inc., 1974.

Tenney, Merrill C., gen. ed. and Steven Barabas, assoc. ed.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75.

Thiele, Edwin R.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1st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1.

Thomson, W. M. *The Land and the Book; or, Biblical Illustrations Drawn from the Manners and Customs, The Scenes and Scenery of the Holy Land*. London: T. Nelson and Sons, Paternoster Row, 1884.

Unger, M. F.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1.

Unger, M. F. *Unger's Bible Dictionary*. Chicago: Moody Press, 1965.

Unger, M. F. *Unger's Bible Handbook*. Chicago: Moody Press, 1966.

Vine, W. E. *First Corinthians*. London: Oliphants, Ltd., 1951.

Walvoord, John F. and Roy B. Zuck, eds.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Old Testament*.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Weston, Keith. *Living in the Light*. Bromley, Kent, England: STL Books, 1983.

Westwood, Tom. *Meditations on Elijah and Elisha*. Glendale, CA: The Bible Treasury Hour, Inc., n.d.

Williams, George.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6th ed.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71.

Wilson, Robert Dick. *A Scientific Investigation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The Sunday School Times Company, 1926.

Wood, Leon. *A Survey of Israel's Histor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Yates, Kyle M. *Preaching from the Prophets*. Nashville: Broadman Press, 1942.

Young, Edward J. *Thy Word Is Truth*. Repri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7, 1970.

기사 및 정기 간행물

Brock, Paul. "Your Emotions Can Make You Ill." *Reader's Digest*, Sept. 1974.

Choice Gleanings Calendar. Grand Rapids: Gospel Folio Press, n.d.

Coder, S. Maxwell. "That Bow and Arrow War." *Moody Monthly*, April 1974.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London: C. S. S. M.

Houghton, Will. "By Life or by Death." Copyright by Hope Publishing Co.

Our Daily Bread. Grand Rapids, Radio Bible Class.

Reuben, David R. "Why Wives Cheat on their Husbands", *Reader's Digest*, August 1973.

Sims, Bennett J. "Sex and Homosexuality." *Christianity Today*, February 24, 1978, p.29.

Toward the Mark. Weston-super-Mare, England.

Westwood, Tom. *Meditations on David and Joseph*. Denver: Wilson Foundation, n.d.

비간행물

Gibson, O. J. Unpublished notes, Discipleship Intern Training Program. San Leandro, CA.

Woodring, H. C. Unpublished notes, Emmaus Bible School, Oak Park, IL.

시, 송가 및 음악

Barnes, Billy. "I Stayed Too Long at the Fair." Hollywood: Tylerson Music, 1957. Copyright 1957, Tylerson Music Co.

The Children of the Night.

Duffield, Samuel Willoughby. *English Hymns: Their Authors and History.* New York: Funk & Wagnalls Company, 1886.

Eliot, T.S. "East Coker", *Four Quartet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Hymns. Chicago: InterVarsity Press, 1947.

Hymns of Grace and Truth. Neptune: NJ: Loizeaux Bros., n.d.

Hymns of Truth and Praise. Fort Dodge, IA: Gospel Perpetuating Publ., 1971.

Lowell, James R. "The Present Crisis", *Complete Poetical Works.* Boston: Houghton Mifflin, 1897.

Selected Poems of Edwin Arlington Robinson.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1965.

Tozer, A. W. *The Christian Book of Mystical Verse.* Harrisburg, PA: Christian Publications, 1963.

부록

1.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약 4백년간 인간을 통한 의사소통을 중단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침묵케 되었다.

자연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성품에 관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늘 행동하셨듯이 행동하셔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이 심히 죄악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이러한 이의 제기는 늘 불합리한데,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며, 은혜를 떠나서는 그분은 말라기 시대 이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대와도 교제를 갖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침묵과 외관상의 비활동의 원인이라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이 이론 중 어느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주권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분의 이미 결정된, 언약적인 사랑(히브리어로 ‘헤세드’)이 이미 그분의 길을 정해놓았다. 이 오랜 침묵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분은 이제까지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오셨으나, 이제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

력한 말씀으로 말씀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길고도 분명한 침묵은 그 기념비적인 계시를 더욱 부각시킬 참이었다.

하나님의 방법(길)은 확실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 그러나 이 우주의 건축자는 그 역사에 있어, 그리고 유한하고 쉬 변하는 인류에 대한 섭리에 있어 질서와 균형이 없지 않으시다. 때때로 그 질서는 인식될 수 있다.

구약에서 밝혀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역사하신 자취를 간략히 더듬어보는 것은 대단히 교훈적인 일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기사들로부터 일관된 행동유형이 나타난다. 그러한 과거의 일관성은 소위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 빛을 비춰준다.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구원을 제공하기 전에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의도하거나 허락하셨다. 둘째로, 그분은 언제나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신실한 종’을 일으키사 백성들을 위해 그분 앞에 중재를 하고(겔 22:30),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되게 하셨다.

노아 홍수 이전 사회의 끔찍한 상태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창 6:6). 그러한 어둡고 침울한 장면과 대조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즉, 여기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자만과 우상숭배에 빠진 인류에게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되었다. 또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해낼 때 요셉에게서 다시 되풀이되었다. 모세는 외관상 불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적시에 나타난 또 다른 구원자였다. 동일한 주제가 사사기 전반에 흐르며,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상의 모든 경우에,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경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노력이 좌절되어야 했다. 신구약 중간기의 기록된 역사는 그와 유사한 경험을 말해준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신실하고 유일하게 완전한 종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 보내시기 전에 자기 백성으로 그 자원을 다 소모하고 또 다른 절박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듯하다.

중간기의 기간

만일 말라기서가 BC 397년에 완성되었다면, 그렇다면 현재 고려중인 중간기는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세레 요한의 출생을 천사가 알릴 때까지 계속된다(눅 1:11~17). 이 400년의 공백기 동안 아무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아무 영감받은 기자도 없었다.

역사적으로는 다음 여섯 시대를 살펴볼 수 있다:

바사 시대(BC 5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중간기와는 BC 397~336년 동안만 겹쳐진다);

헬라 시대(BC 336~323);

애굽시대(BC 323~198);

수리아 시대(BC 198~165);

마카비 시대(BC 165~63);

로마 시대(BC 63~4).

본 부록은 이 여섯 시대를 따라 연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각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바사 시대(BC 397~336)

역사적인 상황

앞서 언급했듯이 바사는 BC 536년까지 중동을 지배했다. 하나님은 바사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셨다(단 5:30,31).

대제사장이라는 정치적으로 힘있는 직분을 둘러싼 내부적인 경쟁으로 바사 총독에 의해 예루살렘이 부분적으로 파괴될 때까지 바사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잔존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유대 백성은 이 기간 동안 혼란을 겪지 않고 보존되었을 것이다.

종교적인 상황

바벨론 포로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에게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성경, 특히 모세 율법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지닌 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들은 또한 유일신론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다. 이 두 가지 영향이 신구약 중간기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회당’이 지역적인 예배처소로 출현한 것은 이 기간에 일어난 일로 소급된다. ‘서기관’이 회당 집회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까지 회당은 잘 조직되었으며,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신약 시대의 복음전파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사건은 바사 시대 말기에 그 기원을 둔다. 즉, 그 때 사마리아에 성전이 세워져 유대교와 맞서는 예배 형식을 정착시켰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사회적 종교적 분리를 조장했다.

헬라 시대(BC 336~323)

역사적인 상황

여러 면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짧은 기간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바사와 바벨론과 팔레스타인과 수리아와 애굽과 그리고 서인도를 정복했다. 비록 13년간 헬라를 통치하고 33세의 나이에 죽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 후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종교적인 상황

알렉산더의 소원은 언어와 풍습과 문명으로 연합된 세계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의 영향력 아래 세계는 헬라어를 말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헬라문화화(Hellenization)로 불리는 이러한 과정에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 헬라 문화와 종교를 이식시키는 일이 포함되었다. 헬레니즘은 신약시대에도 로마인에 의해 지속되고 또 권장될 정도로 크게 인기가 있었다.

유대인과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헬레니즘의 영향 사이에서 야기된 갈등은 길고도 치열했다. 비록 헬라어가 BC 270년까지 널리 확산되어 헬라어역 구약성경(70인역)이 나오기에 이르렀으나,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교의 다신주의를 굳세게 거부했다.

애굽 시대(BC 323~198)

역사적인 상황

BC 323년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헬라 제국은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카산더, 셀레누스 등의 장군들의 지도 아래 네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이들이 “큰 뿔”의 자리를 대신한 “네 나라”였다(단

8:21,22).

프톨레미 왕조의 초대 왕인 프톨레미 소터는 애굽을 접수하고 곧 인근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다뤘으나 통치 말기와 그의 뒤를 이은 프톨레미 필라델푸스의 통치 때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70인역 성경이 나온 것은 이 기간의 일이었다.

애굽과 수리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던 프톨레미 왕조 말기까지 유대인들은 번성을 누렸다. BC 198년 파니온 전투에서 수리아가 애굽을 물리치자 유대는 수리아에 복속되었다.

종교적인 상황

프톨레미 왕조가 추구한, 유대교와 헬레니즘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한 관용정책은 유대인의 신앙에 대단히 위험스런 정책이었다. 헬라의 영향력이 점차 침투해 들어가고 헬라의 생활방식에서의 무의식중에 동화되어가는 변화가 일어났다.

미(美)와 모양과 움직임을 중시하는 헬레니즘의 관점은 유대인들로 미적인 매력이 없는 유대 종교의식을 소홀히하게 했다. 즉, 예배가 영향을 받아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면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헬레니즘이 유대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였다.

두 종교 분파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친(親)수리아파인 헬레니즘파였고, 하나는 정통 유대인, 특히 하시딤 혹은 “경건한 자들”(바리새인의 선조)이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세력 다툼이 정치 문화 종교 영역에서의 유대인 사이의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공격을 초래한 원인도 바로 이 갈등이었다.

수리아 시대(BC 198~165)

역사적인 상황

안티오쿠스 대제와 그의 후계자인 셀루쿠스 필로파터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학대를 받는 중에도 그들의 대제사장의 지도 아래 지역적인 통치를 받도록 허락을 받았다. 헬레니즘파가 셀루쿠스의 후계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 편인 야손을, 정통 유대파 편인 오니아스 3세 대신 대제사장 자리에 앉힐 때까지는 모든 상황이 평온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 정치적인 갈등이 야기되었고, 끝내는 분개한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BC 168년 안티오쿠스는 유대교 신앙의 모든 두드러진 특징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제사를 금하고, 할례의식을 폐하고, 안식일과 절기 준수를 철회했다. 성경이 폐기되거나 소각되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야 했다. 그가 취한 마지막 신성모독 행동이자 그의 과멸을 불러온 행동은 단을 쌓고 제우스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성소를 더럽힌 일이었다. 뒤이어 일어난 핍박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아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분은 절박한 상황을 만들거나 허락한 다음 특별한, 신실한 종을 부르신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스스로 구원하고자 시도하며 거의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전보다 더 악한 상황에 빠질 뿐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참이었다. 하나님은 다만 참 구원자의 출현을 위한 무대를 예비하고 계셨다.

종교적인 상황

이 기간의 역사적인 상황진전으로 알 수 있듯이 유대 종교는 헬레니즘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과 후에 바리새인으로 불리운 정통파와, 대제사장 직위와 다소 연결된 보다 실용적인 유대 분파라 할 수 있는 파의 기초가 이 때 형성되었다. 후자의 바탕을 이룬 사고방식이 후에 사두개인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마카비 시대(BC 165~63)

역사적인 상황

하스몬가(家)의 맛디아라는 한 연로한 제사장이 예루살렘 북서부 모대인 마을에서 다섯 아들과 살고 있었다. 한 수리아 관리가 모대인에서 이교 제사를 강요하자 맛디아가 이에 반발하여 이교 제사를 드린 한 변절한 유대인과 그 수리아 관리를 살해하고 가족과 함께 산으로 도피했다. 수천 명의 신실한 유대인이 그와 함께 했으며, 역사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거룩한 투기를 나타낸 극히 고결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맛디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중 셋이 부친을 이어 혁명을 수행했는데, 마카비라는 성(姓)을 가진 유다와(BC 166~160) 요나단과(BC 160~142) 시몬(BC 143~134)이 그들이다. 이들은 큰 성공을 거두어 BC 165년 12월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하누카(성전봉헌) 절기로 기념되고 있다.

수리아군이 마카비 형제들을 물리치려고 유다 변방에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시몬의 지도 아래 유대인은 독립을 얻어냈다(BC 142). 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의 통치 아래 약 70년간의 독립을 누렸는데, 그 중 유명한 지도자로

는 요한 힐카누스(BC 134~104)와 알렉산더 아니우스(BC 102~76)가 있었다.

종교적인 상황

이 기간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사태 발전은 유다의 왕권과 대제사장권에 관한 팽팽한 견해차로 생겨났다. 수백 년 동안 대제사장 직위가 매우 정치적인 색채를 띠어왔다. 아론 계열이 아닌 정치적인 힘에 더 강조점이 주어졌다. 요한 힐카누스는 이스라엘의 총독겸 대제사장이 되자 트랜스요르단(요르단의 옛 이름-역주)과 이두메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다. 그는 권력과 인기로 인해 왕으로 자처했다. 이것은 이 즈음에 바리새인으로 불리운 정통 유대인의 반발을 샀다. 그들은 다윗의 혈통을 잇지 않은 자는 왕으로 인정치 않았으며, 하스모니아 왕조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자들이 아니었다.

바리새인을 반대하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두둔한 자들을 사두개인이라 불렀다. 이 이름이 처음 나타난 때는 스스로 사두개인이 된 요한 힐카누스 통치기간이었다.

로마 시대(BC 63~4)

역사적인 상황

유대의 독립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수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침입함으로써 마감되었다. 아리스토틀루스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자처하고 폼페이를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분개한 로마장군 폼페이는 무력으로 그 성을 취하고 유다의 지경을 감소시켰다.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는 한 동안 효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기대가 사

라진 듯했다.

BC 47년 율리우스 케사르(가이사)에 의해 안티파터라는 이두 메인이 유대 집정관에 임명되었다.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이 마침내 BC 40년경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이 헤롯 대왕은 비록 예루살렘에 새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했지만 그 자신은 열렬한 헬레니즘 신봉자였으며 하스모니아 왕기를 증오했다. 그는 하스모니아 왕가의 모든 후손을 죽이되 요한 힐카누스의 손녀인 자기 아내 마리안느마저 죽였다. 그리고 마리안느가 낳은 그의 두 아들, 아리스토틀루스와 알렉산더도 죽였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왕위에 있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종교적인 상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출현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다. 다른 세 중요한 분파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주요 그룹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바리새인’은 요한 힐카누스 통치 때에 그렇게 불리웠다. 그 이름은 “분리주의자”를 의미한다. 그들은 서기관을 크게 의지했으며 여호와의 율법과 신앙에 충실했다. 그들은 성경을 엄격히 고수할 것을 강조한 나머지 기록된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를 추구한 “구전 율법” 혹은 미쉬나(Mishnah)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구전 율법”은 전반적으로 성경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는 세세한 규정들로 가득 찼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의존으로 시작한 것이 그 말씀의 정신을 부인

하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렸다.

(2) ‘사두개인’은 ‘사독 족속’(Zadokites), 혹은 “의로운”이란 뜻의 ‘차딕’(tsaddik)이란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듯하다.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데 비해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관련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지위의 사회적, 정치적, 지상적 측면에 더 관심을 가진 듯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회적인 관심이 깊은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매력이 있었다.

바리새인보다 수적으로 훨씬 규모가 적은 사두개인은 주로 유대 나라의 사회적인 지배 계층을 이루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 가문에 속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나라의 정치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룩의 필요성과 그들의 국가의 운명 사이에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종교는 종교이고, 정치는 정치였다. 따라서 그들은 바리새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고, 바리새인은 구태의연하고 불합리하고 광적이라고 결론지었다.

(3) ‘헤롯당’은 로마 시대에 나타났다(마 22:61). 이들은 헤롯 정부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을 둔 정치적인 분파였다. 이들은 아마도 로마정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유대인의 반란이 초래할 수 있는 완전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집단으로 보인다. 이들은 헬레니즘을 강하게 선호했으며, 바리새인과 늘 분리를 강조하는 그들의 사상을 반대했다.

(4) ‘열심당’(혹은 “열심있는”이란 뜻의 아람어 ‘카나야’에서 나온 “카나니언”-NKJV 신약성경의 “가나안족”) 역시 정치적인 분파였으나 헤롯당과 정면으로 대치되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바리새인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릴 때까지 순순히 복종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들의 견해에는 하나님은 오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셨다. 유대인은 독립을 위해 기꺼이 싸워야 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문자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에 더하여 열심당은 무서운 민족주의 정신으로 무장했다. 이 무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중재보다는 일종의 인위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을 강조했다.

(5) ‘에센파’ 역시 로마 시대의 산물이었다. 이들은 신약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사해 사본이 발견된 후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 분파에 속한 무리는 정치적이 아니라 종교적이었다. 이들은 일상적인 인간 사회를 떠나 수도원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은 일종의 은둔주의자요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었다.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성별에 몰입한 나머지 에센파는 이스라엘의 전도사명에 대한 의식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들은 세상에 대해 문을 닫고, 세상의 관심사에 대해 눈을 감고, 세상으로 아무 소망 없이 죽도록 내버려두는데 만족했다.

결론

무대는 예비되었다. 격변하는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신조를 다뤄보려는 인간의 무모한 시도는 성과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속박보다 훨씬 더한 종교적인 속박에 처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분파와 운동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지막 진지한 노력의 증거였다. 모두 실패한 듯했다. 역사의 무대는

어두웠다. 실로 상황은 절박했다.

이 때 하나님은 수백 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곧 여호와와 신실한 종의 출현을 선언하셨으며, 그렇게 해서 친구와 중간기는 막을 내렸다.

2. 성경의 인물과 장소

본 부록은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두드러진 인물과 장소를 해설한 것이다. 그 이름이 열거된 순서는 ‘가나다’ 순서를 따른다. 동일한 이름을 지닌 인물과 장소는 처음 나오는 이름에 별도의 목록을 붙여 다루었다. 다른 철자법은 { }안에 표기했고, 이름의 뜻은 ()안에 표기했다. 각 목록 아래 그 이름을 지닌 다양한 인물 내지 장소는 [1]; [2] 식으로 열거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는 여러 성경구절과 함께 그 목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모든 구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만일 본 목록에 인용되지 않은 구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구절에 나오는 인물 내지 장소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

블레셋 족(Palite), 헤롯 족(Harodite), 길르앗 족(Gileadite)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이름들은 어떤 개인의 선조를 가리킨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도시나 지역이나 족속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뜻으로 사용된 것 인지는 종종 추측에 의존해야 한다.

이 이름들의 의미는 정확무오하지가 않다. 그것은 다만 그렇게 추정된다는 뜻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과 장소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책에 나오는 인물이나 장소가 다른 책에 나오는 이름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다. 고대에는 종종 사람이 둘 이상의 이름으로 불리웠다. 많은 장소가 이스라엘 이전 시대에 속하며, 그 역사가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어떤 장소들은 시대에 따라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다(예, 아라랏과 아르메니아). 그런 장소들은 그곳과 관련된 다른 이름들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성경에 나오는 지명 아래 모아놓았다. 대부분의 성경 지명에는 현대 지명을 달아놓았다.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필사자들이 종종 실수를 범했다. 에녹은 확실히 하녹으로 불리우지 않았으며, 임나 역시 짐나로 불리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원문의 표기인가? 소수의 경우에만 단서가 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단축형의 이름을 발견한다. 이것은 아마도 고대 독자에게는 별반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정체를 규명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종종 히브리어 이름은 인물과 장소 모두를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인의 계보는 많은 경우에 간추려졌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그 선조와 구분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다. 또한 간추린 목록을 완전한 목록에 맞춰보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간추린 목록에 나오는 이름들은 긴 목록과 별개의 이름일 수도 있고 긴 목록에 포함된 이름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같은 이름이 두 목록에 포함된 경우도 볼 수 있고, 각기 다른 두 사람이 두 목록에 포함된 경우도 볼 수 있다.

가끔 영어 역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여러 유사한 히브리어 이름들을 음역(音譯)한다. 그런 경우에 본 부록은 개개의 히브리어 이름에 해당하는 별도의 목록을 기록해두었다(예, 요아스).



가나(Cana, “갈대”).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마을. 나사렛 북동쪽 16km에 위치(요 2:1,11; 4:46).

가나안(Canaan, “낮은”). 함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창 10:6~19; 대상 1:8,13). 가나안 거민을 가리키는 듯하다.

가나안(Canaan, “자주색”).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땅인 팔레스타인의 원명(창 11:31; 출 6:4).

가다라(Gadara, “벽”). 갈릴리 해 남쪽 11km 요단 동편에 위치한 마을(막 5:1; 눅 8:26). 데가볼리의 성읍 중 하나였다. 거라사 참조.

가데스(Kadesh). 가데스 바네아 참조. 트리바 [2] 참조.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 “거룩한”). 팔레스타인 남부 개척지의 광야. 남쪽의 바란 광야와 시나이 반도 북쪽의 신평야 사이의 경계에 위치했다(민 32:8; 34:40). 단순히 가데스라고도 불리웠다(민 13:26; 20:1). 창세기 14장 7절에서는 그 지역이 엔 미스밧으로 불리웠다.

가드(Gath, “강한”). [1] 현대의 압과에서 남쪽으로 72km, 지중해에서 4km 떨어진 블레셋의 다섯 주요 성읍 중 가장 남쪽 성읍. 삼손이 공과를 올린 곳(수 11:22; 삿 16:1~3; 왕하 18:8; 렘 25:20). [2] 실로 근처 작은 평지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 마을(대상 7:28).

가말리엘(Gamaliel, “하나님의 보상 혹은 상급”). [1] 므낫세 지파의 족장(민 1:10; 2:20). [2] 위대한 유대인 율법 교사. 동료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사도들을 방면하게 했다(행 5:33~40; 22:3).

가버나움(Capernaum, “나훔의 마을”). 갈릴리 해 북서쪽 해안 마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중심지(마 4:13; 눅 4:31).

가이바(Caiaphas, “낙심”).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제사장(마 26:3, 57~68; 요 11:49).

가이사(Caesar, 시저). 로마정부의 통치권을 장악한, 줄리(Julii)라는 상류층 가문의 일파의 이름. 후에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가 되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디베료, 가이사 클라우디오 참조.

가이사 클라우디오(Claudius Caesar, “절음받이 통치자”).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낸 로마 황제(행 18:2).

가이사라(Caesarea, “가이사의 도성”). 로마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한 팔레스타인의 해안 도시(행 8:40). 헤롯 대왕이 건설. 갈멜산 기슭에서 37km 아래에 위치. 가이사라 마리티마로도 불리웠다.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a Philippi, “가이사의 빌립보 도성”). 헐몬산 아래 위치한 마을. 예수님의 공사역의 북방 한계(마 16:13~20).

가이오(Gaius, “주(主)”). [1] 요한의 세 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요삼 1절). [2] 메게도나의 주민이자 바울의 동료(행 19:29). [3]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한 더베 사람(행 20:4). [4] 로마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의 식주인(롬 16:23). [5]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준 회심자(고전 1:14). 어떤 이들은 [4]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가인(Cain, “얻은; 창”). 동생 아벨을 죽인 아담의 장자(창 4:1~25).

갈그미스(Carchemish, “그모스의 요새”). 유브라테 강 서쪽 성읍. 히트 족속 동편 수도(대하 35:20; 사 10:9; 렘 46:2).

갈대아(Chaldea, “귀신”). 바벨론 제국의 남부 지역(렘 50:10; 겔 11:24).

갈리오(Gallio, 뜻은 알 수 없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문을 받은 로마의 식민 지방인 아가야의 총독(행 18:12~17).

갈릴리(Galilee, “원(圓)”).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로마 지방 중 하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지역(눅 3:1; 23:6).

갈릴리 바다(Galilee, Sea of). 요단강이 흘러 들어가는 북부 팔레스타인의 큰 호수.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이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했다(요 6:1). 기네렛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바다 등으로도 알려졌다. 기네렛 [1]과 게네사렛 [2] 참조.

갈멜(Carmel, “과수원”). [1] 중앙 팔레스타인을 약 24km 관통하여 지중해까지 뻗은 산줄기(렘 46:18). [2] 헤브론 남남동쪽 약 14km에 위치한 유다 산지의 마을(수 15:55; 삼상 25:5). 오늘날의 켈멜(Kermel).

갈보리(Calvary). 골고다 참조.

감람산(Mount of Olives).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의해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봉우리(삼하 15:30; 막 11:1; 행 1:12). 열왕기하 23장 13절에서는 멸망산으로 불리운다.

갓(Gad, “제비뽑기; 행운”). 요단 동편의 갓 지파가 정착한 지역(삼상 13:7; 수 13:24).

갓(Gad, “행운”). [1] 야곱의 일곱째 아들이자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선조(창 30:11; 49:19). [2] 종종 조언을 한 다윗의 선견자(삼상 22:5; 대상 21:9~19).

거라사(Gergesa, “순례자”).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 내지 지역. 그 위치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대의 커르사(Kersa)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다(마 8:28).

게네사렛(Gennesaret, “왕의 동산”). [1] 갈릴리 해 북단 해안 지역(마 14:34). [2] 갈릴리 해의 또 다른 이름(눅 5:1).

게데스(Kedesh, “거룩한”). [1] 여호수아에게 패퇴한 북부경계 근처의 가나안족 성읍(수 12:22; 19:37). [2] 납달리의 레위인 도피성. 때때로 게데스 납달리로 불리웠다(수 20:7; 사 4:6,9). 훌레

(Huleh) 호수 북서쪽으로 7.2km 떨어진 오늘날의 카데스인 듯하다. [3] 잇사갈의 레위인 성읍(대상 6:72). [4] 하솔과 잇난 근처의 유다 성읍(수 15:23).

게르손(Gershon{Gershom}, “추방”). 중요한 제사장이자 레위의 장자(창 46:11; 출 6:16; 대상 6:1). 게르솜으로도 불리웠다(대상 6:16,17,20; 15:7).

게바(Cephas). 베드로 참조.

게하시(Gehazi, “환상의 골짜기; 감소시키는 자”). 엘리사의 부정직한 종(왕하 4:12~37; 5:20~27; 8:4).

겟세마네(Gethsemane, “기름 짜는 기계”). 감람산 아래 기드론 시내 너머의 예루살렘 동편 동산.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팔리신 곳(마 26:36~56).

고넬료(Cornelius, “빨을 가진”).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백부장(행 10:1~31).

고라(Korah, “담대함”). [1] 아홀리바마를 통한 에서의 아들(창 36:5,14,18; 대상 1:35). [2] 엘리야스의 아들(창 36:16). [3] 헤브론의 아들(대상 2:43). [4] 그핫의 손자이자 일부 음악가들의 선조(대상 6:22; 시 42; 45~46 표제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주도한 자 중 하나였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민 16:1~35).

고라신(Chorazin,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갈릴리 해변 성읍(마 11:21; 눅 10:13).

고레(Kore, “선언하는 자; 메추라기”). [1] 히스기야 시대에 자원 예물을 책임 맡은 레위인(대하 31:14). [2] 그 후손이 성막의 문지기인 아삽의 아들(대상 9:19; 26:1,19).

고레스(Cyrus). 바사 제국의 설립자. 유대인을 고토로 돌려보냈다(스 1:1~4; 7; 사 44:28; 45:1~4; 단 6:28).

고린도(Corinth, “장식”).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펠로폰네소스와 그리스 본토 사이의 지협(地峽)에 위치한 그리스 도시(행 18:1; 고전 1:2).

고멜(Gomer). [1] 야벳의 장자(창 10:2,3; 대상 1:5,6). 일반 역사의 키메리안족(Cimmerians)을 포함하거나 그들과 동일시되는 북방에 거하는 백성인 듯하다. [2] 호세아의 부도덕한 아내(호 1:3; 3:1~4).

고모라(Gomorrhah, “가라앉음”). 소돔과 함께 멸망한 평지의 다섯 성읍 중 하나(창 18:20; 19:24,28). 많은 학자들은 사해 남동부 끝에 함몰되어 있다고 믿는다.

고센(Goshen, “가까이 끝다”). [1]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기 전에 할당받은 나일강 삼각지의 목축 지역(창 46:28). [2] 유다 산지에 있는 마을(수 15:51). 헤브론 남서쪽 21km 떨어진 현재의 다하리에(*Dahariyeh*)인 듯하다. [3] 고센 마을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 듯한 유다 지역(수 10:41; 11:16).

곡(Gog, “높은; 산”). [1] 르우벤의 후손(대상 5:4). [2] 로스, 메섹, 두발의 왕(겔 38:2; 39:1,11). 계시록 20장 8절에 의하면, 곡은 마곡과 같은 나라가 된 듯한데, 이는 그 이름이 상징적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골고다(Glgotha{Calvary}, “해골”). 고대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의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마 27:33; 요 19:17).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옛 성”으로 불리우는 성벽 안쪽인 듯하다.

골란(Golan, “통과”). 레위인에게 도피성으로 할당된 요단 동편 바산의 성읍(신 4:43; 수 21:27). 갈릴리 해 동쪽으로 27km 떨어진 현재의 사헴 엘야울란(*Sahem elJaulan*)으로 추정.

골로새(Colosse, “징벌”). 소아시아의 브리기아 지방의 성읍(골 1:2).

골리앗(Goliath, “추방자 혹은 점치는 자”). [1] 다윗에게 죽임당한 블레셋 거인(삼상 17:4~54). [2] [1]의 아들인 듯한 또 다른 거인(삼하 21:19).

골짜기 문(Valley Gate). 힌놈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예루살렘 남서쪽 벽의 문(느 2:13).

광야(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방황하던 지역(신 1:1; 수 5:6). 바란광야, 신평야 등 여러 곳이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구브로(Cyprus, “공정함”). 수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북동부 지중해의 섬(행 13:4; 15:39).

국고성(Supply Cities, Treasure House). 고대 세계의 왕들이 보물과 십일조를 보관해둔 지정된 성읍(출 1:11; 스 5:17).

군(Chun, “건설”). 브로다 참조.

그나스(Kenaz{Kenez}, “옆” 혹은 “사냥”). [1] 에돔의 족장(창 36:42; 대상 1:53). [2] 엘리바스의 넷째 아들(창 36:11,15; 대상 1:36). [1]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3] 사사 옷니엘의 아버지(수 15:17; 사 1:13). [4] 갈렙의 손자(대상 4:15).

그레데(Crete, “육신적인”). 그리스 남동쪽의 큰 섬(민 1:5).

그리스도(Christ). 예수 그리스도 참조.

그리스보(Crispus, “고불고불하게 말린”). 그리스도를 믿은 고린도의 유대인 회당장(행 18:7,8; 고전 1:14).

그릿(Cherith, “목구멍”). 새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먹인 요단 동편의 작은 시내(왕상 17:3~5).

그무엘(Kemuel, “하나님이 서 있다” 혹은 “하나님의 언덕”). [1] 나훔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카(창 22:21). [2] 에브라임의 족장(민 34:24). [3] 레위인(대상 27:17).

그우엘(Geuel, “하나님의 구원”).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

기 위해 파송 받은 것 지파의 정탐꾼(민 13:15).

그일라(Keilah, “요새”). 유다 저지대의 마을(삼상 23:1,13; 수 15:44).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키르벳길라에 위치.

클라우디아(Claudia, “절름발이”).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딤후 4:21).

클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 “불완전한 해체”). 예루살렘의 로마 관원이자 군장(행 23:26).

클레멘트(Clement, “부드러운”).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빌 4:3).

글로바(Cleopas, “이름난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난 제자 중 하나(눅 24:18).

글로에(Chloe, “부드러운 싹”). 고린도의 문제점을 알던 고린도 혹은 에베소의 여인(고전 1:11).

기네렛(Chinnereth{Chinneroth}, “하프”). [1] 갈릴리 해의 또 다른 이름(민 34:11; 수 12:3). [2] 갈릴리 해 북부 해안 도시(신 3:17). [3] 기네렛 성읍 주변 지역(왕상 15:20).

기돈(Chidon, “투창”). 옷사가 언약궤를 만지다 죽임을 당한 곳(대상 13:9).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는 나곤으로 불리운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기드론(Kidron, “모호한; 검게 혹은 슬프게 하다”). 오벨산과 감람산 사이의 예루살렘의 골짜기(삼하 15:23; 요 18:1). 오늘날 와디 싯티 말얀(Wadi *Sitti Maryan*)으로 불리운다.

기드온(Gideon, “넘어뜨리는 자, 즉 큰 전사”). 미디안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삿 6~8장).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기랴여아림(Kirjath Jearim, “숲의 성”). 본래 유다 북서쪽 경계에 위치한 기브온족의 성읍 중 하나(수 9:17; 삿 18:12). 바알라(수

15:9), 기랏아림(스 2:25), 기랏바알(수 18:12), 바알레유다(삼하 6:2) 등과 동일시된다. 오늘날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13.4km에 위치한 데일 엘아살(*Deir elAzhar*)로 간주된다.

기브아(Gibeah, “언덕”). [1] 헤브론 북서쪽 16km에 위치한 유다 마을(수 15:57). [2] 예루살렘과 라마 중간의 마을. 사울 왕의 고향이자 왕도(삼상 10:26; 15:34). [3] 에브라임 지경의 마을 내지산(수 24:33). 답나 [1] 근처로 추정. [4] 아비나답의 집에 위치한 기랏여아림의 언덕(삼하 6:3,4).

기브온(Gibeon, “언덕 높이”). 베냐민 지파에 할당된 히위족의 주요 성읍. 예루살렘 북북서 9km에 위치(수 11:19; 삼하 20:1~9). 그 현대 지명은 엘-집(*El-Jib*).

기손(Kishon{Kison}, “굽음”). 다볼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에스트렐론(이스라엘) 골짜기에 들어가는 중부 팔레스타인의 강(삿 4:7,13; 왕상 18:40; 시 83:9). 요단강 다음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강이다.

기스(Kish{Cis}, “활; 능력”). [1] 기브온의 아들(대상 8:30; 9:36). [2] 다윗 시대의 레위인(대상 23:21; 24:29). [3]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 정화를 도운 레위인의 후손(대하 29:12). [4] 모르드개의 증조부(에 2:5). [5] 사울 왕의 아버지(삼상 9:1,3; 14:51; 행 13:21).

기혼(Gihon, “시내; 터져나오다”). [1] 에덴의 네 강의 하나(창 2:13). [2] 성전 남쪽의 예루살렘 성벽 바깥의 간헐천(왕상 1:38~45; 대하 32:30).

길갈(Gilgal, “굴러감”). [1]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처음 진을 친, 여리고 근처로 추정되는 곳(수 4:19~24). [2]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행을 시작한 벧엘 북동부에서 11km에 위치한 마을(왕하 2:1~4; 4:38). 현재의 질질리아(*Jiljilia*).

길르압(Chileab, “아버지의 억제”). 다윗의 아들(삼하 3:3). 다니

엘로도 불리웠다(대상 3:1).

길리기아(Cilicia, “굴러감”). 소아시아 남동쪽 지방. 바울이 이 지방의 주요 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다(행 21:39).



나곤(Nachon). 기돈 참조.

나다나엘(Nathnael,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르신 갈릴리 사람. 바돌로매와 동일인물로 보인다(요 1:45~49; 21:2; 행 1:13). 바돌로매 참조.

나단(Nathan, “선물”). [1] 선지자이자 다윗의 모사(삼하 7:2~17; 12:1~25). [2] 다윗 왕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삼하 5:14; 대상 3:5; 눅 3:31). [3] 이갈의 아버지(삼하 23:36). [4] 여라므엘의 후손(대상 2:36). [5] 에스라의 동료(스 8:16). [6]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 중 하나(스 10:39). [7]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요엘의 형제(대상 11:38). [8] 솔로몬의 핵심 참모의 아버지(왕상 4:5). [9] 이스라엘의 한 족장(속 12:12).

나답(Nadab, “자유로운”). [1]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불”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첫째 아들(출 6:23; 레 10:1~3). [2] 여라므엘의 후손(대상 2:28,30). [3] 기브온의 형제(대상 8:30). [4] 여로보암 1세의 아들. 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왕상 15:25~31).

나발(Nabal, “어리석은, 악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음식주기를 거절한 부유한 갈렐 사람(삼상 25장).

나봇(Naboth, “짜”). 이세벨이 그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죽인 포도원 소유자(왕상 21:1~18).

나사렛(Nazareth, “성결케 된”). 에스드렐론(이스라엘) 평원 북쪽의 갈릴리 저지대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마 4:13; 막 1:9). 디베

라 서남서쪽 8km, 현재의 텔 훔(*Tell Hum*, 가버나움) 남서쪽 32.3km, 예루살렘 북쪽 141.6km에 위치.

나사로(Lazarus,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의 엘레아살의 단축형). [1]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요 11:1~12:17). [2] 아브라함의 품에 이끌려간 거지(눅 16:19~31).

나손(Mnason, “기억함”).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가이사라에서 함께 동행한 구브로의 회심자(행 21:16).

나아마(Naamah, “기쁨”). [1] 라멕과 실라의 딸(창 4:22). [2] 솔로몬의 아내이자 르호보암의 어머니(왕상 14:21; 대하 12:13).

나아만(Naaman, “기쁨”). [1] 요단에서 목욕하여 문둥병을 치료한 아람 군대장관(왕하 5:1; 눅 4:27). [2] 베냐민의 손자(창 26:38,40). [3] 베냐민의 아들이자 한 족속의 시조(창 46:21).

나오미(Naomi, “희락, 나의 기쁨”). 룻의 시모(룻 1:2~4:17).

나웃(Naioth, “거주”). 선지자 무리가 사무엘 주위에 모인 라마의 한 곳(삼상 19:18~23; 20:1).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라마 참조.

나인(Nain, “아름다움”).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갈릴리의 마을(눅 7:11). 다볼산 남쪽 3.2km와 갈릴리 해 남서쪽 가까운 곳에 위치.

나일(Nile, “질푸른”). 애굽에서 가장 큰 강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성경에는 “그 강”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창 13:1; 출 2:3; 7:21). 길이가 약 6,669.3km이다.

나하스(Nahash, “신탁{神託}” 혹은 “뱀”). [1] 아비가일과 스루야의 아버지(삼하 17:25). [2] 사울에게 패배한 암몬 왕(삼상 11:1, 2; 12:12). [3] 암몬의 또 다른 왕(삼하 10:2; 17:27; 대상 19:1,2). 이르-나하스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나홀(Nahor, “깨끗는 것”). [1] 아브라함의 조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11:22~25; 눅 3:34). [2] 아브라함의 형제(창 11:36,27, 29; 22:20,23; 수 24:2).

나훔(Nahum, “위로자”). 후기 선지자 중 하나. 니느웨에 대해 예언했다(나 1:1). 나움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낙원(Paradise, “기쁨의 땅, 공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고후 12:3)이자 의인의 거처(눅 23:43; 계 2:7)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

납달리(Naphtai, “씨름”). 야곱의 여섯째 아들(창 30:7,8). 그 후손이 열두 지파의 하나가 되었다.

납달리(Naphtali, “싸우다”). 북부 팔레스타인 산지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수 19:32~39; 마 4:13). 동쪽의 요단 상류와 갈릴리 해, 서쪽의 스블론과 아셀의 영토를 경계로 한다.

네벡(Nepheg, “썩, 밭아”). [1] 고라의 형제(출 6:21). [2] 다윗의 아들(삼하 5:15; 대상 3:7; 14:6).

넬(Ner, “빛”). [1] 아브넬의 아버지이자 사울의 사촌(?)(삼상 14:50). [2] 사울의 조부(대상 8:33; 9:39). 이 관계는 분명치 않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을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넬 [1]과 [2]는 동일 인물이다. 아비엘로도 불리운다(삼상 9:1). 넬 [2](아비엘)이 넬 [1]과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노아(Noah, “안식”). 라멕의 아들. 방주를 짓도록 택함받은 족장. 그의 가족만 홍수에서 살아남았다(창 5:28~32; 6:8~22; 7~10).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눅 3:36).

놉(Noph). 멤피스 참조.

놏(Nod, “방랑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도피한 에덴 동쪽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창 4:16). 어떤 이들은 중국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누가(Luke, “빛을 줌”). 전도자이자 의사이자 셋째 복음서 및 사도행전의 기자(골 4:12; 딤후 4:11; 몬 24절).

눈(Nun, “지속, 물고기”). [1] 에브라임의 후손(대상 7:27). [2]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2] 여호수아의 아버지(출 33:11; 왕상 16:34).

느다넬(Nethanel, “하나님이 주시다”). [1]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잇사갈의 족장(민 1:8; 2:5; 7:18,23; 10:15). [2] 이세의 넷째 아들(대상 2:14). [3] 언약궤를 가져올 때 나갈수 중 하나(대상 15:24). [4] 레위인(대상 24:6). [5] 오벧에돔의 아들이자 성막 문지기(대상 26:4). [7] 요시야 시대의 레위인(대하 35:9). [8]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스 10:22). [9]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느 12:21). [10] 정결 예식 때의 레위인 음악가(느 12:36).

느보(Nebo, “예언하다”). [1]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다본 산(신 32:49; 34:1).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봉우리. 요단강 어귀 동쪽 12.9km에 있는 현재의 예벨 엔 네바(*Jebel en Neba*)인 듯하다. 맑은 날에는 이 봉우리에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볼 수 있다. [2] 모압 족속에게 다시 넘어간 르우벤 지파의 성읍(민 32:3,38; 33:47). 느보산 남쪽에 있는 현재의 키르벳 엘 맥카이엣(*Khirbet elMekhayyet*)인 듯하다. [3] 유다의 성읍(스 2:29; 느 7:33). 룯다(*Lydda*) 근처의 현재의 벳-누베(*Beth-Nube*)인 듯하다.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나부(신)가 내 지계석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는 뜻의 바벨론어 ‘나부-쿠두리-우츄르(*Nabur-kudurri-utsur*)’에서 파생).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왕. 예루살렘을 세 번 함락하고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왕하 24:1,10,11; 25:1,8,22; 단 1~4장).

느헤미야(Nehemiah, “여호와는 위로”). [1] 예루살렘 총독. 무너진 성의 재건을 도모했다(느 1:1; 8:9; 12:47). [2]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장(스 2:2; 느 7:7). [3]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 자(느 3:16).

니가노르(Nicanor, “정복자”). 빈민 구제를 위해 선정된 일곱 사람 중 하나(행 6:5).

니고데모(Nicodemus, “무죄한 피”). 그리스도의 장사를 도운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요 3:1~15; 7:50~52; 19:39~42).

니골라(Nicolas, “백성의 정복자”). 빈민 구제를 돕기 위해 선정된 일곱 사람 중 하나(행 6:5).

니스웨(Nineveh, 뜻은 알 수 없다). 앓수르 왕국의 수도(나 1:1; 3:1; 눅 11:32; 습 2:13). 티그리스 강이 삼 상류와 만나는 지점 북쪽의,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했다. 현재 그 폐허는 텔 쿠윽직(*Tell Kuyunjik*)과 텔 네비 유누스(*Tell Nebi Yunus*)로 불리운다.

니므라(Nimrah). 뱃 니므라 참조.

니므롯(Nimrod, “용감한, 강한”). 구스의 아들(창 10:8,9; 대상 1:10). 그의 나라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시날 성읍들 및 앓수르를 포함했다.



다니엘(Daniel,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1]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시대의 선지자. 그 지혜와 믿음으로 느부갓네살과 다리오에게 존귀한 자리를 얻었다(단 1:1~6; 2; 6:1,2). [2] 다윗의 아들 중 하나(대상 3:1). 길르압 참조. [3] 이다말 계보의 레위인(스 8:2; 느 10:6).

다단(Dathan, “쌈”).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려한 르우벤 지파의

두령(민 16; 26:9; 신 11:6).

다대오(Thaddaeus, 암 짐승을 가리키는 아람어에서 파생한 이름). 열두 사도 중 하나(마 10:3; 막 3:18).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동일 인물이다(눅 6:16; 요 14:22; 행 1:13). 레바오(*Lebbaeus*, “마음”)로 불리기도 했다.

다르단(Tartan, 뜻은 알 수 없다). 앓수르의 높은 직위 명. 왕 다음가는 지위였다는 증거가 있다. 성경에는 두 명의 다르단이 언급되었다(왕하 18:17; 사 20:1).

다리오(Darius, “자신을 알리는 자”). [1] 벨사살의 나라를 인수 받은, 고레스를 대신한 왕(sub-king)(단 5:30~6:28). 메대 사람 다리오로도 알려졌다. [2] 바사의 4대 왕(스 4:5; 학 1:1; 속 1:1). 히스타스피스(*Hystaspis*)로도 불리웠다. [3] 바사와 바벨론을 다스린 다리오 2세(*Nothus*, 느 12:22).

다말(Tamar, “종려나무”). [1] 에르의 아내이자 베레스의 어머니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38:6,11,13; 룻 4:12; 마 1:3). [2] 암논이 욱보인 다윗의 딸(삼하 13:1~32). [3] 압살롬의 딸(삼하 14:27).

다메섹(Damascus, “한 부대의 피”). 수리아의 무역 중심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읍으로 가다가 회심했다(창 14:15; 행 9:2).

다베네스(Tahpenes). 솔로몬의 대적으로 솔로몬을 피해 달아난 하닷을 맞아들인 애굽의 왕후이자 바로의 아내(왕상 11:18~20).

다베라(Taberah, “불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 원망한 까닭에 징벌을 받은 시내산 북쪽 3일 길 떨어진 곳(민 11:3; 신 9:22).

다볼(Tabor, “순수”). [1] 이스라엘 골짜기 북부에 위치한 산(삿 4:6,12,14; 시 89:12). 오늘날 예벨 엘-투르(*Jebel el-Tur*)로 불리

우며, 나사렛 남동쪽 8.8km에 있다. [2] 레위인에게 주어진 스블론 지파 마을(대상 6:77). 그 위치는 불분명하다. 여호수아 19장 12절에 나오는, 다볼과 나사렛 사이의 고지에 있는 기슬롯 다볼을 가리킬 수도 있다. [3] 베냐민 지경에 있는 상수리나무(삼상 10:3).

다브엘(Tabel, “하나님은 선하시다”). [1] 이스라엘과 다메섹의 왕들이 유다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의 아버지(사 7:6). [2]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바사 관원(스 4:7).

다비다(Tabitha, “가젤 영양”). 베드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욥바의 그리스도인 여인(행 9:36~42). 도르가는 헬라이어 이름이다.

다소(Tarsus, “날개달린”). 소아시아의 싸이드누스(Cydnus) 강변에 위치한 길리기아의 매우 유명한 성읍. 바울의 출생지(행 9:11).

다시스(Tarshish, “어려운”). [1] 야완의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창 10:4; 대상 1:7). 지브랄타 해협 근처의 스페인 지역에 거주한 백성으로 추정. [2] 바사의 일곱 방백 중 하나(스 1:14). [3] 베냐민의 후손(대상 7:10).

다윗(David, “사랑 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군장이자 왕. 분열된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합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여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케 했다(삼상 16~왕상 2:11).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6).

다윗의 성읍(City of David). [1] 다윗의 군대에게 함락당한 시온이라는 여부스 성. 다윗이 왕도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개칭했다(삼하 5:6~9; 대상 11:5,7). [2] 베들레헴 참조.

단(Dan, “재판관”). 야곱의 다섯째 아들이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선조(창 30:6; 49:16,17).

단(Dan, “재판관”). 팔레스타인 서북부에 위치한 단 지파에 속

한 마을(수 19:47; 삿 20:1).

달마누다(Dalmanutha, “물통”). 갈릴리 서부 해안의 어촌 마을(막 8:10).

달매(Talmi, “담대한, 용맹한”). [1] 갈렙에게 패배한 사람 혹은 무리(민 13:22; 수 15:14; 삿 1:10). [2] 그술 왕이자 다윗의 장인(삼하 3:3; 13:27).

닷드내(Tattenai, “선물”). 스룹바벨 시대의 바사인 사마리아 총독(스 5:3; 6:6,13).

더둘로(Tertullus, “세 번째”). 벨릭스 앞에서 바울에 대한 송사를 능숙하게 대변하도록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사(행 24:1~8).

더디오(Tertius, “세 번째”). 로마서를 받아 적은 서기(롬 16:22). 어떤 이들은 실라였다고 추측한다.

더베(Derbe, “찌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후 피신한 남동부 소아시아의 성읍(행 14:6~20).

데가볼리(Decapolis, “열 성읍”). 에스드랴론 평원과 요단 계곡 상류의 로마 지방을 구성하는 열 성읍 연맹체(마 4:25).

테라(Terah, “전환, 지속”).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11:27~32; 눅 3:34).

데메드리오(Demetrius, “데메터에 속한”). [1] 요한에게 칭찬을 받은 그리스도인(요삼 12절). [2] 에베소에서 바울을 대적한 은장색(행 19:24~41).

데살로니가(Thessalonica, “바다에서의 승리”). 털마익(Thermaic)만 어귀의 마게도냐 해안에 위치한 성읍(행 17:1,11,13; 27:2). 오늘날 살로니카로 알려져 있다.

데오빌로(Theophilus, “하나님께 사랑 받느”). 누가가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낸 알려지지 않은 사람. 아마 로마 관원인 듯하다(눅 1:3; 행 1:1).

도단(Dothan, “두 우물”). 길보아산 근처의 요단 서편과 사마리아 북동편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 여기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창 37:17; 왕하 6:13).

도르가(Dorcus). 다비다 참조.

도마(Thomas, “쌍둥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 하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도마는 매우 회의적이였다(마 10:3; 막 3:18; 요 20:24~29). 그의 아람어 이름은 헬라어로 디두모이다.

도벳(Tophet, “북”). 힌놈에 있는 왕의 정원의 일부였는데, 예루살렘 백성이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곳이 되었다(사 30:33; 렘 19:6,11~14; 왕하 23:10).

도비아(Tobiah, “여호와와는 선하시다”). [1] 율법을 가르치도록 여호사밧에 의해 임명된 레위인(대하 17:8). [2] 그들의 계보를 잃어버린 귀환한 포로들의 선조(스 2:60; 느 7:62). [3] 느헤미야를 대적한 산발랏의 암몬인 종(느 2:10~20). [4]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스 6:10,14).

도피성(Cities of Refuge). 일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곳으로 따로 지정된 레위인의 여섯 성읍: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가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신 4:41~43; 수 20:7~9).

두기고(Tychus, “행운의”). 바울의 제자이자 사자(행 20:4; 엡 6:21; 딤후 4:12).

두라(Dura, “요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바벨론 평지(단 3:1).

두란노(Tyrannus, “독재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그의 학교에서 가르친 헬라인 수사학자 혹은 유대인 랍비(행 19:9).

두로(Tyre, “바위”). 상업활동으로 유명한 뵈니게 중부 해안의 성읍(수 19:29; 삼하 5:11; 렘 25:22). 악코와 시돈 중간에 위치.

두아디라(Thyatira, “노동의 희생”). 버가모와 사르디스 사이의 성읍(행 16:14; 계 2:18~29). 소아시아의 루디아에 위치.

드로비모(Trophimus, “양자”). 그리스도인이 된 후 바울의 여행 동료가 되었다(행 20:4; 21:29; 딤후 4:20).

드로아(Troas, “관통된”). 무시아 해안의 중요한 성읍(행 16:8; 딤후 4:13). 북부 소아시아에 위치했으며, 알렉산드리아로도 불린다.

드루실라(Drusilla, “이슬에 젖은”). 헤롯 아그립바의 딸이자 벨릭스의 아내인 유대 여인. 그와 벨릭스가 바울의 능력있는 메시지를 들었다(행 24:24,25).

드보라(Deborah, “꿀벌”). [1] 리브가의 유모(창 24:59; 35:8). [2] 자기 백성을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건진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자 사사(삿 4:4~14; 5장).

들라야(Delaiah,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여호와는 구원자”). [1] 다윗의 제사장 중 하나(대상 24:18). [2]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훼손하지 말라고 권한 방백(렘 36:12,25).

들릴라(Delilah, “갈망하는; 우아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매수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게 한 여자(삿 16장).

디글랏 빌레셀(Tiglath-Pileser, “나의 신뢰가 아사라의 아들에게 있다”는 뜻의 바벨론어 ‘투쿨티-아필에사라’{*Tukulti-apilEs-harra*}에서 나옴). 이스라엘 왕 베가 시대에 납달리를 침략한 앗수르 왕. 북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납달리 지경에서 사로잡아갔다(왕하 15:29; 16:7,10; 대상 5:6,26). 그가 이름이 두 가지였으므로, 역대상 5장 26절은 이렇게 옮겨져야 한다. “하나님이 앗수르 왕 불, 즉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디나(Dinah, “정의”). 세겔에게 겁탈당한 야곱과 레아의 딸. 그 일로 부족간의 전쟁이 일어났다(창 34장).

디도(Titus, “기쁜”). 그레데 사역을 위임받은 회심한 헬라인(고후 2:13; 갈 2:1; 딤후 1:4).

디두모(Didymus). 도마 참조.

디모데(Timothy, “하나님께 영예를 얻은”). 바울의 젊은 동료이자 회심자. 바울과 함께 널리 여행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유대인 여자인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행 16:1; 17:14,15; 딤후전 1:2,18; 6:20).

디몬(Timon, “영예로운”). 일곱 집사 중 하나(행 6:1~6).

디베라(Tiberias, “좋은 환상”). 갈릴리 서부 해안의 성읍(요 6:1; 21:1).

디베료(Tiberius, “티베르(강)의 아들”). 로마 제국의 3대 황제(눅 3:1).

디브니(Tibni, “지성적인”). 이스라엘 왕위를 두고 오므리와 다툼 자(왕상 16:21,22).

디오누시오(Dionysius, “주신(酒神) 바카스”). 바울에 의해 회심한 아텐의 관원(행 17:34).



라구엘(Raguel). 이드로 참조.

라마(Ramah, “격상된”). [1] 기브아, 게마, 벤엘 근처의 베나민 지파 마을(수 18:25; 삿 4:5; 사 10:29; 마 2:18).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한 오늘날 에르-람(*Er-Ram*)으로 밝혀졌다. [2] 사무엘이 태어난 마을(삼상 1:1). 라마다임소빔으로도 불리운다(삼상 1:1). 그 위치는 불분명하다. 라마 [1]과, 룻다 북동쪽 14.5km에 위치한

오늘날의 렌티스(*Rentis*)와 동일시되었다. 아리마대일 수도 있다. [3] 아셀의 개척지 마을(수 19:29). 라마 [4]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두로 남남동쪽 20.9km에 위치한 라메(*Rameh*)이지 모른다. [4] 납달리의 견고한 성(수 19:36). 아코(*Acco*) 북동쪽 27.4km에 위치한 오늘날의 라메이지 모른다. [5] 길르앗 라못 참조.

라마다임소빔(*Ramathaim Zophim*). 라마 [2] 참조.

라멕(*Lamech*, “강한 젊음; 정복자”). [1] 노아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5:25~31; 눅 3:36). [2] 야발과 유발의 아버지. 최초의 기록된 일부다처주의자(창 4:18~26).

라못 길르앗(길르앗 라못, *Ramoth Gilead*, “길르앗의 높은 곳”). 갓의 주요 성읍. 레위인에 속한 도피성이었다(왕상 4:13; 22:4). 때로 라못으로 불리운다(신 4:43; 수 20:8). 텔 라미스(*Tell Ramith*)와 텔 엘-후스(*Tell el-Hush*)와 동일시되었다.

라바(*Rapha*, “두려운”). [1] 베냐민의 다섯째 아들(대상 8:2). 역대상 9장 43절에서 르바야로 불리운다. [2] 사울 왕의 후손(대상 8:37).

라반(*Laban*, “흰; 영광스런”). 리브가의 오라비이자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그를 섬겼으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혼인잔치 때 레아를 대신 들여보냈다(창 24~31장).

라암셋(*Rameses*, “태양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애굽의 비옥한 지역(창 47:11; 출 12:37). 고센 땅인 듯하다.

라오디게아(*Laodicea*, “공정한 백성”). 소아시아의 브루기아의 주요 성읍(골 2:1; 4:15; 계 1:11). 그 지역을 흐르는 여러 강줄기(the Meander)의 하나인 라이코스(*Lycos*) 강변에 위치.

라합(*Rahab*, “넓은”). 히브리인 정탐꾼을 도와준 여리고의 기생. 후에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다(수 2:1~21; 6:17~25; 마 1:5).

라헬(Rachel, “암양”). 라반의 딸이자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창 29~35장).

람(Ram(Aram), “높임받은”). [1] 다윗과 그리스도의 선조(룻 4:19; 마 1:3,4; 눅 3:33). [2] 유다의 여라므엘의 아들(대상 2:27). [3] 엘리후의 가족의 족장(욥 32:2).

랍사게(Rabshakeh). 앗수르 정부의 관직명. 그 자세한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란 동쪽 앗수르 지방의 야전사령관 내지 총독인 듯한 암시가 있다(왕하 18:17~28; 19:4,8).

레갑(Rechab, “동료의식”). [1] 이스보셋을 살해한 베냐민의 후손(삼하 4:2,5~9). [2] 레갑 족속으로 불리운 족속의 시조(왕하 10:15; 렘 35장). [3] 함맛의 후손(대상 2:55). [4]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도운 자(느 3:14).

레대오(Lebbaeus). 다대오 참조.

레바논(Lebanon, “흰”). 북부 팔레스타인의 두 산맥 중 하나(신 1:7; 수 1:4). 다른 하나는 안티레바논으로 불리우는데 헐몬산이 최고봉이다. 총 길이는 161km이며, 시돈 남동쪽 24.1km에서 시작해서 수리아(시리아)의 트리폴리 북북동쪽 19.3km까지 펼쳐있다.

레아(Leah, “연약한”). 그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 야곱의 아내된 여자(창 29~31장).

레위(Levi, “결합되다”). [1] 디나가 해를 당한 일을 보복하고(창 34:24~31) 아버지와 함께 애굽에 들어간(창 29:34; 출 6:16) 야곱의 셋째 아들.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다. [2] 그리스도의 선조(눅 3:24). [3] 그리스도의 선조(눅 3:29). [4]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로데(Rhoda, “장미”). 마리아의 집에 있던 여자 아이(행 12:12~15).

로마(Rome, “로물루스의 성”). 로마 제국의 수도(행 23:11). 이

태리의 티베르 강변에 위치.

로이스(Lois, “기쁨을 주는; 더 좋은”). 디모데의 경건한 외조모 (딤후 1:5).

롯(Lot, “가려진”). 사악한 소돔 성을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창 13:1~14; 창 19장).

루가오니아(Lycaonia, “암늑대”). 소아시아의 섬 지방. 바울이 이곳의 더베와 루스드라 성읍을 두 번 방문했다(행 14:6~11). 북쪽의 갈라디아와 남쪽의 길리기아가 경계를 이뤘다.

루기오(Lucius, “아침에 태어난; 빛에 속한”). [1] 안디옥에서 사역한 구레네 출신 선지자 혹은 교사(행 13:1). [2]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롬 16:21). [1]과 동일 인물인 듯 하다.

루디아(Lydia, “루디아의 거민”). 두아디라의 회심한 여자(행 16:14,15).

루디아(Lydia, “리두스[Lydus] 땅”). 애굽 서쪽의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및 백성(겔 30:5; 한글 개역성경에는 롯으로 나옴).

루스드라(Lystra, “해체하다”). 중부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아의 성읍.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았다(행 14:6~21).

루시아(Lysias). 클라우디오 루시아 참조.

루시퍼(Lucifer, “빛을 지닌 자”, 라틴어). 바벨론 왕에 대한 별칭(사 14:12). “빛을 지닌 자”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를 옮긴 것이다. 이 칭호는 사단에게 적용되었다.

루포(Rufus, “붉은”). [1] 구레네 시몬의 아들(막 15:21). 마가복음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듯하다. [2] 로마의 그리스도인(롬 16:13). 어떤 이들은 [1]과 동일인물로 간주한다.

룻(Ruth, “우정, 동료”). 말론과 보아스의 모압 아내. 다윗의 조모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룻 1:4,5,14~16; 4:10; 마 1:5).

룻다(Lyddā, “연못”). 사론 평지에 위치한 마을(행 9:32). 룻(Lod)과 동일.

르무엘(Lemuel, “하나님을 향하여; 바쳐진”). 잠언 31장 1~9절에 그가 한 말이 기록된,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로 종종 간주되는 알려지지 않은 왕.

르바오(Lebbaeus). 다대오 참조.

르바임 골짜기(Rephaim, Valley of, “거인들의 골짜기”). 다윗이 블레셋군을 물리친 유다 지역(사 17:5; 삼하 5:18). 예루살렘과 힌놈의 골짜기 남서쪽,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위치. 오늘날의 엘-부카(*el-Bukaa*) 골짜기로 추정.

르신(Rezin, “지배”). [1] 베가와 함께 유다와 싸운 아람의 마지막 왕(왕하 15:37; 16:5~10). [2] 그 후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스 2:48; 느 7:50).

르우벤(Reuben, “보라 아들이다”). 야곱과 레아의 장자. 그 부친에게 죄를 범하여 장자권을 상실했다(창 29:32; 35:22; 37:29). 그 후손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다.

르우엘(Reuel, “하나님이 그의 친구”). [1] 바스맛을 통해 난 에서의 아들(창 36:4; 대상 1:35,37). [2] 베냐민의 후손(대상 9:8). [3] 이드로 참조.

르호보암(Rehoboam, “백성을 자유케 하는 자”). 솔로몬의 아들. 열 지파가 그에게 반역을 일으켰으며 그는 남왕국 유다를 세웠다(왕상 11:43; 12; 14).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7).

르호뿔(Rehoboth, “공간”). [1]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판 우물(창 26:22). 브엘세바 남서쪽 30.6km에 위치한 오늘날의 와디 루헤이베(Wadi *Ruheibeh*)인 듯하다. [2] 니느웨의 외곽지역(창 10:11). [3] 북부 에돔의 성읍(창 36:37; 대상 1:48). 그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리브가(Rebekah, “아침”).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창 22:23; 24~28장).

리블라(Riblah, “다툼”). [1]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오론테스의 성읍(렘 39:5~7; 왕하 23:33). 하맛 남쪽 80km에 위치. 오늘날의 코엘레시리아(*Coelesyria*) 평원의 리블레(*Ribleh*)인 듯하다. [2] 약속의 땅의 경계 도시(민 34:11). 오늘날 오론테스 강 발원지 남동쪽에 위치한 할멜(*Harmel*)로 추정된다.

리비아(Libya, “바다의 중심”). 애굽 서쪽의 아프리카 대륙을 가리키는 헬라어 지명(행 2:10). 히브리인은 이 지역을 붓이라 불렀다. 에스겔 30장 5절과 38장 5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붓으로 표기했지만 KJV는 리비아로 표기했다.

림몬(Rimmon). [1] 남부 유다의 마을(수 15:22; 대상 4:22; 슥 14:10). 브엘세바에서 15km 떨어진 키르벳 움 에르라마민(*Khirbet Umm er-Ramamin*)으로 밝혀졌다. [2] 기브아 근처의 바위(삿 20:45~47; 21:13). 벤엘 동쪽 5km에 위치한 석회암 기둥인 듯하다. [3] 스불론의 경계 마을(대상 6:77). 여호수아 21장 35절에서 담나로 불리우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림몬이 부식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가(Mark, “정중한; 빛나는”). 바울의 동료 선교사(행 12:12,25; 15:37,39; 골 4:10). 마가는 라틴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다. 그의 이름을 지닌 복음서를 기록했다.

마기야(Michaiah,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1] 르호보암의 아내(대하 13:2). 마아가로도 불리운다(왕상 15:2; 대하 11:20). 마아가 [5] 참조. [2] 미가 [5] 참조. [3] 유다 방백(대하 17:7). [4] 사굴

의 아들(느 12:35). [5] 성벽 봉헌에 참석한 자(느 12:41). [6] 아합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왕상 22:8~28; 대하 18:7~27).

마게도나(Macedonia, 뜻은 알 수 없다). 그리스(헬라) 북쪽에 위치한 나라(행 16:9; 18:5).

마나핫(Manahath, “안식처; 안식”).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대상 8:6).

마노아(Manoah, “안식”). 사사 삼손의 아버지(삿 13:1~23).

마라(Marah, “쓴 것”).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처음 길을 멈춘 수르 광야의 쓴물 샘(출 15:23; 민 33:8). 전통적인 위치는 ‘수에즈에서 75.6km 떨어진 아인 하와라(Ain Hawarah)이다.’

마르다(Martha, “숙녀”). 베다니의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눅 10:38,40,41; 요 11:1~39).

마리아(Mary, “강하다”는 뜻의 미리암의 헬리어 형태). [1]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그녀의 믿음의 노래는(눅 1:46~55) 그녀의 깊은 신앙을 보여준다(마 1:16~20; 요 2:1~11). [2] 마르다의 동생. 주님께 향유를 붓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눅 10:39,42; 요 11:1~45). [3] 갈릴리 막달라의 여인. “일곱 귀신”이 쫓겨난 뒤에 회심을 했다(마 27:56,61; 28:1; 눅 8:2; 요 19:25). [4] 요한 마가의 어머니(행 12:12). [5] 바울이 안부를 전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롬 16:6). [6] 요셉(막 15:47)과 야고보(눅 24:10)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요 19:25)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요 19:25)는 동일 인물인 듯하다(막 15:40).

마므레(Mamre, “견고함; 완강함”).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장(창 14:13,24).

마아가(Maachah{Maacah}, “낙심”). [1]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창 22:24). [2] 다윗의 아내 중 하나이자 압살롬의 어머니(삼하 3:3; 대상 3:2). [3] 마아가의 왕(삼하 10:6). 어떤 이들은

“마아가의 왕”으로 옮긴다. [4] 가드 왕 아기스의 아버지(왕상 2:39).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마옥으로 불리운다. [5] 유다 왕 아사의 어머니(왕상 15:10,13; 대하 15:16). 마가야로 불리운다(대하 13:2). [6] 갈렙의 첩(대상 2:48). [7]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내(대상 7:15,16). [8] 여히엘의 아내(대상 8:29; 9:35). [9]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의 아버지(대상 11:43). [10] 시므온 지파의 장관인 스바다의 아버지(대상 27:16).

마태(Matthew, “하나님의 선물”). 열두 사도 중 하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관원이었다. 레위로도 알려졌다(마 9:9; 10:3; 막 2:14). 그의 이름을 지닌 복음서를 기록했다.

마할랄렐(Mahalaleel, “하나님은 장려하시다”). [1] 게난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5:12,13,15; 눅 3:37). [2]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느 11:4).

미헬살랄하스바스(Maher-Shalal-Hash-Baz, “노락이 신속하다”). 이사야의 아들의 상징적인 이름(사 8:1~4).

막달라(Magdala, “망대”). 갈릴리 해 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마 15:39). 디베라 북북서쪽 4.8km에 위치한 오늘날의 엘-메델(*el-Mejdel*).

말기야(Malchiah, “여호와는 왕”). [1] 다윗 치하의 노래하는 자의 리더(대상 6:40). [2] 바벨론 포로 후에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아론 사람(대상 9:12; 느 11:12). [3] 제사장 가족의 족장(대상 24:9). [4],[5],[6]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세 사람(스 10:25, 31). [7],[8],[9]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운 세 사람(느 3:11,14,31). [10]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곁에 섰던 방백 혹은 레위인(느 8:4). [11] 예루살렘 성벽 정화를 도운 제사장(느 10:3; 12:42). [12] 바스홀의 아버지(렘 21:1; 38:1).

말라기(Malachi, “여호와와 사자” 혹은 “나의 사자”). 구약성경

에 기록된 마지막 선지자.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말 1:1).

말론(Mahlon, “부드러운; 병약한”). 모압에서 죽은 룯의 첫째 남편(룯 1:2~5).

말룩(Malluch, “모사; 다스림”). [1] 레위의 후손(대상 6:44). [2],[3]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사람(스 10:29,32). [4]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느 10:27). [5]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지도자(느 10:27) [6]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 중 하나(느 12:2).

맛다니야(Mattaniah, “여호와의 선물”). [1] 시드기야 왕의 본명(왕하 24:17). [2] 그 가족이 예루살렘에 거한 아삽의 후손(대상 9:15; 대하 20:14; 느 11:17,22; 13:13). [3] 노래하는 자 허만의 아들(대상 25:4,16). [4] 성전 정화를 도운 자(대하 29:13). [5],[6],[7],[8]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네 사람(스 10:26,27,30,37). [9] 문지기 중 하나(느 12:25).

맛닷(Mattat, “선물”). [1] 요셉의 조부이자 예수님의 선조(눅 3:24). [2] 예수님의 다른 선조(눅 3:29).

맛디디야(Mattithiah, “여호와의 선물”). [1]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은 레위인(대상 9:31). [2] 레위인 노래하는 자이자 문지기(대상 15:18,21; 16:5). [3] 여두둔의 아들(대상 25:3,21). [4]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스 10:43). [5] 에스가가 율법을 낭독할 때 곁에 섰던 자(느 8:4).

맛디아(Mattias, “하나님의 선물”).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로 선정된 그리스도인(행 1:23,26). 성(姓)이 유스도였다.

맛사(Massah, “유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호렘 인근 지역의 이름(출 17:7; 신 6:16). 프리바 [1] 참조.

메닷(Medad, “사랑”). 성령이 임한 히브리인 장로 중 하나(민 11:26,27).

메디아(Media, “중앙 지대”). 카스피 해 남쪽, 파르디아 서쪽, 엘람 북쪽, 야그로스 산맥 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 BC 5세기 동안 바사와 메대가 이곳에서 강력한 제국을 이뤘다(에 1:3,14,18; 단 8:20).

메랍(Merab, “증가하다”).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되었으나 아드리엘에게 준비된 사울의 딸(삼상 14:49; 18:17,19). 미갈의 누이인 듯하다.

메사(Mesha, “자유”). [1] 아사라에게 반역한 모압 왕(왕하 3:4). [2] 갈렙의 장자(대상 2:42). [3] 베냐민의 후손(대상 8:9).

메삭(Meshach, “왕의 그림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미사헬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 새로이 주어진 이름. 풀무에서 건짐을 받았다(단 1:7; 3:12~30).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두 강 사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창 24:10; 신 23:4). 두 강이 발원한 산지와 바벨론의 낮은 평지를 포함한다.

멜기세덱(Melchizedek, “의의 왕”). 살렘 왕이자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상징 내지 “모형”이었다(창 14:18~20; 시 110:4; 히 5~7장).

멜기수아(Melchishua). 사울 왕의 셋째 아들(삼상 14:49; 31:2; 대상 8:33).

멜리데(Malta, “꿀을 줌”). 지중해에 위치한 섬(행 28:1). 시실리 남쪽 96.5km에 위치.

메피스(Memphis, “선인의 거처”). 애굽 중앙의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고대 애굽 도시(호 9:6). 높으로도 불리웠다(렘 2:16).

모르드개(Mordecai, “마르스(軍神)에게 바쳐진”). [1] 바사의 고위직에 오른 유대인 포로. 유대인을 멸절에서 구해내는 일을 도왔다(스 2~10장). [2] 이스라엘 골짜기 아래의 언덕(삿 7:1). 길보아

산 북서쪽 12.9km에 위치한 오늘날의 예벨 다히(*Jebel Dahy*) 혹은 작은 혈문산인 듯하다.

모리아(Moriah, “여호와와 고통”). [1]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 고지(대하 3:1). 동일한 고지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사용된 듯하다. 모리아라는 이름은 그 전통적인 의미 까닭에 역대기 기자에 의해 붙여진 듯하다(삼하 24:18; 대하 3:1). [2]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간 산(창 22:2). 그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리아를 모레 [1]과 동일시한다. 이것은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모세(Moses, “건져냄, 아이, 태어난 아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율법 수여자. 그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이끌어내었다. 출애굽기가 그의 이야기를 말한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술했다.

모압(Moab). 아르논과 세렛 사이의 사해 동쪽 평지 땅. 일정 기간 아르논 북쪽까지 확장되기도 했다(신 1:5; 민 22~25장).

모압(Moab, “내 아버지로부터”). 롯이 그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자 모압족의 선조(창 19:34~37).

모퉁이 문(Corner Gate). 예루살렘 성벽 북서쪽 모퉁이 근처의 문(왕하 14:13).

므나헴(Menahem, “위로자”). 살롬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를 빼앗은 우상숭배자(왕하 15:14~23).

므낫세(Manasseh, “잊혀지게 함”). [1] 요셉의 첫째 아들(창 41:51). 그 후손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요단강 양편을 차지했다(수 16:4~9). [2] 히스기야를 이어 유다 왕이 된 우상숭배자. 그리스도의 선조였다(왕하 21:1~18; 마 1:10). [3] 그 후손이 라이스에 새긴 우상을 세운 자(삿 18:30). 대부분 학자들은 모세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서기관(필사자)이, 우상숭

배자인 후손이 그 위대한 율법 수여자에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70인역, 고대 라틴역, 불가타역 등은 모세로 표기했다. [4],[5]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두 사람(스 10:30,33).

므두셀라(Methuselah).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 노아의 조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5:21~27; 눅 3:37).

므렛못(Meremoth, “강한; 견고한”). [1] 성전의 금은 그릇의 무게를 달은 제사장(스 8:33; 느 3:4,21). [2] 포로 기간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스 10:36). [3]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5; 12:3).

므리바(Meribah, “다툼”). [1] 모세가 반석을 친 광야의 한 지역(출 17:7). [2] 히브리 백성이 모세에게 반역을 도모한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의 또 다른 이름(민 20:13).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므리바 가데스로 불리운다.

므리바 가데스(Meribah Kadesh). 므리바 [2] 참조.

므비보셋(Mephibosheth, “우상 파괴자”). [1] 후처 리스바를 통한 사울의 아들(삼하 21:8). [2] 사울의 손자. 시바가 배신자라고 다윗에게 거짓 고소했으나 다윗에게 충성했다(삼하 4:4; 9:6~13). 므립바알(“바알이 쟁론하다”)로도 불리웠다(대상 8:34; 9:40).

므술람(Meshullam, “동료; 친구”). [1] 서기관 사반의 조부(왕하 22:3). [2] 여호야김 왕의 후손(대상 3:19). [3] 갓 지파 가족의 족장(대상 5:13). [4] 베냐민의 후손(대상 8:17). [5] 그 아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대상 9:7). [6] 예루살렘에 거한 자(대상 9:8). [7] 아론의 후손이자 에스라의 선조(대상 9:11; 느 11:11). [8] 제사장(대상 9:12). [9] 성전 봉사의 감독(대하 34:12). [10]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족장(스 8:16). [11] 바벨론 포로 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계수하는 일을 도운 자(스 10:15). [12] 포로 기간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스 10:29). [13],[14]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재건한 두 사람(느 3:4,6,30; 6:18). [15]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 곁에 서 있던 방백 혹은 제사장(느 8:4). [16]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느 10:7). [17]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20). [18]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느 11:7). [19]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도운 제사장(느 12:13,33). [20] 긴느돈의 후손(느 12:16). [21] 바벨론 포로 후의 제사장이자 문지기(느 12:25).

미가(Micah). [1] 작은 개인적인 성소의 소유자(삿 17:1~5). [2] 르우벤의 후손(대상 5:5). [3] 므립바알, 즉 사무엘하 4장 4절의 므비보셋의 아들(대상 8:34). [4] 레위의 아들 그핫의 후손(대상 23:20; 24:24). [5] 압돈의 아버지(대하 34:20).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미가야로 불리운다. [6] 선지자(렘 26:18; 미 1:1). [7] 시그리의 아들(대상 9:15; 느 11:17). [8]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11).

미가엘(Michael, “누가 하나님 같은가?”). [1]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송된 자의 아버지(민 13:13). [2] 갓의 후손(대상 5:13). [3] 갓의 또 다른 후손(대상 5:14). [4] 아삽의 후손(대상 6:40). [5] 잇사갈지파의 족장(대상 7:3). [6] 예루살렘에 거한 자(대상 8:16). [7]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전사(대상 12:20). [8] 잇사갈의 장관인 오므리의 아버지(대상 27:18). [9] 여호사밧의 아들(대하 21:2). [10]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의 선조(스 8:8).

미갈(Michal, “누가 하나님 같은가?”). 다윗과 결혼한 사울의 딸(삼상 14:49).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삼하 6:23). 그러나 사무엘하 21장 8절에는 다섯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KJV의 “그녀가 아드리엘을 위해 기른 자”란 표현은 가능한 번역으로, 히브리어 본문은 그녀가 그들을 낳았다고 말한다. 몇몇 히브리어와 헬리어와 아람어 사본들은 미갈 대신 “메랍의 다섯 아들”이라고 표기했는데,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사무엘

상 18장 19절 참조.

미들레네(Mitylene, “순수”).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레스 보스 섬의 주요 도시(행 20:14).

미드르닷(Mithredath, “미드라(신)에 의해 주어진”). [1] 성전 기명을 내어준 고레스의 청지기(스 1:8). [2] 예루살렘의 회복에 항의하는 글을 바사 왕에게 보낸 자(스 4:7).

미디안(Midian, “쟁론”). 요단 너머에 있는 미디안 후손의 땅. 에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페트라 등을 포함한다(출 2:15,16; 사 6:1 행 7:29).

미디안(Midian, “쟁론”). 그두라를 통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미디안족의 시조(창 25:2,4; 36:35; 대상 1:32).

미리암(Miriam, “살찐, 두꺼운, 강한”). [1] 모세와 아론의 누이. 하세롯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출 2:4~10; 민 12:1~15; 20:1). [2] 유다의 여자 후손(대상 4:17).

미문(Beautiful Gate).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쳐준 예루살렘 동문의 일부분(행 3:2).

미사엘(Mishael, “누가 하나님 같은가?”). [1]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옮긴 자(출 6:22; 레 10:4). [2] 율법을 낭독할 때 에스라와 함께 서 있던 자(느 8:4). [3]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의 동료 중 하나(단 1:6,7,11,19). 메삭 참조.

미스라임(Mizraim). 함의 둘째 아들(창 10:6,13; 대상 1:8,11). 애굽 백성을 가리키는 듯하다.

미스바(Mizpah, “파수대”). [1] 길르앗 산의 돌 더미(창 31:49). [2] 헐몬 산 아래 북부 팔레스타인에 있는 히위족의 정착지(수 11:3). [3] 유다 저지대의 성읍(수 15:38). 엘루테로폴리스(*Eleutheropolis, Beit Jibrin*) 바로 북쪽에 위치했다. [4] 요단 동편 길르앗의 마을(사 11:34). [5] 예루살렘 바로 북쪽의 베나민 마을(수 18:

26; 왕상 15:22). 정확한 위치는 불확실하다. [6] 모압의 한 지점(삼상 22:3). 마다바 서남서쪽에 있는 현재의 룬 엘-메쉬레페(*Rujm el-Meshrefh*)인 듯하다.

밀레도(Miletus, “진홍색”). 이오니아의 해안 도시(행 20:15; 딤후 4:20).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7.9km에 위치했다.



바(Bar).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벤”에 해당하는 아랍어. “바”와 “벤”은 종종 직접적인 관계를 암시하기 위해 이름 앞에 붙여진다. 예컨대, 베드로가 바요나(요나의 아들)로 불리운 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였기 때문이며(마 16:17), 아마 나다나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돌로매였기에 바돌로매(돌로매의 아들)로 불리운 듯하다.

바나바(Barnabas, “위로의 아들”). 바울과 함께 널리 여행한 유대인 그리스도인(행 4:36; 9:27; 22:22~30; 갈 2:1). 본명은 요셉이었으나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로 불리웠다(행 4:36). 분명 사도들은 그를 그들의 위로자로 여겼을 것이다. 바 참조.

바니(Bani, “후손”). [1]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6). [2] 므라리의 후손(대상 6:46). [3] 베레스의 후손(대상 9:4). [4]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한 가족의 아버지(스 2:10; 10:29). 느헤미야 7장 15절에서는 빈누이라 불리운다. [5] 그 후손이 포로기간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스 10:34). [6] 포로기간 중에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한 [5]의 후손(스 10:38). [7] 예루살렘 성벽 보수를 도운 레위인(느 3:17; 8:7). [8] 백성들의 헌신을 도운 레위인(느 9:4; 10:13). [9] 포로기간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14). [10] 그 아들이 포로기간 후에 레위인의 감독자였던

레위인. [7]이나 [8]과 동일인물인 듯하다(느 11:32). [11],[12],[13] 성전 예배에 참여한 세 레위인(느 9:4,5).

바들로매(Bartholomew, “돌로매의 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마 10:3; 막 3:18; 행 1:13). 나다니엘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바 참조.

바라바(Barabbas, “아버지의 아들”).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스도 대신 석방을 요구한 살인자(마 27:17,20,21,26; 막 15:7). 바 참조.

바락(Barak, “번개”). 사사 드보라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격퇴하는 일을 도왔다(삿 4:6~5:15).

바란(Paran, “아름다움”). 시내산에서 도보로 7일 걸리는 광야 지역(창 21:21; 민 10:12; 삼상 25:1). 브엘세바와 수르(Shurj) 광야 동쪽에 위치. 뚜렷한 경계선 없이 신광야와 함께 펼쳐있다. 에돔 및 미디안과 경계를 이루며 종종 바란산(합 3:3)과 엘 바란(창 14:6)으로 불리운다.

바로(Pharaoh, “궁전 거주자”). 영어의 ‘왕’(king)에 해당하는 애굽 열왕의 칭호(창 12:15; 37:36; 출 2:15; 왕상 3:1; 사 19:11).

바룩(Baruch, “복받은”). [1]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서기관(렘 32:12,13,16,36). [2]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운 자(느 3:20; 10:6). [3]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베레스의 후손(느 11:5).

바메나(Parmenas, “꾸준한”). 일곱 집사 중 하나(행 6:5).

바벨론(Babylon, 의미는 알 수 없다). [1] 인조 동산으로 유명한 바벨론 제국의 수도. BC 586년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왕하 17:24,25; 사 39:3,6,7). [2] 대부분 학자들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과 계시록 14장 8절; 18장 2,10~21절에 나오는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1]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믿는다.

바보(Paphos, “끓는 것”). 구브로 남서쪽 끝에 위치한 마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다(행 13:6~13). 오늘날의 바파(*Baffa*).

바사(Persia, “자르다, 나누다”). 서 아시아 전역과 유럽 및 아프리카 일부를 포함한 대 제국(겔 38:5; 스 1:8). 오늘날 이란의 파르스(*Fars*) 지방에 해당한다.

바사바(Barsabas, “사바의 아들”). 바, 요셉 [1], 유다 [12] 참조.

바스맛(Basemath, “향기로운”). [1] 솔로몬의 딸(왕상 4:15). [2] 에서의 아내(창 26:34). 에서 참조. [3] 부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결혼한 에서의 또 한 아내(창 36:3,4,10,13).

바스홀(Pashhur, “쪼개는 사람”). [1] 제사장 가문의 족장(스 2:38; 10:22; 느 7:41). [2]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느 10:1,3). [1]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3] 예레미야를 핍박한 “여호와의 집 유사장”인 제사장(렘 20:1~6). [4] 그 가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멜기야의 아들(대상 9:12; 느 11:12; 렘 21:1; 38:1).

바아나(Baana{Baanah}, “슬픔의 아들; 인내”). [1] 솔로몬의 왕실 상인 중 하나(왕상 4:12). [2] 아셀 지파를 대표한 솔로몬의 또한 상인(왕상 4:16). [3] 성전 건축자인 사독의 아버지(느 3:4). [4]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의 아버지(삼하 23:29; 대상 11:30). [5]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삼하 4:2,5,6,9). [6]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스 2:2; 느 7:7; 10:27).

바아사(Baasha, “담대함”). 이스라엘의 3대 왕. 전쟁과 사악함이 그 통치를 특징지었다(왕상 15:16~16:13).

바알(Baal, “주인; 주(主)”). [1] 르우벤의 후손(대상 5:5). [2] 여이엘의 열 아들 중 넷째(대상 8:29,30; 9:36).

바알(Baal, “주인”). 바알랏 브엘과 동일한 시므온 지파의 성읍(대상 4:33).

비알갓(Baal Gad, “행운의 주; 갓은 주이다”). 여호수아의 정복의 북방 한계를 이룬 헐몬산 아래 마을(수 11:17; 12:7).

비알다말(Baal Tamar, “종려나무의 주”).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군대를 쫓아낸, 베냐민 영토 내의 기브아와 벤엘 근처 지역(삿 20:33).

비알랏 브엘(Baalath Beer, “우물의 여주인”). 때로 “남방의 라마”로 불리운 시므온 지파의 변방 마을(수 19:8). 비알과 동일하다.

비알리스(Baalis, “기쁨의 주”).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의 암몬족의 왕(렘 40:14).

비알 하솔(Baal Hazor, “하솔(에워쌌)의 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에브라임 근처 지역. 벤엘 북동쪽 약 7km에 위치한 듯하다.

비알 헐몬(Baal Hermon, “헐몬의 주”). 므낫세 반지파의 북서쪽 경계를 이룬 헐몬산 동쪽 사면에 위치한 가나안족의 종교의식 장소(삿 3:3; 대상 5:23).

비울(Paul, “작은”이란 뜻의 라틴어 ‘파울루스’(Paulus)에서 나눔). 가말리알 문하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인 다소의 사울의 로마 이름(행 21:39).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행 26:12~20). 자신을 낮추기 위해 이 로마식 이름을 사용한 듯하다. 사도행전은 그의 전도여행을 보여준다.

발디엘(Paltiel,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 잇사갈 지파의 족장(민 34:26). [2] 다윗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삼하 3:15). 사무엘상 25장 44절에서는 발디로 불리운다.

발락(Balak, “공허한; 텅빈”).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모압 왕(민 22~24장; 수 24:9).

발람(Balaam, “순례자; 백성의 주(바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인한 선지자.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축복의 말을 넣어주셨다(민 22~24장; 31:8).

밤빌리아(Pamphylia, “모든 족속으로 구성된 나라”).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 지역. 주요 도시는 버가(행 13:13; 14:24; 27:5).

बाट단아람(Padan Aram, “아람의 평지”). 레바논 산맥에서 유브라테강 너머까지, 북부의 타우루스 산맥에서 남부의 다메섹 너머까지 펼쳐있는 메소포타미아 평원 지역(창 25:20; 28:2; 31:18). 창세기 48장 7절에서는 बात단으로 불리운다.

बाट모(Patmos, “죽을 운명인”). 요한이 추방당한 황폐한 섬(계 1:9). 그리스 군도(群島)에 있으며, 오늘날 파티노(*Patino*)로 불리운다.

बाट세바(Bathsheba, “일곱째 딸; 맹세의 딸”). 헷 사람 우리아의 아름다운 아내.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삼하 11:3; 12:24; 왕상 1:11~2:19).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6).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बात수아로 불리운다.

बाट수아(Bathshua, “번성의 딸”). [1] बात세바의 또 다른 이름. [2] 유다의 아내. 창세기 38장 2절과 역대상 3장 2절에서 흠정역은 그녀의 이름을 “수아의 딸”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बात수아가 올바른 이름이다.

버가(Perga, “매우 세속적인”). 로마 시대 동안 소아시아 밤빌리아의 수도(행 13:13).

버가모(Pergamos, “격상됨”). 북서부 소아시아에 있는 무시아의 성읍이자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계 2:12~17).

버니게(Bernice, “승리를 거둔”).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부도덕한 딸. 그녀와 그녀의 오라비 아그립바(둘이 근친상간 중에 동거했다)가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행 25:13,23; 26:30).

베나민(Benjamin, “오른손의 아들”). [1] 야곱의 막내 아들. 그 후손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다(창 35:18,24; 42:4, 36; 43~45장). [2] 베나민의 후손(대상 7:10). [3] 하림의 후손(스

10:32). [4] 예루살렘 성벽 보수를 도운 자(느 3:23). [5]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도운 자(느 12:34).

베노니(Ben-Oni, “내 슬픔의 아들”). 라헬이 난산하면서 그 아들에게 준 이름. 야곱이 그 이름을 베나민으로 바꿨다.

베다니(Bethany, “환란의 집;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가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약 2.6km 떨어진, 감람산으로 가는 언덕에 위치(막 11:1; 눅 19:29).

베다바라(Bethabara, “시냇가의 집”). 세례 요한이 회심자들에게 세례를 준 요단강 동편 지역(요 1:28). 대부분의 헬라이어 사본은 베다니라고 표기했으나, 이 성읍은 베다니와 동일하지 않다.

베단(Bedan, “심판의 아들”). [1] 백성의 구원자로 언급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삼상 12:11). 70인역, 아람역, 아라비아역 등은 ‘바락’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압돈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2] 므낫세의 후손(대상 7:17).

베데스다(Bethesda, “넘치는 물의 집”).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예루살렘 양문 근처의 연못(요 5:2,3).

베드로(Peter, “돌, 반석”).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은 어부.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다(마 4:18~20; 16:15~19; 행 2장).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헬리어로 ‘페트르’[*Peter*], 아람어로 ‘게바’[*Cephas*])을 뜻하는 이름으로 바꾸셨다.

베들레헴(“떡 집”). [1] 예루살렘 남쪽 10km에 위치한 마을. 예수 그리스도와(마 2:5) 에브랏(창 35:16,19; 룻 4:11; 미 5:2)의 출생지. 후대에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알려졌다. 원래는 에브라다(에브랏)으로 불리웠다(룻 4:11; 창 35:16). [2] 나사렛 북서쪽 약 11km에 위치한 스블론 지파에 속한 성읍(수 19:15).

베로대(Berothai, “우물의”). 다윗이 정복한 하맛과 다메섹 사이

의 북부 팔레스타인의 마을. *쿤(Chun)*으로도 불리웠다(삼하 8:8; 대상 18:8; 겔 47:16).

베스도(Festus, “돼지같은”). 벨릭스의 뒤를 이은 유다 총독. 벨릭스 때 시작된 바울의 재판을 계속 이어갔다(행 25:26).

벤암미(Ben-Ammi, “내 백성의 아들”). 롯과 그의 딸이 낳은 암몬족의 선조(창 19:38).

벤하닷(Ben-Hadad, “하닷(신)의 아들”). [1] 유다의 아사 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왕 벤하닷 1세(왕상 15:18,20; 대하 10:2,4). [2] 아합에게 패배한 아람 왕 벤하닷 2세. 마침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왕상 20:2; 왕하 6:24; 8:7,9). [3] 제국이 분열되었을 때 아람을 다스린 하사엘의 아들(왕하 13:3,24,25; 암 1:4). [4] 아람 왕의 일반적인 칭호인 듯하다(렘 49:27).

벤 니므라(Beth Nimrah, “암표범의 집”). 요단 동편의 갓 지파가 세운 견고한 성(민 32:36). 니므라로도 불리웠다(민 32:3).

벤 브올(Beth Peor, “브올의 집”). 이스라엘 백성이 옥과 싸우는 동안 본부를 둔 비스가 근처 지역(신 3:29; 4:46).

벤 세메스(Beth Shemesh, “태양의 집”). [1] 아스글론과 아스돗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의 마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8km에 위치(수 15:10). [2] 납달리 영토 안의 가나안 성읍(수 19:38; 삿 1:33). [3] 갈릴리해 근처 요단 강변에 위치한 듯한 잇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수 19:22). [4] 헬리오폴리스라는 애굽 도시의 다른 이름(렘 43:13).

벤 스안(Beth Shean, “안식의 집”). 갈릴리 지역의 남쪽 변방 마을. 데가볼리의 열 성읍 중 최대 성읍(수 17:11; 대상 7:29).

벤 호론(Beth Horon, “동굴 집”). 에브라임과 베냐민 영토의 경계에 위치한 쌍둥이 마을. 위의 벤 호론은 예루살렘과 서쪽 평지 사이의 산지에 위치했다. 아래의 벤 호론은 그 너머 북서쪽으로

약 2km에 위치했다(수 16:3; 18:13; 대하 8:5; 왕상 9:17). 이 두 마을의 오늘날 이름은 베이트 우르 에트 타타(아래의)와 베이트 우르 엘 포카(위의)이다.

베티아벤(Beth Aven, “우상의 집”). 아이 근처 광야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수 7:2; 18:12; 삼상 13:5).

베티엘(Bethel,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북쪽 약 18km에 위치한 마을.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 중요한 지점(창 13:3; 28:18,19; 수 16:2; 사 21:19). 전에는 루스로 불리웠다. 오늘날 그 폐허 근처에 베르틴이란 마을이 서 있다.

벨드사살(Belteshazzar).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의 발랏-우수-우술이라는 바벨론 이름의 히브리어 형태. 바벨론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름(단 1:7). 다니엘 참조.

벨릭스(Felix, “행복한”).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재판을 주관한 유다의 로마인 총독(행 23:23~27; 24:22~27).

벨사살(Belshazzar). “벨(신)이 왕권을 보호했다”는 뜻의 벨-살-우술이라는 바벨론 이름의 히브리어 형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자 바벨론의 섭정 왕. 그의 나라가 바사에게 함락당하기 전에 이상한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을 목격했다(단 5; 7:1; 8:1).

벳바게(Bethphage, “익지 않은 무화과나무의 집”).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듯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의 베다니 근처 지역(마 21:1; 막 11:1).

벳새다(Bethsaida, “물고기 집”). 갈릴리 해변의 어촌 마을. 빌립, 안드레, 시몬의 출생지(마 11:21; 눅 9:10; 막 6:45).

보킴(Bochim, “애곡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뉘우친 길갈 근처 지역(삿 2:1~5).

보디발(Potiphar, “태양신에게 속한”). 요셉의 주인이 된 애굽의

시위대장(창 37:36; 39:1).

보디베라(Poti-Pherah, “태양신으로부터 주어진”). 온의 제사장. 요셉의 장인(창 41:45,50).

보블리오(Publius, “일반적인, 첫째가는”). 그들의 배가 파선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을 정중히 영접한 멜리데 섬의 지도자(행 28:1~10).

보아너게(Boanerges)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여된 별명. “우리의 아들들”을 뜻한다(막 3:17).

보아스(Boaz, “쾌속; 힘”). 룻의 남편이자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 유다 베들레헴 사람(룻 2~4장; 마 1:5; 눅 3:32).

본도(Pontus, “바다”). 소아시아의 북동부 지방(행 2:9; 벧전 1:1).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화살 수송선”을 뜻하는 라틴어 ‘폰티우스 필라투스’{*Pontius Pilatus*}에서 나옴). 유다의 로마 집정관.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서자 빌라도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치 못했음에도 그를 백성들에게 내어주었다(마 27:2~24; 요 18:28~40).

보니게(Phoenicia, “종려나무의 땅”).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레바논 산맥 사이의 좁다란 영토(행 21:2; 11:19; 15:3). 그 산맥에서 남쪽으로 펼쳐진 산들을 포함했다.

보닉스(Phoenix, “종려나무의 땅”). [1] 남부 그레데의 항구(행 27:12). [2] 보니게 참조.

보비(Phoebe, “빛나는”). 바울을 도운 고린도 혹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중)(롬 16:1).

부스(Buz, “떨시”). [1]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창 22:21). [2] 갓의 후손(대상 5:14).

부시(Buzi, “여호와와 떨시를 당한”). 아론의 후손이자 에스겔의 아버지(겔 1:3).

분문(糞門, Refuse Gate). 예루살렘 남서쪽 성벽의 문(느 2:13; 12:31).

붓(Phut). 리비아 참조.

브나야(Benaiah,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1] 다윗의 군대의 셋째 지도자이자 열왕의 모사이자 다윗과 솔로몬의 충성된 친구(삼하 8:18; 20:23; 왕상 1:8~2:46). [2]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0; 대상 11:31). [3]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가족의 두령(대상 4:36). [4] 다윗의 제사장 중 하나(대상 15:18,20,24; 16:5,6). [5] 다윗의 모사 중 하나의 아버지(대상 27:34).

브니엘(Peniel, “하나님의 얼굴”). 요단 동편의 히브리인의 진영(창 32:30,31; 사 8:8,17).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실에서 그 이름이 파생되었다.

브다야(Pedaiah,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1] 요엘의 아버지(대상 27:20). [2] 요시야 왕의 조부(왕하 23:36). [3] 여고냐의 아들 혹은 손자(대상 3:18,19). [4]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운 자(느 3:25). [5]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곁에 섰던 자(느 8:4; 13:13). [6] 베냐민의 후손(느 11:7).

브들(Bethuel{Bethul}, “하나님의 거주자”). 시므온 지파에 할당된 마을(수 19:4; 대상 4:30). 벨엘로도 불리웠다(삼상 30:27).

브드나도(Fortunatus, “행운의”).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고전 16:17,18).

브라이도리온(Praetorium). 원래는 로마 진영의 본부였으나 관원의 숙소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브라이도리온으로 인도되었다(막 15:16).

브로고로(Prochorus, “찬양 인도자”). 일곱 집사 중 하나(행 6:5).

브리기아(Phrygia, “황폐한”). 소아시아의 크고도 중요한 섬 지방(행 2:10; 16:6).

브리스길라(Priscilla, “옛 것”). 아굴라의 아내. 신앙심 깊은 유대인 그리스도인(행 18:2,18,26; 롬 16:3).

브사렐(Bezalel, “하나님은 보호하심이다”). [1] 성막의 으뜸가는 일꾼이자 제작자(출 31:2; 35:30; 36:1,2). [2]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스 10:30).

브엘(Beer, “우물”). [1]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문 임시 거처(민 21:16~18). 브엘엘림과 동일한 듯하다(사 15:8). [2] 요담이 그의 형 아비멜렉을 피해 달아난 곳(삿 9:21). 브엘롯과 동일한 듯하다.

브엘 리해로이(Beer Lahai Roi, “나를 감찰하시는 생존자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수르로 가는 길목의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위치한 하갈의 우물(창 16:14).

브엘라다(Beeliada, “주께서 아신다”). 엘리야다로도 알려진(삼하 5:16; 대상 3:8) 다윗의 아들(대상 14:7).

브엘세바(Beersheba,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남부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 남서쪽 약 45km에 위치(창 21:14,22~31; 수 15:28).

블라다(Pelathiah,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1]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22). [2] 다윗의 후손(대상 3:21). [3] 시므온 자손의 두목(대상 4:42,43). [4]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악한 방백(겔 11:1,13).

블레셋(Palestine(Palestina), “가려진 것”). 동쪽의 요단강과 사해와 서쪽의 지중해 사이 불분명한 지역(출 15:14; 율 3:4; 창 15:18). 북부 경계는 레바논 산맥이며, 남서쪽으로는 홍해의 아카바 만까지 펼쳐 있다.

블레셋(Philistia, “채류자의 땅”). 팔레스타인 남서쪽 해안 지역(시 60:8; 87:4; 108:9).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의 본거지인 이

땅은 길이가 80km, 넓이가 24km에 불과했다.

비느하스(Phinehas, “눗으로 만든 입”). [1] 아론의 손자이자 대제사장(출 6:25; 민 25:6~18; 대상 6:4; 9:20). [2] 엘리의 작은 아들. 자기 직분을 남용한 제사장이었다(삼상 1:3; 2:22~24,34). [3] 엘르아살의 아버지(스 8:33).

비스가(Pisgah, “요새”).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 산지(민 21:20; 신 3:27). 아바람 산맥 중 이 지역은 사해 북동쪽 끝에 있다.

비시디아(Pisidia, “던지다”). 안디옥을 수도로 한 소아시아의 섬 지방(행 13:14).

빌닷(Bildad, “아닷의 주; 다툼의 아들”). 욥의 세 “친구”중 하나(욥 2:11; 8:1; 18:1; 25:1; 42:9).

빌라델피아(Philadelphia, “형제 사랑”). 소아시아의 루디아의 마을. 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계 1:11; 3:7~13). 사르디스 남동쪽 45.5km에 위치.

빌라도(Pilate). 본디오 빌라도 참조.

빌레도(Philetus, “친근한”). 부활에 대한 태도로 인해 바울에게 정죄를 당한 회심자(딤후 2:17).

빌레몬(Philemon, “우정”). 바울이 그의 도망 중인 종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서신을 쓴 골로새의 회심자(몬 1,5~7절).

빌립(Philip, “말을 사랑하는 자”). [1]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중 하나(마 10:3; 요 1:44~48; 6:5~9). [2] 사도행전에 일곱 번 언급된 전도자(행 6:5; 8:5~13). [3] 헤롯 [3],[4] 참조.

빌립보(Philippi, “빌립에 속한”). 빌립 대왕이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른 마게도냐의 도성(행 16:12; 20:3~6). 네압볼리리는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16.1km에 위치.

빌하(Bilhah, “보호자”). 라헬의 여종이자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창 29:29; 30:3~5,7).

בלל(Beulah, “결혼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약속의 땅에 대해 이사야가 붙여준 이름(사 62:4).



사가라(Zacharias, “여호와의 기억”을 뜻하는 스가라의 헬라이어 형태). [1] 유대인이 돌로 친 선지자(마 23:35; 눅 11:5). 어떤 이들은 스가라 [11]이나 [16]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있다. [2] 제사장이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눅 1장).

사독(Zadok, “의로운”). [1]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삼하 8:17; 15:24~36; 왕상 1:8~45). [2] 이스라엘 왕인 웃시야의 아내이자 요담의 어머니인 여루사의 아버지(왕하 15:33; 대하 27:1). [3] 아히둡의 아들이자 살룸 혹은 므술람의 아버지(대상 6:12,13; 스 7:2). [4] 두 용맹한 사람(대상 12:28). [5],[6]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 두 사람(느 3:4,29). [7] 느헤미야와의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21). [8] 느헤미야의 서기관(느 13:13). [9] 그리스도의 선조(마 1:14).

사드락(Shadrach, “신(神)의 종”). 바벨론에서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름.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건짐 받았다(단 1:7; 3장).

사라(Sarah, “왕비”).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창 17~18장; 20~21장; 히 11:11; 뱀전 3:6).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기에 그 이름이 사래(“여호와는 왕”)에서 사라(“왕비”)로 바뀌었다(창 17:15).

사래(Sarai). 사라 참조.

사르곤(Sargon, “(신이) 왕을 세웠다”).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앗수르의 중요한 왕. 성경에 단 한번 이름

이 언급되었다(사 20:1).

사르디스(Sardis, “기쁨의 왕”). 교회가 위치한 루디아의 수도 (계 1:11; 3:1,4). 서머나 동쪽 80.5km 떨어진 팩톨루스(*Pactolus*) 강 동안에 위치.

사르밧(Zarephath, “녹이는 곳”). 엘리야의 거처였던 시돈 근처 마을(왕상 17:9).

사마리아(Samaria, “산을 보라”). [1]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왕상 20:1; 대하 18:2; 렘 41:5). 예루살렘 북쪽 67.6km에 위치. [2]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왕상 13:32; 왕하 17:24). [3] 그리스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눅 17:11~19). 갈릴리가 그 북쪽에, 유다가 그 남쪽에 있었다.

사무엘(Samuel, “하나님의 물음을 받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 사울과 후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었다(삼상 1:20; 3~13; 15~16; 19; 25:1; 히 11:32).

사반(Shaphan, “사려 깊은, 간교한”). [1] 요시아에게 율법을 낭독해준 그의 서기관(왕하 22:3; 대하 34:8~21). [2] 요시아의 핵심 신복의 아버지(왕하 22:12; 대하 34:20). [3] 엘라사의 아버지(렘 29:3). [4]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야아사나의 아버지(겔 8:11). 많은 학자들이 위의 모두를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

사밧(Shaphat, “재판하다”). [1]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파송된 자(민 13:5). [2] 선지자 엘리사의 아버지(왕상 19:16,19; 왕하 3:11; 6:31). [3] 다윗 가문에 속한 자(대상 3:22). [4] 갓 지파의 족장(대상 5:12). [5] 골짜기에 있는 다윗의 가축 떼를 돌본 자(대상 27:29).

사브닛바네아(Zaphnath-Paneah, “세상의 구주, 비밀의 계시자”).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창 41:45).

사울(Saul, “물은바 되다”). [1]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길보아에

서 그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삼상 9~31장). [2]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 [3] 에돔의 6대 왕(창 36:37,38; 대상 1:48,49).

사해(Dead Sea). 염해 참조.

삭계오(Zacchaeus, “순수한”). 예수께서 여리고에 머무는 동안 함께 기거하신 세관원(눅 19:1~10).

산발랏(Sanballat, “강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앞장서 방해한 자(느 2:10; 4:1,7; 6:1~14).

산헤립(Sennacherib, “신(神)이 내 형제를 대신했다”는 뜻의 바벨론어 ‘신-아히-에리바’[*Sin-ahi-eriba*]에서 나옴). 왕위를 빼앗기 위해 그 형제를 죽인 앗수르 왕. 유다를 침공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군대가 파멸한 놀라운 기사가 열왕기하에 나온다(왕하 18:13; 사 36:1; 37:17,21,37).

살라미(Salamis, “흔들리다”). 구브로 남단에 위치한 마을(행 13:5). 오늘날 파마구스타(*Famagusta*) 북서쪽 4.8km에 위치.

살렘(Salem, “완전한 평화”). 멜기세덱의 성읍(창 14:18; 시 76:2). 오늘날의 살림(*Salim*)인 듯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믿는다.

살렘(Salim, “길”). 요한이 세례를 준 곳(요 3:23). 확실치는 않지만 세겜 북쪽의 애논 물가인 듯하다.

살로메(Salome, “의복, 힘”). [1]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여인 중 하나(막 15:40; 16:1). 마태복음 27장 56절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그녀가 살로메인 듯싶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모친의 누이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살로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부인한다. [2] 헤롯 앞에서 춤 춘 헤로디아의 딸(마 14:6; 막 6:22).

살룸(Shallum, “보상자”). [1] 납달리의 막내 아들(대상 7:13).

실렘으로도 불리운다(창 46:24; 민 26:49). [2] 시므온의 후손(대상 4:25). [3] 유다의 후손(대상 2:40,41). [4]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고 1 개월간 통치한 자(왕하 15:10~15). [5] 여선지자 홀다의 남편(왕하 22:14; 대하 34:22). [6] 여호와하스 [2] 참조. [7] 므술람 [7] 참조. [8] 성막 문지기(대상 9:17~19,31; 스 2:42; 느 7:45). [10],[11]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사람(스 10:24,42). [12] 예루살렘 성문 보수를 도운 자(느 3:15). [14] 예레미야의 사촌(렘 32:7). [15] 여호야김 시대에 성전 봉사자였던 자의 아버지(렘 35:4).

살문나(Zalmunna, “보호받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죽임당한 미디안 왕(삿 8:5~21).

삼관(Three Inns). 오늘날 시스터나(*Cisterna*) 시 근처의 압비아 도로에 있는 정류장(행 28:15).

삼마(Shammah, “명성, 유명한”). [1] 에서의 손자(창 36:13,17; 대상 1:37). [2] 이새의 아들(삼상 16:9; 17:13). 시므아로도 불리운다(삼하 13:3; 21:21; 대상 20:7; 2:13). [3] 다윗의 용사 중 하나 혹은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의 아버지(삼하 23:11). [4] 다윗의 용사 중 또 하나(삼하 23:33). 역대상 11장 27절에 삼훗으로 불리운다. [5] 다윗의 용사 중 또 한(삼하 23:25).

삼무아(Shammua, “유명한”). [1]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파송된 자(민 13:4). [2] 다윗의 아들 중 하나(삼하 5:14; 대상 14:4).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시므아로 불리운다. [3]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 예배를 지휘한 레위인(느 11:17). 스마야로도 불리운다(대상 9:16). [4]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가문의 족장(느 12:18).

삼손(Samson, “두드러진, 강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 엄청난 힘과 도덕적 연약으로 유명했다(삿 13:24; 14~16장).

삼브대(Shabbethai, “안식일에 태어난”). [1] 에스라의 시종(스

10:15). [2]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준 자(느 8:7). [3] 예루살렘의 지도급 레위인(느 11:16). 이 세 사람은 동일 인물인지 모른다.

삽비라(Sapphira, “아름다운, 사파이어”). 하나님에게 죽임당한 아나니아의 부정직한 아내(행 5:1~10).

샤론(Sharon, “그의 노래”). [1] 유프라에서 갈멜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과 팔레스타인 중앙지대 사이에 위치한 지역(대상 27:29; 행 9:35). [2] 갓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 지역(대상 5:16).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 엘루마가 소경된 것을 보고 회심한 구브로의 로마 관원(행 13:7).

서머나(Smyrna, “몰약”).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성읍(계 2:8~11). 에베소 북쪽 64.4km에 위치.

성전(Temple).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건축물. 솔로몬의 성전, 스톱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 등 세 성전이 있었다.

세겜(Shechem, “기업”).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중부 팔레스타인의 옛 도시(창 12:6; 33:18; 수 24:32; 행 7:16).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예루살렘 북쪽 66km에 위치한 오늘날의 나블루스(Nablus).

세겜(Shechem, “어깨”). [1] 디나를 더럽힌 하몰의 아들. 그의 그 가족이 그 행동으로 인해 곧 멸절당했다(창 33:19; 34). [2] 므낫세의 후손(민 26:31; 수 17:2). [3] 므낫세의 또 다른 후손(대상 7:19).

세렛(Zered,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는 히브리인의 최대 경계를 이룬 시내이자 골짜기(민 21:12; 신 2:13,14). 아르논 남쪽에 있는 와디 엘-헤사(Wadi el-Hesa)인 듯하다.

세바(Sheba, “맹세, 언약”). [1] 갓 지파의 족장(대상 5:13). [2] 다윗에게 반역하다 목이 잘린 자(삼하 20장). [3] 아브라함의 손자

(창 25:3; 대상 1:32). [4] 셈의 후손(창 10:28; 대상 1:22). 어떤 학자들은 [5]와 [4]를 동일 인물로 간주한다. 그들은 세바가 지파 내지 백성을 가리킨다고 믿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로 함의 계보와 셈의 계보 모두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고 강조한다. [5] 함의 후손(창 10:7; 대상 1:9).

세바(Sheba, “맹세”). [1] 아라비아 남서쪽의 나라(왕상 10:1~13; 대하 9:1~12). 그 수도는 오늘날 예멘의 수도인 사나 동북동쪽 95km에 위치한 마립이었다. [2] 브엘세바에 이어 언급된 시므온 지파의 마을(수 19:2). 그 위치는 불분명하다.

세베대(Zebedee, “여호와의 선물”). 갈릴리 어부이자 살로메의 남편이자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마 4:21; 27:56; 막 1:19, 20).

세스바살(Sheshbazzar, “사마스(신)여, 아버지를 보호하소서”). 고레스가 성전 기명을 그 손에 맡긴 유다 방백. 많은 이들이 스룹바벨이라고 믿으나 어떤 이들은 부인한다. 이들은 세스바살은 고레스 치하의 총독이었고, 스룹바벨은 다리오 치하의 총독이었다고 주장한다(스 1:8,11; 5:14~16).

세일(Seir, “폭풍”). [1] 사해에서 남쪽으로 엘라니틱 만(Elanitic Gulf)까지 펼쳐있는 아라바의 골짜기와 산지(창 14:6; 32:3). 세일은 에돔의 산맥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에돔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2] 기랴트 여아림 서쪽의 유다 경계의 산맥(수 15:10).

셀라(Sela, “바위”). [1] 사해와 아카바 만 사이에 위치한 에돔의 수도(왕하 14:7; 사 16:1). 페트라로도 불리운다. [2] 페트라 성을 구성하는, 해발 1,160m 높이의 암반층(삿 1:36). 오늘날 움멜-비자라(Ummel-Bizarah)로 불리운다.

셀롯인(Zealot). 시몬 [2] 참조.

셈(Shem, “이름, 유명한”). 노아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

(창 5:32; 6:10; 10:1; 눅 3:36).

셋(Seth, “보상, 짝”).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 (창 4:25,26; 대상 1:1; 눅 3:38).

소돔(Sodom, “그들의 비밀”). 그 악함으로 멸망한 평지의 다섯 성읍 중 하나(창 10:19; 롬 9:29).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해 지역에 있다.

소스데네(Sosthenes, “강한, 강력한”). [1] 헬라인들에게 구타당한 고린도의 회당장(행 18:17). [2]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전한 신자(고전 1:1). 어떤 이들은 그가 회심 후의 [1]이었다고 믿는다.

솔로몬(Solomon, “평화”). 밧세바를 통한 다윗의 아들이자 통일된 강력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왕. 그 지혜와 육신적인 죄가 그 다면적인 성품에 나타나 있다(왕상 1:11; 2:11).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6,7).

솔로몬의 연못(Solomon’s Pools). 솔로몬이 베들레헴 근처에 지은 저수지(전 2:6).

솔로몬 행각(Solomon’s Porch). 솔로몬이 성전 동쪽에 지은 주랑(柱廊)(요 10:23; 행 3:11).

수가(Sychar, “끝”). 야곱의 우물 근처의 사마리아 마을(요 4:5).

수르(Shur, “벽”). 시나이 반도 북서쪽의 광야 지역(창 16:7; 25:18). 애굽 동쪽 경계 밖에 있었으며, 애굽과 브엘세바 사이의 대상 무역로였던 것 같다.

수리아(Syria, ‘앗수르’{Assyria}의 한 형태). 팔레스타인 북부와 동부에 위치한 나라(삿 10:6; 왕상 10:29; 행 15:23). 지중해의 먼 섬까지 펼쳐있었으며,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을 경계로 했다.

수문(Water Gate). 예루살렘 동편 기혼 샘 위에 위치한 문(느

8:1,3).

수사(Susa). 수산 참조.

수산(Shushan{Susa}, “백합화”). 바벨론인이 거주하던 엘람의 수도. 후에 바사 제국의 왕도와 수도가 되었다(느 1:1; 단 8:2). 수사로도 알려졌다. 오늘날 올라이(Ulai) 강변의 수스(Shush)이다.

수산나(Susanna, “백합화”).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 여인 중 하나(눅 8:3).

숙곳(Succoth, “장막”). [1] 야곱이 직접 집을 지은 마을(창 33:17; 수 13:27). 요단 동편 브니엘과 세겜 사이에 위치. 압복강이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데일 알라(Deir 'Alla)인 듯하다. [2]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처음 진을 친 곳(출 12:37; 13:20).

스가냐(Shehaniah, “여호와는 이웃이시다”). [1] 다윗 가문에 속한 가족의 족장(대상 3:21,22). [2],[3] 그 후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두 사람(스 8:3,5). [4] 포로 기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스 10:2). [5]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 자의 아버지(느 3:29). [6] 느헤미야를 대적한 자의 장인(느 6:18). [7]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느 24:11). [9]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대하 31:15).

스가랴(Zechariah, “여호와 나의 의”). [1] 르우벤 지파의 족장(대상 5:7). [2] 다윗 시대의 레위인 문지기(대상 9:21; 26:2,14). [3] 다윗 시대에 노래하는 일에 임명된 레위인(대상 15:18,20; 16:5). [4] 다윗 시대의 제사장(대상 15:24). [5] 그릇을 통한 레위의 후손(대상 24:25). [6] 므라리를 통한 레위의 후손(대상 26:11). [7] 잇도의 아버지(대상 27:21). [8]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파송된 여호사밧의 방백(대하 17:7). [9] 모압에 맞서도록 여호사밧을 격려한 레위인(대하 20:14). [10] 여호사밧의 아들(대하 21:2). [11] 돌에 맞은

여호야다의 아들(대하 24:20).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에도 언급되었다. [12] 웃시야 시대의 선지자(대하 26:5). [13] 성전 정화를 도운 레위인(대하 29:13). [14] 레위의 후손(대하 34:12). [15] 요시야 시대의 유다 방백(대하 35:8). [16] 에스라 시대의 선지자. 그의 책이 여전히 존재한다(스 5:1; 6:14; 스 1:1,7; 7:1,8). [17] 이스라엘의 한 족장(스 8:3). [18]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스 8:11). 에스라 8장 16절의 족장은 [17]이나 [18]을 가리키는 듯하다. [19]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스 10:26). [20] 에스라와 함께 한 방백(느 8:4). [21] 베레스의 후손(느 11:4). [22]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느 11:5). [23] 제사장(느 11:12). [24] 레위인 나팔수(느 12:35,36). [25] 봉헌식에 참여한 제사장(느 12:41). [26] 이사가가 증인으로 세운 자(사 8:2). [27]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 혹은 아비아의 아버지(왕하 18:2). [28] 여호보암 2세의 아들이자 후계자. 6개월간 통치했다(왕하 18:2).

스데바나(Stephanas, “면류관”). 아가야의 최초의 신자 중 하나(고전 1:16; 16:15~17).

스데반(Stephen, “면류관”). 일곱 집사 중 하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행 6:5~9; 7:59; 8:2).

스라야(Seraiah, “여호와는 왕, 여호와가 이기셨다”). [1] 다윗의 서기관(삼하 8:17). 사무엘하 20장 25절에서는 세바로, 역대상 18장 16절에서는 사위사로 불리운다. 열왕기상 4장 3절에서는 시사로도 불리운다. [2] 예루살렘의 지도급 제사장(왕하 25:18; 대상 6:14; 스 7:1). [3] 그달라가 갈대아에게 굴복하라고 조언한 자(왕하 25:23; 렘 40:8). [4] 웃니엘의 형제(대상 4:13,14). [5] 시므온의 후손(대상 4:35). [6] 스톱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스 2:2). [7] 예레미야를 체포하기 위해 파송된 방백(렘 36:26). [8] 바벨론에 간 유다 방백(렘 51:59). [9]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에 거한 힐기야의 아들(느 11:11). [10] 바벨론에서 돌아온 제사장
의 두령(느 12:1,7).

스룹바벨(Zerubbabel, “바벨론의 후손”). [1]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의 지도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스 3~5장; 느 7:7;
12:1,47).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12,13). [2] 그리스도의 선조
(눅 3:27). [1]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스르디스(Syrtis Sands, “열은 곳”). 카르타고와 구레네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 해안에서 떨어진 두 개의 사주(沙柱)(행 27:17). 오
늘날 큰 스킨디스는 시드라만으로 불리우고, 작은 스킨디스는 가
베스만으로 불리운다.

스마랴(Shemariah, “여호와가 보호하시는 자”). [1]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5). [2] 르호보암 왕의 아들(대하 11:19).
[3],[4]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두 사람(스 10:32,41).

스마야(Shemaiah, “여호와는 명예로우시다” 혹은 “여호와는
들으신다”). [1] 르호보암에게 싸우지 말라고 경고한 선지자(왕상
12:22; 대하 11:2). [2] 다윗의 후손(대상 3:22). [3] 시므온 가족의
족장(대상 4:37). [4] 요엘의 아들(대상 5:4). [5] 므라리의 후손(대
상 9:14; 느 11:15). [6] 언약궤를 성전에 운반하는 일을 도운 자(대
상 15:8,11). [7] 다윗 시대에 기업 분배를 기록한 레위인(대상 24:
6). [8] 성막 문지기(대상 26:4,6,7). [9]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가르
치기 위해 파송한 자(대하 17:8). [10] 성전 정화를 도운 자(대하
29:14). [11] 히스기야 시대의 레위인(대하 31:15). [12] 요시야 시
대의 지도급 레위인(대하 35:9). [13]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스
8:13). [14] 봉사자들을 등록하기 위해 잇도에게 보냄 받은 자(스
8:16). [15],[16]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사람(스 10:21,
31). [17] 예루살렘 성벽 보수를 도운 자(느 3:29). [18] 느헤미야를
위협하려 한 자(느 6:10). [19]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8). [20] 예루살렘 성벽 정화를 도운 자(느 12:36). [21]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에 참석한 자(느 12:42). [22] 선지자 우리야의 아버지(렘 26:20). [23]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책망하기를 원한 자(렘 29:24,31). [24] 유다인의 방백의 아버지(렘 36:12). [25] 삼무아 [3] 참조. [26] 성벽 봉헌에 참여한 유다 방백(느 12:34). [27] 아삽 계보에 속한 레위인(느 12:35). [28] 스투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의 족장(느 12:6,7).

스무엘(Shemuel, “하나님의 물음을 받다”는 뜻의 사무엘의 변형된 형태). [1] 가나안 땅을 배분하기 위해 임명된 자(민 34:20). [2] 잇사갈 가문의 족장(대상 7:2). [3] 사무엘 참조.

스바냐(Zephaniah, “여호와는 흑암, 여호와께서 간수해두셨다”). [1]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슥 1:1). [2]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자 사무엘의 선조(대상 6:36). 우리엘 [1]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3] 제사장 요시아의 아들(슥 6:10,14). [4] 바벨론 통치에 반대한 제사장(왕하 25:18; 렘 21:1; 37:3).

스바다(Shephatiah, “여호와는 재판장”). [1] 아비달을 통해 난다윗의 아들(삼하 3:4; 대상 3:3). [2] 예루살렘에 거한 므술람의 아버지(대상 9:8). [3]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용맹한 사람(대상 12:5). [4] 시므온 지파의 족장(대상 27:16). [5] 여호사밧의 선조(스 2:4; 느 7:9). [6] 돌아온 포로의 선조(스 2:4; 느 7:9). [7] 그 후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솔로몬의 신복 중 하나(스 2:57; 느 7:59). [8] 돌아온 포로의 선조(스 8:8). [6]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9]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의 후손(느 11:4). [10] 시드기야 시대의 유다 방백(렘 38:1).

스블론(Zebulun, “거함”). 스블론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수 19:27,34). 잇사갈 북쪽, 아셀 동쪽, 납달리 남서쪽에 위치.

스블론(Zebulun, “거함”). 야곱의 열째 아들이자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선조(창 30:20; 49:13; 대상 2:1).

스알야습(Shear-Jashub, “남은 자가 돌아오다”). 이사야의 아들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이름(사 7:3).

슬로밋(Shelomith, “평화로움”). [1] 광야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까닭에 돌에 맞은 자의 어머니(레 24:11). [2] 스룹바벨의 딸(대상 23:9). [3] 게르손의 후손(대상 23:9). [4] 레위와 그핫의 후손(대상 23:18). [5] 다윗 시대에 공간을 감독한 자(대상 26:25-28). [6] 르호보암의 아이(대하 11:20). [7]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가족의 선조(스 8:10).

시날(Shinar, “잠자는 자를 깨우다”). 후에 바벨론 혹은 갈대아로 알려진 평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강이 흐른다(창 10:10; 사 11:11).

시내(Sinai, “숲”). [1] 홍해의 끝과 수에즈만과 아카바만 사이에 위치한 반도 중앙 지역(출 16:1; 행 7:30~38). [2]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호렘으로도 불리우는 산(출 19:18). 일반적으로 중부 시내에 있다는데 일치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불분명하다. 전통적인 위치는 예벨 무사(*Jebel Musa*)이지만 세르발 산(*Mount Serbal*)과 라스 에스사프나페(*Ras es-Safsateh*)일 가능성도 있다.

시돈(Sidon, “사냥”). 가나안의 고대 도시(창 10:15,19; 수 11:8; 눅 4:26).

시드기야(Zedekiah, “여호와 나의 의, 여호와는 힘”). [1]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군을 치도록 아합을 부추긴 거짓 선지자(왕상 22:11,24; 대하 18:10,23). [2] 거짓 선지자(렘 29:21~23). [3]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방백(렘 36:12). [4] 유다의 마지막 왕. 그의 반역이 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다(왕하 24:18~25:7; 대하 36:11~21). 역대상 3장 16절에서 여고냐의 “아들” 혹은 후계자로 언급되었다. 맛다니아 [1] 참조.

시리온(Sirion, “흉배”). 시돈 사람들이 헐몬산에 붙여준 이름(신 3:9; 시 29:6).

시몬(Simon, “들음”). [1] 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마 4:18; 16:16,17; 눅 4:38; 행 10:18). [2] 가나안인 시몬으로 불리우는 열 두 사도 중 또 하나. 가나안인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든 그의 신앙에게든 불같은 충성을 보였음을 보여준다(마 10:4; 막 3:18; 눅 6:15; 행 1:13). [3] 그리스도의 형제 중 하나(마 13:55; 막 6:3). [4]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서 기름부음을 받으신 베다니의 문둥이(마 26:6; 막 14:3). [5]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구레네 사람(마 27:32; 막 15:21). [6]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서 밭에 기름부음을 받은 바리새인(눅 7:40,43,44). [7] 가롯 유다의 아버지(요 6:71; 12:4; 13:2). [8] 성령의 선물을 돈주고 사려한 마법사(행 8:9,13,18,24). [9] 베드로가 함께 거한 욥바의 피장이(행 9:43; 10:6,17,32).

시므리(Shimri, “여호와가 감찰하신다”). [1] 시므온 가족의 족장(대상 4:37). [2]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의 아버지(대상 11:45). [3] 다윗 시대의 성막 문지기(대상 26:10). [4] 성전 정화를 도운 자(대하 29:13).

시므리(Zimri, “유명한”). [1] 비느하스에게 죽임당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민 25:14). [2] 엘라를 살해한 군장(왕상 16:9~20). [3] 유다 지파 세라의 아들(대상 2:6). [4] 베냐민의 후손(대상 8:36; 9:42).

시므아(Shimea, “[하나님이 기도들] 들으셨다”). [1] 므라리의 후손(대상 6:30). [2] 베레가의 아버지(대상 6:39). [3] 삼마 [2] 참조 [4] 삼무아 [2] 참조 [5]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울 왕의 가문의 한 사람(대상 8:32; 9:38). 후자의 본문에서는 시므암으로 불리운다.

시므온(Simeon, “들음”). [1] 레아를 통해 난 야곱의 둘째 아들

(창 29:33; 34:25; 48:5; 49:5). 그 후손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가 되었다. [2] 성전에서 어린 그리스도를 축복한 경건한 유대인(눅 2:25~34). [3] 예수님의 선조(눅 3:30). [4] 안디옥의 제자이자 선지자(행 13:1). 니게르(*Niger*, “검은”)로 불리웠다. [5]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은 시므온의 한 형태이다.

시므이(Shimei, “여호와와는 명예로우시다, 여호와와는 나를 들으신다”). [1] 게르손의 아들과 게르손의 손자(출 6:17; 민 3:18,21; 슥 12:13). [2]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그를 저주한 베냐민인의 후손(삼하 16:5~13; 19:16~23). [3] 다윗의 충성스런 신복(왕상 1:8). [4] 솔로몬의 신복(왕상 4:18). [5] 여고냐 왕의 손자(대상 3:19). [6] 1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소유한 자(대상 4:26,27). [7] 르우벤의 후손(대상 5:4). [8] 립니의 아들(대상 6:29). [9] 유다의 족장의 아버지(대상 8:21). [10] 레위인(대상 23:9). [11]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하던 레위인(대상 25:17). [12] 많은 포도원을 책임 맡은 자(대상 25:27). [13] 성전 정화를 도운 자(대하 29:14). [14] 히스기야 치하에서 성전 제사를 관리하던 레위인(대하 31:12,13). [15],[16],[17]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세사람(스 10:23,33,38). [18] 모르드개의 조부(에 2:5).

시브론(Ziphron, “기뻐함”). 모세에 의해 약속의 땅 북부 경계로 지정된 곳(민 34:9). 레스탄(*Restan*) 남동쪽의 사페란(*Za'êranh*)인 듯하다.

시스라(Sisera, “묵상, 정돈”). [1] 야엘에게 살해된 야빈의 군대장관(삿 4:1~22; 5:26,28). [2] 그 후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스 2:53; 느 7:55).

시온(Sion, “흥배”). [1] 혈몬산의 다른 이름(신 4:48). [2] 시온(Zion) 참조.

시온(Zion, “기념비, 요새, 세우다”). 예루살렘이 서 있는 고지의

하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와, 그리고 그 운명이 하나님께 달린 그 백성에 적용되었다(삼하 5:7; 사 8:18; 시 48:11; 율 2:23). 또한 천국의 상징이기도 하다(계 14:1).

시혼(Sihon, “위대한, 담대한”).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모리 왕(민 21:21~31; 신 1:4; 2:24~32; 수 13:15~28).

시홀(Shihor, “검은색”). 나일강 동쪽 지류(대상 13:5; 렘 2:18). 이상적으로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였다.

신(Sin, “숲”). [1] 나일 동편의 도시(겔 30:15,16). 펠루시움(Pelusium)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가 있는 오늘날의 에스웬(Aswan)인, 세네(Syene)일 가능성도 있다. [2] 수에즈만과 시나이 사이에 위치한 광야 지역(출 16:1; 민 33:11,12).

신(Zin, “거함”). 가나안 남부 경계의 광야. 신(Sin)광야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바란 광야 일부였거나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한 광야까지였을 것이다(민 20:1; 27:14; 수 15:1~3).

실라(Silas{Silvanus}, “숲, 나무가 많은, 세 번째, 물음을 받다”).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와 헬라를 여행하고 빌립보에서 함께 투옥된 초대 교회의 두드러진 구성원(행 15:22,32~34; 고후 1:19; 살전 1:1).

실로(Shiloh, “평화”). 에브라임 마을(수 18:1~10; 삿 21:19). 세겟과 벳엘 중간에 위치.

실로암(Siloam, “보냄받다”). [1] 히스기야의 수로 남쪽 끝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연못(요 9:7). 실로아와 동일하다. [2] 실로암 근처 오벨 봉우리의 망대(눅 13:4).

실바누스(Silvanus). 실라 참조.

십보라(Zipporah, “작은 새”). 모세의 아내이자 르우엘의 딸(출 2:21; 4:25; 18:2).

싯딤(Shittim, “가시”). [1]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 여기서 모세는 작별을 고했고 율법이 완성되었다(민 25:1; 수 2:1). 모압 땅,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2] 건조하고 생산치 못하는 골짜기(율 3:18). 이 이름은 어느 특정 골짜기를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예루살렘 북서부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 사해를 향해 나가는 기드론 시내를 가리킬 수도 있다. 또는 사해 주변의 아라바 지역일 수도 있다.



아가보(Agabus, “메뚜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곤란을 당할 것을 예언한 예루살렘 선지자(행 11:28; 21:10).

아간(Achan{Achar}, “환란”). 여리고의 전리품의 일부를 취하여 그의 백성에게 “환란”을 가져온 자(수 7:1~24). 역대상 2장 7절에서 그는 아갈로 불리운다.

아겔 다마(Akel Dama{Potter’s Field}, “피 밭”).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은 30으로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구입한 밭(행 1:19). 토기장이의 밭으로도 불리웠다(마 27:7).

아골(Achor, “환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여리고 남쪽 골짜기(수 7:24). 유다의 북쪽 경계를 이루었다(수 15:7).

아구스도(Augustus, “성별된” 혹은 “거룩한”). 사도행전 25장 21,25절과 27장 1절은 이 칭호를 “경외”의 뜻으로 사용한 것인데, 이 때는 아구스도가 죽은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이었다.

아구스도 가이사(Augustus Caesar). 로마 황제가 된 줄리우스 시저(가이사)의 조카인, 옥타비안의 황제 명. 그의 통치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눅 2:1).

아굴라(Aquila, “독수리”).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자 바울의 친구인 경건한 유대인 그리스도인(행 18:2,18,26; 롬 16:3; 고전 16:19).

아그립바(Agrippa). 헤롯 참조.

아기스(Achish, “뱀 부리는 사람”). [1] 다윗이 안전을 위해 도피한 가드 왕(삼상 21:27~29). [2] 동일한 이름을 지닌, 솔로몬 시대에 통치한 또 다른 가드 왕(왕상 2:39,40).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왕이 동일인물이라고 믿는다.

아나니아(Ananiah, “여호와께서 덮으셨다”). 포로 귀환 후 베냐민 지파가 거한 마을(느 11:32).

아나니아(Ananias,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1] 사도들을 속이려 한 까닭에 죽임당한 제자(행 5:1,3,5). [2] 환상을 본 후 바울을 도와준 다메섹의 제자(행 9:10~17; 22:12). [3] 바울을 대적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행 23:2; 24:1).

아니돏(Anathoth, “응답”).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마을(수 21:18; 스 2:23). 선지자 예레미야의 출생지(렘 1:1; 11:21).

아논(Aenon, “샘”). 요한이 회심자에게 세례를 준, 풍부한 물 공급으로 이름난 곳. 세겜 골짜기 어귀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다(요 3:23).

아다롯 앓달(Ataroth Addar, “앗달의 면류관”). 에브라임 남쪽 변방의 마을(수 16:5; 18:13). 아마 아다롯과 같은 장소인 듯하다(수 16:2).

아닥사스다(Artaxerxes, “탈취하기에 바쁜”). [1]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왕궁의 관원이었던, 바사 왕 아닥사스다 1세인 룽지 마누스(스 7:1,7,11,12; 느 2:1; 5:14). [2] 어떤 이들은 에스라 4장 7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괴뢰정부인 스메르디스 왕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나, 그 아닥사스다는 [1]을 가리키는 듯하다.

아달라(Athaliah, “여호와가 괴롭게 한 자; 여호와는 강하다”). [1] 이세벨의 딸이자 여호람 왕의 아내. 후에 6년간 이스라엘을 통

치했다(왕하 8:26; 11:1~20; 대하 22:2~23:21). [2] 여호람의 아들(대상 8:26). [3] 귀환한 포로의 아버지(스 8:7).

아담(Adam, “땅에 속한; 단단한”). 최초의 인간. 그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저주를 불러왔다(창 2~3장; 고전 15:22,45).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다(눅 3:38).

아담(Adam, “붉은; 흙에 속한”).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진 요단 강 동편 강안(江岸)의 성(수 3:16).

아닷(Atad, “가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는 도중 잠시 머문 헤브론 근처의 장막터(창 50:11).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인의 애곡(히브리어로 ‘에벨’)을 보고 그곳을 가리켜 ‘아벨(“초원”) 미스라임(“애굽인의”)’이라 불렀다.

아덴(Athens, “아테나의 도성”). 고대 그리스의 최대 도시이자 아티카라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수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행 17:15~18).

아도니세덱(Adoni-Zedek, “공의 혹은 의의 왕”).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예루살렘 왕(수 10:1~27).

아도니아(Adonijah, “여호와는 나의 주”). [1] 왕위를 찬탈하려다 솔로몬에게 처형된 다윗의 아들(삼하 3:4; 왕상 1:2). [2] 여호사밧에 의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보냄받은 자(대하 17:8). [3]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친 자(느 10:14~16).

아둘람(Adullam, “피난처”). 숙곳 근처의 유다 마을. 다윗은 이 마을 근처의 한 동굴에서 사울에 대항하는 혁명군의 본거지를 세웠다(수 12:7~15; 삼상 22장; 삼하 23:13).

아드나(Adnah, “기쁨”). [1]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군장(대상 12:20). [2] 여호사밧의 군대장관(대하 17:14).

아드라뉘데노(Adramyttium, “아드라무스로부터, 크레수스의 형제”). 아시아의 로마 지방 북서쪽에 위치한 무시아의 항구도시

(행 27:2; 16:7).

아드리아(Adriatic, “이태리의 아드리아(성)로부터”). 원래는 이태리 동쪽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었다. 후대에는 그리스와 시실리 사이의 지중해를 포함하는 지명이 되었다(행 27:27).

아드마(Admah, “붉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하신 평지 성읍 중 하나(창 19:25~29). 현재 그 위치는 사해 남단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디노(Adino, “장식”). 다윗의 용사들의 두목(삼하 23:8). 어떤 이들은 야소브암 [1]과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부인한다(대상 11:11).

아라랏(Ararat, “높은 산”). 이후에 아르메니아로 알려진(사 37:38; 왕하 19:37) 서부 아시아의 고산 지대(렘 51:27). 노아의 방주가 이 지역의 산에 안착했다(창 8:4).

아라바(Arabah, “대초원”). 갈릴리해와 사해 주변의 침하된 지대(수 18:18). 여호수아 11장 2절의 “꿀짜기”는 아라바를 가리키는 듯하다.

아라비아(Arabia, “광야”). 동쪽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灣), 서쪽의 홍해, 남쪽의 인도양에 이르는 광활한 반도지역. 많은 유목민 부족들의 본거지였으며, 종종 “동방 나라”로 불리웠다(대하 21:16; 사 13:20).

아라우나(Araunah, “여호와께는 견고하시다”). 오르난 참조.

아레다(Aretas, “기쁨을 주는, 덕스러운”). 아레다 4세인 필로파트리스.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체포하려 했던 나바티아족 왕(고후 11:32).

아레오바고(Areopagus, “아레스[마르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역주]의 언덕”). 바울이 헬라철학자들에게 강연을 한, 아텐의 아크로폴리스 서쪽 언덕. 마르스의 언덕으로도 알려졌다

(행 17:19~34).

아론(Aaron, “계몽된, 부유한, 산지 사람”). 모세의 형.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다(출 4:14,30; 7:2,19; 17:9~12; 29; 민 12:17).

아르논(Arnon, “급류”).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민 21:13; 수 13:16).

아르메니아(Armenia). 아라랏 참조.

아리마대(Arimathea,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허락을 받은, 요셉이라는 사업가의 고향(마 27:57; 눅 23:51).

아리스다고(Aristarchus, “최고의 통치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신실한 동료(행 19:29; 20:4; 골 4:10).

아리스도불로(Aristobulus, “최고의 조언자”). 그 가족에게 바울이 문안한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롬 16:10).

아마겟돈(Armageddon, “히브리어로 ‘할 므깃도’-므깃도 언덕”). 그리스도와 사단의 최후 격전지(계 16:16).

아마나(Amana, “앞으로”). 아마나(아바나)강 남쪽으로 추정되는 레바논 산지(아 4:8).

아마사(Amasa, “짐 진 자, 이새의 사람들”). [1]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된 다윗의 조카(삼하 17:25; 19:13; 20:4~12). [2] 사로잡은 유다인을 종 삼기를 반대한 자(대하 28:12).

아마사(Amaziah,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1] 요아스의 아들이자 유다 왕위의 계승자. 라기스에서 살해당했다(왕하 12:21~14:20). [2] 시므온 지파 사람(대상 4:34). [3] 므라리 계통의 레위의 후손(대상 6:45). [4] 벧엘의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암 7:10, 12,14).

아모스(Amos, “짐 진 자, 짐스런”). [1] 웃시아와 여로보암의 통치 기간의 선지자(암 1:1; 7:10~12,14). [2] 그리스도의 선조(눅 3:

25).

아모스(Amoz, “강한”). 선지자 이사야의 아버지(왕하 19:2,20; 사 1:1; 2:1; 13:1).

아몬(Amon, “일꾼” 혹은 “믿을만한”). [1] 아합 시대의 사마리아 총독(왕상 22:26; 대하 18:25). [2] 므낫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위의 계승자요 그리스도의 선조(왕하 21:19~25; 렘 1:2; 습 1:1; 마 1:10).

아므람(Amram, “높임받은 사람들, 붉은”). 레위의 후손이자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아버지 혹은 선조(출 6:18,20; 민 3:19; 26:58,59). [2]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자(스 10:34).

아밋대(Amittai, “진실한”). 선지자 요나의 아버지(왕하 14:25; 욥 1:1).

아벡(Aphek{Aphik}, “힘”). [1] 시돈 북쪽의 성읍(수 13:4). [2] 아셀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나 가나안족에게서 취하지 못한 마을. 약코 남동쪽에 위치(수 19:30; 삿 1:31). [3] 그 왕이 여호수아에게 죽임당한, 율바 북동쪽의 샤론 평지의 마을(수 12:18). [4] 사울과 블레셋군 간의 전쟁으로 그 군사들이 격전을 치른 수넴과 이스라엘 사이의 마을(삼상 28:4; 29:1,11; 31:1).

아벨 그라뮴(Abel Keramim). 요단강 동편에 위치. 입다가 암몬이 이끄는 군대를 격퇴시킨 전쟁터(삿 11:3).

아벨(Abel, “호흡, 증기; 목자”). 그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창 4:1~10; 히 11:4; 12:24).

아벳느고(Abed-Nego, “느보의 종; 이쉬타르의 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중 하나인 아사라에게 주어진 이름. 풀무불에 던져졌다(단 1:7; 2:49; 3:12~30).

아볼로(Apollos, “파괴자”). 에베소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은, 성경에 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행 18:24;

19:1; 고전 1:12; 3:4~6; 딤편 3:13).

아폴로니아(Apollonia, “아폴로의 도성”).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도중에 방문한 마게도나의 마을(행 17:1).

아브넬(Abner{Abiner}, “나의 빛의 아버지”). 아브넬의 단축형. 사울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삼상 14:50,51; 26:5; 삼하 2:3).

아브라함(Abraham{Abram}). 유대 민족의 시조이자 그리스도의 조상. 그 이름이 아브람(“아버가 높임받다”)에서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으로 바뀌었다(창 11~25장; 마 1:1,2).

아비가일(Abigail, “기쁨의 아버지(즉, 근원)). [1] 나발의 아내이자 이후의 다윗의 아내(삼상 25:3,14~44). [2] 압살롬이 군대장관으로 삼은 아마사의 모친(삼하 17:25; 대상 2:16,17).

아비나답(Abinadab, “자유 혹은 자원함의 아버지 혹은 근원”). [1] 그 집에 퀘가 위치한 유다 사람(삼상 7:1; 삼하 6:3,4; 대상 13:7). [2] 다윗의 형제(삼상 16:8; 17:13; 대상 2:13). [3] 블레셋군에게 죽임당한 사울의 아들(삼상 31:2; 대상 8:33; 9:39; 10:2). [4] 솔로몬의 한 신복의 아버지(왕상 5:11).

아비람(Abiram, “승격의 아버지”). [1]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을 꾀하다 죽임당한 자(민 16:27; 시 106:17). [2] 그 부친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할 때 죽은 그의 장자(왕상 16:34; 수 6:26).

아비멜렉(Abimelech, “왕의 아버지”). [1]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20,21,26장에 나오는 그달 왕 아비멜렉이 인명이 아니라 블레셋 왕들이 지닌 왕의 호칭이라고 믿는다. 시편 34편의 부제(副題)는 아기스가 나와야 할 자리에서 아비멜렉을 언급하고 있다. 아기스 이야기는 잘 알려진 까닭에,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2]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시도한, 그리고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드온의 아들(삿 8:30~10:1). [3] 아비멜렉 [2] 참조.

아비삭(Abishag, “내 아버지는 방랑자였다”). 늙은 다윗을 돌보도록 간택된 아리따운 여자(왕상 1:3,15; 2:17,21,22). 이 여인이 솔로몬의 아가에 “술람미 여인”이라고만 불리운 그 여주인공인지도 모른다.

아비새(Abishai, “내 아버지는 이새; 부의 근원”).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용사 중 하나였다(삼상 26:6~9; 삼하 2:18; 10:10; 23:18).

아비아달(Abiathar, “탁월함 혹은 뛰어남의 아버지”). 뉘에서 일어난 사울의 살육에서 피한 유일한 제사장.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솔로몬에 의해 폐위되었다(삼상 22:20~23; 왕상 2:27; 대상 15:11,12).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진설된 떡을 먹을 때 아비멜렉 [1]이 대제사장이었다고 말하지만, 마가복음 2장 26절은 그 일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아마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인 부친을 돕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니면, 아비아달이 부친 아비멜렉보다 역사상 더 유명했기에 마가복음에 아비멜렉 대신 언급되었을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비아달은 실제로 그 직분에 오르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불리운 것이다.

아비아사(Abiasaph{Ebiasaph}, “나의 아버지가 모으셨다”). 그 후손이 성막 문지기인 레위인(출 6:24; 대상 6:23; 9:19).

아비알본(Abi-Albon, “능력의 아버지”).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1). 아비엘이라고도 불리움(대상 11:32).

아비야(Abijah{Abijam},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1] 사무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악한 사사(삼상 8:2; 대상 6:28). [2] 헤스론의 아내(대상 2:24). [3]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유다 왕의 계승자, 즉 그리스도의 선조(대상 3:10; 대하 11:20~14:1; 마 1:7). 아비얌으로도 알려졌다(왕상 15:1). [4] 베냐민의 아들인 베겔의 일곱째

아들(대상 7:8). [5] 제사장 직무와 관련하여 다윗이 임명한 아론의 후손(대상 24:10; 눅 1:5). [6]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1세의 아들(왕상 14:1~8). [7] 느헤미야 시대에 언약을 인친 제사장(느 10:7). 느헤미야 12장 1,4,17절에 언급된 제사장과 동일 인물로 보인다.

아비얌(Abijam, “바다(혹은 서쪽)의 아버지”). 아비아 [3] 참조.

아비후(Abihu,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형과 함께 죽임당한 아론의 아들(출 6:23; 레 10:1).

아사(Asa, “의사, 치료자”). [1] 유다의 3대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왕상 15:8~16:29; 마 1:7,8). [2]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대상 9:16).

아사렐(Azareel{Azareel}, “하나님은 돕는 자”). [1] 시글락에서 다윗의 무리에 가담한 자(대상 12:6). [2] 성전에서 노래부르는 일에 수고한 자(대상 25:18). [3] 단 지파의 족장(대상 27:22). [4]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스 10:41). [5] 임멜 가문에 속한 제사장(느 11:13). [6] 새 성전 봉헌 때 나팔을 분 자(느 12:36).

아사리아(Azariah,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1] 웃시야 참조. [2] 솔로몬의 관리장(왕상 4:5). [3] 다윗의 대제사장의 후손(왕상 4:2). [4] 유다의 후손(대상 2:8). [5] 여라므엘의 후손(대상 2:38, 39). [6] 아히마아스의 아들(대상 6:9). [7] [6]의 대제사장이자 손자(대상 6:10,11). [8]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대상 6:13,14; 9:11; 스 7:1). [9] 선지자 사무엘의 선조(대상 6:36). [10] 아사에게 간 선지자(대하 15:11). [11],[12] 여호사밧 왕의 두 아들(대하 21:2). [13] 아하시야 [2] 참조. [14]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일을 도운 군장(대하 23:1). [15] 요아스를 도운 또 다른 사람(대하 23:1). [16] 웃시야를 막은 대제사장(대하 26:17,20). [17] 에브라임 지파의 두령(대하 28:12). [18] 그핫의 후손이자 요엘의 아버지(대하 29:12). [19] 성전 정화를 도운 자(대하 29:12). [20] 히스기야

시대의 제사장인 사독 가문의 두령(대하 31:10,13). [21] 사독과 에스라의 선조(스 7:3). [22]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 자(느 3:23,23). [23]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느 7:7). 아마 스라야의 또 다른 이름인 듯하다(스 2:2). 그렇지 않다면 이 구절에서 그의 이름이 생략된 것이다. [24] 율법을 설명한 제사장(느 8:7). [25] 에스라 [1] 참조. [26] 유다 지파의 두령(느 12:33). [27]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한 죄로 고소한 자(렘 43:2). [28]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단 1:6,7,11,19; 2:17). 아벳느고 참조.

아사헬(Asahel, “하나님은 행위자, 하나님은 지으셨다”). [1]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아브넬에게 살해당했다(삼하 2:18~32; 3:27,30). [2] 제사와 십일조를 맡은 관리자로 임명된 레위인(대하 31:13). [4] 이방인 아내의 수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은 요나단의 아버지(스 10:15).

아삽(Asaph, “수집자, 모으는 자”). [1] 다윗의 세 주요 음악인 중 하나(대상 6:39; 15:17,19). 시편 50,73~83편의 기자. [2] 히스기야의 사관 요아의 아버지(왕하 18:18,37; 대하 29:13). [3] 그 후손이 예루살렘에 거한 레위인(대상 9:15). [4] 그 후손이 다윗 시대에 토기장이인 자(대상 26:1). 여기서는 아비삽(참조)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듯하다. [5] 유다의 왕의 삼림을 감독한 자(느 2:8).

아셀(Asher, “행복한”). 므낫세 지파의 남쪽 경계에 위치한 마을(수 17:7).

아수바(Azubah, “용서받은”). [1] 여호사밧 왕의 어머니(왕상 22:42; 대하 20:31). [2] 헤스론의 아들 갈렘의 아내(대상 2:18,19).

아스글론(Ashkelon{Askelon}, “방황”). 가나안의 다섯 주요 성읍 중 하나. 여신 데르세토의 숭배지. 오늘날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19km에 위치(수 13:3; 렘 47:5).

아스낫(Asenath, “신에게 바쳐진”). 요셉의 애굽인 아내(창

41:45,50; 46:20).

아스돗(“견고한”). 가나안의 다섯 주요 성읍 중 하나. 물고기의 신 다곤의 숭배지. 오늘날의 압파와 가사 중간에 위치(수 11:22; 삼상 5:1). 신약성경에서는 아소도로 불리운다(행 8:40).

아스브나스(Ashpenaz). 유다 포로를 책임 맡은 느부갓네살의 환관장(단 1:3).

아시아(Asia, “동쪽의”). 성경에서 소아시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용어(고전 16:19; 행 2:9). 때로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지방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행 19:10; 계 1:4).

아얄론(Aijalon{Ajalon}, “수시슴의 처소”). [1] 레위 지파의 성읍으로 지정된, 예루살렘 북서쪽 22.5km에 위치한 마을(수 19:42; 21:24; 대하 28:18). [2] 사사 엘론이 장사된, 갈릴리해 서쪽의 스블론 지파에 속한 지역(삿 12:12).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아이(Ai{Aiath; Aija}, “폐허 더미”). [1] 벤엘 동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 중 하나(수 7:2; 느 11:31). 이사야 10장 28절에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여성 형태가 나온다. [2] 헤스본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몬족의 성읍(렘 49:3).

아인(Ain, “눈”). [1] 시므온 지파를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림몬 근처의 유다 마을(수 15:32; 19:7; 21:16; 대상 4:32). [2] 리블라 서쪽에 위치한, 약속의 땅 경계 선상의 지역(민 34:11).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아켈라오(Archelaus, “백성의 우두머리”). 헤롯 대왕의 아들로써 부친을 이어 이두메와 유다와 사마리아의 통치자가 되었다(마 2:22).

아킴(Achim, “화”). 그리스도의 선조(마 1:14).

아킵보(Archippus, “마부의 우두머리”). 바울이 “함께 군사된 자”로 일컬은 자(골 4:17; 몬 2절).

아하수에로(Ahasuerus). [1] 에스더와 혼인한 바사 왕. 역사가 들에겐 크세르크세스(Xerxes)로 알려졌다(에 1:1; 2:16; 10:3). [2] 메데 왕 다리오의 부친(단 9:1). [3] 바사 왕 캄비세스(Cambyses)의 다른 이름(스 4:6).

아하스(Ahaz, “그가 붙든다”). [1] 유다의 11대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왕하 15:38~16:20; 마 1:9). [2] 베냐민의 후손(대상 8:35, 36; 9:41,42).

아하시야(Ahaziah{Azariah}, “여호와가 붙드신다” 혹은 “지탱하신다”). [1] 이스라엘의 8대 왕. 나약하고 우상을 숭배했다(왕상 22:51~왕하 1:18). 그가 역대하 22장 6절에서 아사랴로 불리운 것은 실수이다. 15편 이상의 히브리어 사본과 최근의 모든 번역은 아하시야로 표기하고 있다. 여호아하스 참조.

아합(Ahab, “아버지의 형제(숙부)”). [1] 이스라엘의 7대 왕.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동일한 인품을 지닌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왕상 16:28~22:40). [2] 느부갓네살에게 살해당한 거짓 선지자(렘 29:21,22).

아히노암(Ahinoam, “즐거운 형제”). [1] 사울 왕의 아내(삼상 14:50). [2] 다윗과 결혼한 이스라엘 여인(삼상 25:43; 27:3; 대상 3:1).

아히도벨(Ahithophel, “어리석음의 형제”). 압살롬의 다윗에 대한 반역을 지휘한 장본인. 승리가 불가능함을 보고 자살했다(삼하 15~17장).

아히둡(Ahitub, “선한 형제; 내 형제는 선함”). [1] 비느하스의 아들(삼상 14:3; 22:9,11,12,20). [2] 대제사장 사독의 아버지(삼하 8:17; 15:27; 대상 6:7,8). [3] 느헤미야 시대에 수고한 같은 가문의 대제사장(대상 6:11; 9:11; 느 11:11).

아히마아스(Ahimaaz, “능력있는 형제”). [1] 사울의 아내 아히노

암의 아버지(삼상 14:50). [2] 솔로몬의 신복 중 하나(왕상 4:15). [3] 다윗에 끝까지 충성한 사독의 아들(삼하 15:27,36; 17:17,20; 18:19~29).

아히멜렉(Ahimelech, “왕의 형제; 내 형제는 왕”). [1] 다윗의 히위족 친구(삼상 26:6). [2] 아비아달의 아들이자 [3]의 손자인 제사장(삼하 8:17; 대상 24:6). 어떤 이들은 앞의 구절의 표현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즉, 그들은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히 역대상 24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역대상 18장 16절에서는 그가 아비멜렉으로 불리운다. 70인역의 그 구절도 아히멜렉으로 옮겨 놓았다. [3] 다윗을 도운 까닭에 죽임당한 놈의 제사장 중 하나(삼상 21:1~8; 22:9~20). 아비멜렉과 아히야 참조.

아히야(Ahijah, “여호와와 형제; 내 형제는 여호와”). [1] 열 지파가 찢겨져 나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왕상 11:29,30; 14:2,4,5). [2] 나답에게 반역을 꾀한 바아사의 부친(왕상 15:27,33; 21:22). [3] 여라므엘의 아들(대상 2:25). [4] 다윗의 용사 중 하나(대상 11:36). [5] 포로 귀환 후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친 자(느 10:26). [6] 성전 보물을 맡은 자(대상 26:20). 아히멜렉 참조.

아히훗(Ahiahud, “존귀의 형제”). [1] 아셀 지파의 족장(민 34:27). [2] 베냐민의 후손인 에훗 가족의 한 사람(대상 8:7).

악십(Achzib, “거짓된”). [1] 여호수아가 정복한 유다 평지에 있는 가나안 성(창 38:5; 수 15:44). [2] 레바논 국경 근처의 갈릴리 북편에 있는 해변 마을(수 19:29; 사 1:31).

안나(Anna, “은혜”). 그리스도 당시의 아셀 지파에 속한 여선지자(눅 2:36).

안나스(Annas, “여호와와 은혜”). 그리스도를 처음 심문한 유대인의 대제사장(눅 3:2; 요 18:13,24; 행 4:6).

안드레(Andrew, “남자다운, 정복자”). 베드로의 형제이자 열두 사도 중 하나(마 4:18; 10:2; 요 1:40,44; 6:8).

안디바(Antipas). 버가모의 그리스도인 순교자(계 2:13).

안디옥(Antioch, “병거처럼 빠른”). [1]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 오론텐스강 남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성읍(행 11:19~26). [2]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때 방문한 비시디아 변방 근처의 브리기아의 성읍(행 13:14).

알렉산더(Alexander, “사람을 돕는 자”). [1]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의 아들(막 15:21). [2] 안나스의 친족이자 예루살렘의 지도급 인물(행 4:6). [3] 에베소인이 소동을 일으킬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인(행 19:33). [1]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4] 배도한 회심자(딤후 1:20). [5]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딤후 4:14). [4]와 동일 인물인 듯하다.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알렉산더 대제의 도성”). 여러 해 동안 애굽의 수도역할을 한, 애굽의 지중해 연안의 도성(행 27:6; 28:11~13).

알루스(Alush,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진을 친 지역(민 22:14).

알몬 디블라다임(Almon Diblathaim, “두 무화과 자루의 은신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장막을 쳤던 아르논강과 잇딤 사이 지역(민 33:46).

알패오(Alphaeus, “지도자, 우두머리”). [1] 레위(마태)의 아버지(막 2:14). [2] 사도 야고보의 아버지(마 10:3; 막 3:18; 행 1:13). 어떤 이들은 그와 글로바를 동일시한다.

암논(Amnon, “양육, 충실한”). [1] 압살롬에게 죽임당한 아히노암이 낳은 다윗의 장자(삼하 3:2; 13:1-39). [2] 갈렙 가문 출신의 시몬의 아들(대상 4:20).

암몬(Ammon). 벤암미 참조.

암미나답(Amminadab{Aminadab}), “내 백성은 자발적이다 혹은 고귀하다”. [1] 아론의 장인(출 6:23). [2] 유다의 족장이자 그리스도의 선조(민 1:7; 2:3; 룻 4:19,20; 마 1:4). [3] 그릇의 아들(대상 6:22). [4] 언약궤를 오벧에돔의 집에서 가져오는 일을 도운 자(대상 15:10,11).

암미엘(Ammiel, “내 아버지는 강하다, 내 친족은 하나님”). [1] 약속의 땅을 정탐한 자 중 하나(민 13:12). [2] 다윗의 친구인 마길의 아버지(삼하 9:4,5; 17:27). [3] 다윗 시대에 성막을 운반한 자(대상 26:5).

압돈(Abdon, “노예 근성의”). 현재의 키르벳 압데흐(*Khirbet Abdeh*)에 위치한, 아셀 지파에 속한 도시(수 21:30; 대상 6:74). 이전에는 헤브론으로 불리웠다. 헤브론 [2], 도시 참조.

압돈(Abdon, “섬김, 노예 근성의”). [1] 8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삿 12:13,15). 베단(Bedan) 참조. [2] 예루살렘에 거한 베냐민의 후손(대상 8:23). [3] 역대기에 언급된 여이엘의 장자(대상 8:30; 9:36). [4] 율법의 의미를 묻기 위해 홀다에게 보낸 사람(대하 34:20). 열왕기하 22장 12절에는 악볼로 불리운다. 아마 [2]와 동일 인물인 듯하다.

압비오 저자(Appii Forum, “압비오 시장”). 로마에서 약 64km 떨어진 이탈리아(이태리)의 마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로마에 왔을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그를 맞았다(행 28:15).

압살롬(Absalom, “평강의 아버지”). 그 부친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 다윗의 아들(삼하 3:3; 13~19장).

앗대(Attai, “시기적절함; 때에 맞은”). [1] 시글락에서 다윗의 무리에 가담한 자(대상 12:11). [2] 르호보암 왕의 아들(대하 11:

20). [3] 베레스의 후손(대상 2:35,36).

앗수르(Assyria, “앗술의 나라”). 니느웨가 수도인, 티그리스강 유역의 셈족 국가(창 2:14; 왕하 15:10,20).

앗술(Asshur{Assur}, “평지”). [1] 셈의 아들(창 10:22; 대상 1:17). 아마 앗수르 백성을 의미하는 듯하다. [2] 창세기 10장 11절은 만일 사람을 가리킨다면 함의 아들이나 [1]을 가리킨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땅을 떠나 그(니므롯)는 앗수르(아술)로 들어 갔다”라고 옳긴다.

앗술(Asshur{Assur}, “평지”). 때때로 앗수르의 수도였던 앗수르의 한 성읍, 혹은 앗수르 국가 자체를 가리키는 듯하다(민 24:22, 24).

애굽(Egypt, “타(Ptah)의 혼의 땅”).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을 당했던 아프리카 북동부 모퉁이 나라(창 45:9; 47:6).

야고보(James, 야곱의 헬라이어 형태). [1] 세베대의 아들이자, 열두 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은 요한의 형제. 헤롯 아그립바에 의해 살해되었다(마 4:21; 막 5:37; 눅 9:54; 행 12:2). [2] 열두 사도 중 또 하나인 알패오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와 동일 인물인 듯하다. “작은”이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비교할 때 나타나 신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마 10:3; 막 15:40; 행 1:13). [3] 예수님의 형제(마 13:55).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고(고전 15:7)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행 12:17; 갈 1:19; 2:9). 야고보서를 썼다(약 1:1). [4] “유다의 형제”로 언급된 알려지지 않은 사람.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잘못된 번역으로 보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이해한다(눅 6:16; 6:10; 7:13; 9:18,23,27; 대상 1:4,5).

야곱(Jacob, “탄원자; 뒤를 좇음”). [1] 이삭의 아들이자 에서의

쌍둥이 형제이자 그리스도의 선조. 예서의 장자권을 사고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창 25~50장; 마 1:2).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하나님이 다투시다”; 창 32:28; 35:10). [2]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마 1:15,16).

야긴(Jachin, “건설” 혹은 “그가 세울 것이다”). [1] 시므온의 아들(창 46:10; 출 6:15; 민 26:12). 역대상 4장 24절에서는 야립으로 불리운다. [2]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대상 9:10; 느 11:10). [3] 아론 권속의 족장(대상 24:17).

야긴(Jachin,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낭실 오른쪽 기둥(왕상 7:21).

야베스(Jabez, “높음”) 유다 지파의 후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형제보다 존귀한 자(대상 4:9,10).

야베스(Jabesh, “마른 땅”). 스가랴를 죽이고 그 대신 다스린 살롬의 아버지(왕하 15:10~14). 야베스 길르앗 참조.

야베스 길르앗(Jabesh Gilead, “마른”). 길르앗의 성읍(삿 21:8; 삼상 11:1). 갈릴리 해 남쪽 32km 떨어진, 오늘날 와디 야비스로 불리우는 지역에 위치한 듯하다.

야빈(Jabin, “지성적인; 관찰된”). [1] 여호수아에게 패배한 하솔의 왕(수 11:1). [2]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드보라에게 패배한 하솔의 또 다른 왕(삿 4장).

야손(Jason, “치료”). [1]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머문 집 주인(행 17:5~9). [2] 로마에 안부를 전한 바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친족(롬 16:21). [1]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야엘(Jael, “들 염소”). 시스리를 죽인 헤벨의 아내(삿 4:17~22; 5:6,24).

야이로(Jairus, “밝혀진”). 그 딸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가버나움 근처의 회당장(눅 8:41).

야일(Jair, “여호와께서 밝히시다”). [1] 그 아버지를 통한 유다의 후손이자 그 어머니를 통한 므낫세의 후손(민 32:41; 신 3:14; 왕상 4:13; 대상 2:22). [2]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삿 10:3~5). [3]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의 아버지(에 2:5).

야하시엘(Jahaziel,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1]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4). [2]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일을 도운 제사장(대상 16:6). [3] 헤브론의 아들(대상 23:19; 24:23). [4] 여호사밧의 군대를 격려하여 모압을 치게 한 레위인(대하 20:14). [5] 그 아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족장(스 8:5).

얏두아(Jaddua, “잘 아는; 알려진”). [1] 언약에 인친 자(느 10:21). [2] 구약성경에 언급된 마지막 대제사장(느 12:11,22).

에글라(Eglah, “송아지”). 다윗의 아내 중 하나(삼하 3:5; 대상 3:3).

에글론(Eglon, “송아지의”). 유다 저지대 마을(수 15:39).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에노스(Enos{Enosh}, “죽을 수밖에 없는”). 셋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4:26; 5:6~11; 대상 1:1; 눅 3:38).

에녹(Enoch, “선생”). [1] 가인의 장자(창 4:17,18). [2] 야벳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5:18,19,21; 대상 1:3; 눅 3:37; 히 11:5).

에녹(Enoch, “시작된”). 가인이 세운 성읍(창 4:17).

에단(Ethan, “고대의”). [1] 솔로몬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왕상 4:31; 시 89 표제어). [2] 유다의 후손(대상 2:6,8). [1]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3] 여두둔 참조. [4] 레위의 후손(대상 6:42).

에덴(Eden, “기쁨”). [1] 하나님이 첫 인간 거주지로 지으신 동산(창 2:15).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페르시아만 어귀 부근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강 사이로 추측된다. [2] 메소보다미아의 한 지역(왕하 19:12; 사 37:12).

에돔(Edom, “붉은”). 사해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모압 남쪽의 산악지역. 예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정착했다(창 32:3; 출 15:15).

에돔(Edom, “붉은”). 이삭의 장자인 예서에게 주어진 이름. 붉은 죽을 주고 장자권을 판데서 연유되었다(창 25:30). 예서; 오벵 에돔 참조.

에디오피아(Ethiopia(Cush?), “불에 탄 얼굴”). 나일강 상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시 68:31; 사 18:1).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와 다르다.

에라스도(Erastus, “사랑하는”). [1]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르는 동안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행 19:22). [2] 로마에 안부를 전한 고린도의 중요한 성도(롬 16:23). [3] 고린도에 머무른 자(딤후 4:20). 위의 세 사람 중 어느 둘이나 세 사람 모두 동일인물인 듯하다.

에바브라(Epaphras). “사랑스런”이란 뜻의 ‘에바브로디도’의 단축형. 골로새 선교사로 수고한 바울의 동역자(골 1:6; 4:12; 몬 23 절).

에바브로디도(Epaphroditus, “사랑스런”).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여 건강을 잃어버린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빌 2:25; 4:18).

에베소서(Ephesus, “바람직한”). 밀레도와 서머나 사이에 있는 소아시아 서부 해안의 마을. 상업의 중심지(행 19:1).

에베스(Abez, “매우 높은”). 잇사갈 지파에 할당된 북부 팔레스타인의 마을(수 19:20).

에벤에셀(Ebenezer, “도움의 돌”). [1]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곳(삼상 4:1~22). 아벡 근처 샤론 북부에 위치. [2] 사무엘이 블레셋군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돌의 이름(삼상 7:12). 이스라엘의 그곳에서의 패배가 역전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1] 후에 그 이름이 지어졌을 것이다.

에봇(Ephod, “신비한”). 므낫세 지파의 한 족장의 아버지(민 34:23).

에브라다(Ephrathah(Ephrath), “비옥함”). 갈렙의 둘째 아내(대상 2:19,50; 4:4).

에브라임(Ephraim, “갑절로 풍성한”). 요셉과 아스낫의 둘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중 둘째였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의 선조였다(창 41:52; 46:20; 50:23).

에브론(Ephron, “강한”).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가 된 동굴이 있는 밧을 산 헛 사람(창 23:8,10,13,14; 49:30).

에살핫돈(Esarhaddon, “아술이 형제를 주었다”). 산헤립의 아들이자 앗수르의 강력한 왕(왕하 19:37; 스 4:2; 사 37:38).

에서(Esau, “털이 많은”).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돔족의 시조(창 25:25).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창 25:26~34; 27장; 36장).

에스겔(Ezekiel,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 그말 강가에서 메소포타미아에 머문 포로들에게 예언을 했으며, 그의 이름을 지닌 책의 기자이다(겔 1:3; 24:24).

에스더(Esther, “별; 이쉬타르(여신)”). 아하수에로에 의해 왕후로 간택된 하닷사의 바사 이름. 에스더서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준다.

에스라(Ezra, “도움”). [1]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일파의 지도자(느 12:1). 느헤미야 10장 2절에는 ‘아사랴’라는 그의 이름의 완전한 형태가 나온다. [2] 갈렙을 통한 유다의 후손(대상 4:17). [3] 대제사장 힐기야의 후손인 유명한 서기관겸 제사장(스 7:1~12; 10:1; 느 8:1~13). 아사랴 참조.

에일므로닥(Evil-Merodach). “말덕(신)의 사람”이라는 뜻의 아

르빌-말덕의 바벨론어.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한 바벨론 왕. 부친 느부갓네살의 위를 이었다(왕하 25:27~30; 렘 52:31).

에훗(Ehud, “강한”). [1] 이스라엘을 모압 에글론의 압제에서 구원한 사사(삿 3:15~30). [2] 베냐민의 증손(대상 7:10; 8:6). [1]과 동일 인물인 듯하다.

엔 돌(En Dor, “거주의 샘”). 사울이 자신의 장래를 알아보려고 마법사를 찾아간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을(수 17:11; 삼상 28:7). 오늘날 나사렛 남동쪽 10km에, 헐몬산 북동부 능선에 위치한 인돌(*Indur*)로 추정된다.

엔게디(En Gedi, “염소의 샘”).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사해 서부 해안의 마을. 원래 하사손 다말로 불리웠다(대하 20:2; 수 15:62).

엘 벤헬(El Bethel, “벤헬의 하나님”). 야곱이 루스(벤헬)에서 본 환상에 대해 지은 이름(창 35:7).

엘가나(Elkanah(Elkonah),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1] 고라의 손자(출 6:24; 대상 6:23). [2]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이자 [1]의 후손(삼상 1:1~23; 2:11,20). [3] 레위의 후손(대상 6:25,36). [4] 레위의 후손(대상 6:26,35). [3]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5] 베레가의 레위인 선조(대상 9:16). [6]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6). [7] 언약궤의 문지기(대상 15:23). [6]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8] 아하스 왕의 관원(대하 28:7).

엘닷(Eldad, “하나님은 친구”). 모세의 예언능력을 받은 두 장로 중 하나(민 11:26,27).

엘라(Elah, “상수리나무”). [1] 에돔의 족장(창 36:41; 대상 1:52). [2] 솔로몬의 한 장관의 아버지(왕상 4:18). [3]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아들이자 후계자. 시므리에게 살해되었다(왕상 16:6~14). [4]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아버지(왕하 15:30; 17:1). [5]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들(대상 4:15). [6] 베냐민의 후손(대상 9:

8).

엘루마(Elymas, “마술사”). 바보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행 13:8). 바예수로도 불리웠다(6절).

엘르아살(Elazar, “하나님은 돕는 자”). [1] 아론의 셋째 아들이자 대제사장직의 승계자(출 6:23; 민 3:32; 20:28). [2]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성별된 자(삼상 7:1). [3]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9; 대상 11:12). [4] 아들이 없던 트라리의 후손(대상 23:21,22; 24:9). [5] 에스리를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스 8:33). [6]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을 도운 제사장(느 12:42). [5]와 동일인물인 듯하다. [7] 예수님의 선조(마 1:15).

엘리멜렉(Elimelech, “나의 하나님은 왕”). 나오미의 남편이자 룻의 시아버지. 모압에서 죽었다(룻 1:2,3; 2:1,3; 4:3,9).

엘리바스(Eliphaz, “하나님은 배분자”). [1] 욥을 대적한 세 “친구” 중 리더(욥 2:11; 4:1; 15:1). [2] 에서의 아들(창 36:4,10~12; 대상 1:35,36).

엘리벨렛(Eliphelet{Elipelet}, “하나님은 피난처”). [1] 다윗의 열세 아들 중 막내(삼하 5:16; 대상 3:8; 14:7). [2] 다윗의 또 한 아들(대상 3:6). 역대상 14장 5절에서는 엘벨렛으로 불리운다. [3]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4).

엘리사(Elisha{Elishah}, “하나님은 구원자”). [1]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 55년간 예언사역을 했다(왕상 19:16,17,19; 왕하 2~6장; 눅 4:27). [2] 아와의 장자이자 노아의 손자(창 10:4). 구브로의 백성 내지 길리기아 근처 지방인 알라시아의 거민인 듯하다. 어떤 이들은 이태리인과 펠로폰네시아인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엘리사마(Elishama, “하나님은 듣는 자”). [1] 여호수아의 조부(민 1:10; 2:18; 대상 7:26). [2] 다윗 왕의 아들(삼하 5:16; 대상 3:8). [3] 다윗 왕의 또 한 아들(대상 3:6). 사무엘하 5장 15절과 역대상

14장 5절에서는 엘리수아로도 불리운다. [4] 유다의 후손(대상 2:41). [5] “왕의 씨”의 하나이자 그달라의 조부(렘 41:1; 왕하 25:25). [6] 여호야김의 서기관 혹은 서기(렘 36:12,20,21). [7] 여호사밧에 의해 율법을 가르치도록 보냄 받은 제사장(대하 17:8).

엘리사벳(Elizabeth, “하나님은 맹세자; 맹세의 하나님”). 사가라의 아내이자 세레 요한의 어머니(눅 1:5~57).

엘리아(Elijah,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1]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우상숭배를 강력히 대적했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왕상 17:1~왕하 2:11; 마 17:3). [2] 베냐민 지파의 두령(대상 8:27). [3] 포로기간 동안 이방여인과 결혼한 자(스 10:26). [4] 포로기간 동안 이방여인을 취한 또 다른 사람(스 10:21).

엘리아킴(Eliakim, “하나님은 세우신다”). [1] 썩나의 뒤를 이은 히스기야의 궁내대신(왕하 18:18,26; 사 22:20). [2] 여호야김 왕의 원래 이름.

엘리에셀(Eliezer, “하나님은 도움”). [1] 아브라함의 종(창 15:2). [2] 모세와 십보라의 둘째 아들(출 18:4; 대상 23:15,17). [3] 베냐민의 후손(대상 7:8). [4]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을 도운 제사장(대상 15:24). [5] 다윗 시대의 르우벤 지파의 관장(대상 27:16). [6] 여호사밧을 책망한 선지자(대하 20:37). [7]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유도한 지도자(스 8:16).

엘리후(Elihu, “하나님 자신”). [1]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20). [2] 다윗 시대의 성막 운반자(대상 26:7). [3] 욥의 가장 젊은 친구(욥 32:2,4~6).

엠티바알(Ethbaal, “바알의 이름; 바알과 함께”). 시돈 왕이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왕상 16:31).

여고냐(Jeconiah). 여호야긴 참조.

여다야(Jedaiah, “여호와는 아신다”). [1] 예루살렘의 제사장(대

상 9:10; 24:7; 스 2:36; 느 7:39). [2]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느 11:10; 12:6,19). [3]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또 다른 제사장(느 12:7,21). [4] 성전에 예물을 가져온 자(스 6:10,14).

여두둔(Jeduthun, “찬양의 합창”). [1] 세 명의 주요 음악가 중 하나(대상 9:16; 25:1~6; 느 11:17). 에단으로도 불리웠다(대상 6:44; 15:17,19). [2] 오벰에돔의 아버지(대상 16:38). 어떤 이들은 [1]과 동일인물이라고 믿는다.

여디디아(Jedidiah, “여호와께 사랑받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신 이름(삼하 12:25).

여디아엘(Jediael, “하나님이 아신다”). [1] 베냐민의 아들(대상 7:6,10,11). 아스벨과 동일인물인 듯하다(대상 8:1). [2] 다윗의 용사 중 하나(대상 11:45). [3]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20). [4] 므셀레야의 아들인 고라의 후손(대상 26:2).

여로보암(Jeroboam, “확대하는 자; 그가 백성의 주장을 변호하다”). [1] 나라가 분열된 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 22년간 다스렸다(왕상 11:26~40; 12:1~14:20). [2] 이스라엘의 13대 왕. 나라가 부강했으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다(왕하 14:23~29).

여로함(Jeroham, “사랑받는”). [1] 레위인이자 사무엘의 조부(삼상 1:1; 대상 6:27). [2] 베냐민의 후손(대상 9:8). [3] 베냐민 지파 가문의 족장(대상 8:27). [4] 포로귀환 후 예루살렘에 그 아들이 거한 제사장(대상 9:12; 느 11:12). [5]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두 사람의 아버지(대상 12:7). [6] 단 지파의 관장인 아사렐의 아버지(대상 27:22). [7] 여호야다를 도와 요아스를 유다 왕위에 앉힌 자의 아버지(대하 23:1).

여룹바알(Jerubbaal, “바알과 다투다” 혹은 “바알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에게 부여한 이름(삿 6:32; 7:1; 8:29).

여룹베셋(Jerubbesheth, “우상과 다투는 자”). 비알이라고 발음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여룹비알에게 붙여준 이름(삼하 11:21).

여리고(Jericho, “그의 달콤한 향기”). 사해 북쪽 끝에서 8km, 요단 서쪽으로 27km에 위치한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민 22:1; 신 32:49).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도시이다.

여부스(Jebus, “관리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삿 19:10,11).

여수룬(Jeshurun, “복받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신 32:15; 사 44:2).

여이엘(Jeiel{Jehiel}, “하나님이 낚아채시다”). [1] 르우벤 지파의 족장(대상 5:7). [2] 사울의 선조(대상 9:35). [3] 다윗의 용사 중 하나(대상 11:44). [4] 성막의 노래하는 자이자 문지기(대상 15:18,21; 16:5). [5] 아삽의 후손(대하 20:14). [6] 웃시아의 서기관 혹은 사관(대하 26:11). [7] 히스기야 시대의 레위인(대하 29:13). [8] 요시아 시대의 레위인의 두목(대하 35:9). [9]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스 8:13). [10]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스 10:43).

여호나답(Jehonadab, “여호와와는 관대하시다”). [1] 동료와 후손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집에 거하는 것을 금한 레갑의 후손(렘 35:6~19; 왕하 10:15,23). [2] 다윗의 형 시므아의 간교한 아들(삼하 13:3,5,32,35).

여호람(Jehoram{Joram}, “여호와와는 높으시다”). 요람은 이 이름의 단축형이다. [1]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자 후계자. 그리스도의 선조(왕하 8:16~24; 마 1:8). [2] 예후에게 살해된 이스라엘의 9대 왕(왕하 1:17; 3:1~6; 9:24). [3]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제사장(대하 17:8).

여호사밧(Jehoshaphat,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최후 심판이

입할 골짜기(욘 3:2). 전승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한다.

여호사밧(Jehoshaphat{Joshhat}, “여호와와는 재판장”). [1] 다윗의 사관(삼하 8:16; 20:24; 왕상 4:3). [2] 솔로몬의 장관(왕상 4:17). [3] 요람에게 반역한 예후의 아버지(왕하 9:2,14). [4] 언약궤를 오벨에돔에서 가져오는 일을 도운 제사장(대상 15:24). [5] 유다의 신실한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왕상 22:41~50; 마 1:8).

여호수아(Joshua{Heshea}, “여호와와는 구원”). [1] 모세의 후계자. 약속의 땅 정복을 지휘한 군장(출 17:9~14; 24:13; 신 31:1~23; 34:9).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여호와와는 도움”)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었다. [2] 엘리 시대에 벤세메스의 거민(삼상 6:14,18). [3] 요시아 시대 예루살렘의 총독(왕하 23:8). [4] 성전 재건 때의 대제사장(학 1:1,12,14; 2:2,4; 슥 3:1,3,6).

여호아스(Jehoash{Joash},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여호와께서 후원하신다”). [1] 유다의 9대 왕.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좇아 섬겼으나, 그 후에는 그 나라에 우상숭배와 재앙을 가져왔다(왕하 11:21~12:21). 종종 요아스라는 단축형으로 불리운다. [2] 이스라엘의 12대 왕.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왕하 13:9~14:16). 종종 요아스라는 단축형으로 불리운다.

여호아하스(Jehoahaz,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1] 예후의 아들이자 계승자. 그의 통치는 일종의 재앙이었다(왕하 10:35; 13:2~25). [2] 요시아의 아들이자 바로느고에 의해 폐위될 때까지 3개월간 유다를 다스린 왕(왕하 23:30~34; 대하 36:1~4). 왕이 되기 전에는 살룸으로도 불리웠다(대상 3:15; 렘 22:11). [3] 아하시야
[2] 참조

여호야긴(Jehoiachin,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될 당시의 유다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왕하 24:8~16; 대하 36:9,10; 마 1:11,12). 여고냐(“여호와와는 능하시다”)는 고니야(“여

호와는 창조하신다”; 렘 22:24,28; 37:1)처럼 그 이름의 바뀐 형태 이다(대상 3:16,17; 렘 24:1).

여호야김(Jehoiakim, “여호와는 세우신다” 혹은 “여호와는 세우셨다”). 바로느고가 엘리아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부여한 새 이름.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엘리아김을 왕위에 세울 권한을 그에게 주셨다는 뜻인 듯하다(왕하 23:34~24:6). 요야김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야다(Jehoiada, “여호와는 아신다”). [1] 다윗의 신복 중 하나의 아버지(삼하 8:18; 왕상 1:8,26). [2] 여러 해 동안 성전을 돌아본 중요한 제사장. 요아스를 아달라의 손에서 6년간 숨겨두었다(왕하 11~12:9). [3]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27). [4] 다윗의 모사(대상 27:34). [5] 예루살렘 성문 보수를 도운 자(느 3:6). [6] 스바냐로 대치된 제사장(렘 29:26).

염성(鹽城, City of Salt). 엔게디 근처에 있는 유다 광야의 성읍(수 15:62).

염해(Salt Sea, Dead Sea, East Sea). 과도한 광물질로 인해 바다 생물이 전혀 없는, 요단 골짜기 남단의 큰 호수(창 14:3; 민 34:12). 오늘날 이름은 사해이다.

예레미야(Jeremiah, “여호와는 높으시다”). [1] 그 딸이 요시아 왕과 결혼한 립나 여자(왕하 23:31; 렘 52:1). [2]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의 족장(대상 5:24). [3]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4). [4]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10). [5]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또 다른 사람(대상 12:13). [6]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느 10:2; 12:1,12). [7] 요나답의 후손(렘 35:3). [8]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한 선지자. 그의 나라의 정책과 우상숭배를 꾸짖었다(렘 1장; 20장; 26장; 36장).

예루살렘(Jerusalem, “평화의 소유”). 지중해에서 48km, 요단 서쪽으로 29km에 위치한 남왕국 유다의 수도(수 10:1; 삼하 5:5).

예수(Jesus, 여호수아의 헬라이어 형태). [1] 바울과 함께 골로새인들에게 문안을 전한 그리스도인(골 4:11). 유스도라고도 불리웠다. [2] 여호수아 참조.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예수-“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실 왕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동정녀의 아들. 그의 사역에 대한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의 복음서에 발견된다.

예후(Jehu, “여호와가 그분이다”). [1] 이스라엘 왕 바아사에게 재앙의 소식을 전한 선지자(왕상 16:1~12; 대하 19:2). [2] 이스라엘의 10대 왕(왕상 19:16,17; 왕하 9; 10). 그 부패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약화시켰다. [3] 헤스론의 후손(대상 2:38). [4] 시므온의 후손(대상 4:35). [5]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3).

오난(Onan, “왕성한”). 유다의 둘째 아들. 불순종 까닭에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했다(창 38:4~10; 민 26:19).

오네시모(Onesimus, “유용한”). 바울이 그를 위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서신을 쓴 중(골 4:9; 몬 10,15절).

오네시보로(Onesiphorus, “유익을 주는 자”). 옥에 갇힌 바울을 종종 찾아와 위로를 준 바울의 충성스런 친구(딤후 1:16; 4:19).

오르난(Ornan, “활동적인”). 다윗이 땅을 산 여부스 사람.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다(대상 21:15-25).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는 아라우나로 불리운다.

오르바(Orpah, “넓은 황갈색, 신선했”). 나오미의 며느리(룻 1:4~14).

오므리(Omri, “여호와께서 배분하신다, 학생”). [1] 이스라엘의

6대 왕이자 3대 왕조의 시조 사마리아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왕상 16:15~28). [2] 베냐민의 후손이자 베겔의 아들(대상 7:8). [3]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레스의 후손(대상 9:4). [4] 다윗 시대의 잇사갈의 족장(대상 27:18).

오바다(Obadiah, “여호와와 의 중”). [1] 이세벨에게서 선지자들을 보호하려 한 아합의 장관(왕상 18:3-16). [2] 다윗의 후손(대상 3:21). [3] 잇사갈 지파의 족장(대상 7:3). [4] 사울 왕의 후손(대상 8:38; 9:44). [5] 스블론 지파 사람(대상 27:19). [6]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갓 지파 족장(대상 12:9). [7] 여호사밧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임명한 방백 중 하나(대하 17:7~9). [8] 성전 봉사를 감독한 레위인(대하 34:12). [9]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족의 족장(스 8:9). [10] 느헤미야와의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5). [11] 성전 성소의 문지기(느 12:25). [12] “소 선지자” 중 넷째. 메시지의 직접적인 대상이 에돔이었다(욥 1장).

오벳(Obed, “도움” 혹은 “회복자”). [1] 선지자 아사라의 아버지(대하 15:1). [2] 북부의 군대를 설득하여 유대인 포로를 풀어주게 한 사마리아의 선지자(대하 28:9~15).

오벳(Obed, “중”). [1] 보아스와 롯의 아들이자 이새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룻 4:17; 마 1:5; 눅 3:32). [2] 유다의 후손(대상 2:37,38). [3] 다윗의 전사 중 하나(대상 11:47). [4] 다윗 시대의 레위인 문지기(대상 26:7). [5] 요아스를 유다 왕 삼는 일을 도운 아사라의 아버지(대하 23:1).

오벳에돔(Obed-Edom, “에돔(신)의 중”). [1] 3개월간 케를 보호한 사람(삼하 6:10~12; 대상 13:13,14). [2] 주요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중 하나(대상 15:18,21,24; 16:5,38; 26:4,8,15). [3] 성전 관리인, 혹은 [2] 출신의 무리(대하 25:24).

오빌(Ophir, “풍성한 지역”). 솔로몬이 금을 캔 지역(왕상 9:28;

대상 29:4). 그 위치는 불확실하다. 요세푸스는 인도라고 생각했으나, 오늘날 소말리아의 아프리카 해안일 가능성이 더 높다.

오셈(Ozem, “힘”). [1] 다윗의 형제(대상 2:15). [2] 유다 지파에 속한 여라므엘의 아들(대상 2:25).

웃니엘(Othniel, “하나님은 능력”).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통치에서 건져낸 갈렙의 동생(삿 1:13; 3:8~11; 대상 27:15).

와스디(Vashti, “아름다운 여인, 가장 좋은”). 그의 연회에 나오기를 거절한 까닭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혼 당한 바사의 왕후(에 1:10~22).

요게벳(Jochebed, “여호와와는 존귀 혹은 영광”). 레위의 후손이자 모세의 어머니(출 6:20; 민 26:59).

요나(Jonah{Jonas}, “비둘기”). [1]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요 1:42; 21:15~17). [2] 여로보암 시대에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히브리인 선지자. 이방 나라에 보냄 받은 첫 번째 히브리인 선지자였다(왕하 14:25; 온 1:1,3,5,17; 2:10; 마 12:39~41).

요나단(Jonathan, “여호와께서 받으시다”). [1] 에브라임 지경에 있는 우상 신전의 제사장(삿 18:30). [2]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삼하 15:27,36; 17:17; 왕상 1:42). [3]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삼하 21:21; 대상 20:7). [4]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2; 대상 11:34). [5] 오남의 손자(대상 2:32,33). [6] 다윗의 사촌(대상 27:32). [7]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의 아버지(스 8:6). [8] 대제사장 예수아의 후손(느 12:11). [10] 제사장(느 12:14). [11] 예레미야가 그 집에 투옥되었던 서기관(렘 37:15,20; 38:26). [12]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달라와 합류한 자(렘 40:18). [13] 시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삼상 14장; 18:1~4; 31:2).

요나답(Jonadab). 여호나답 참조.

요단(Jordan, 뜻은 알 수 없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강. 레비논산과 헐몬산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사해 북단으로 굽이쳐 흘러들어간다(창 13:10; 수 2:7).

요담(Jotham, “여호와께는 완전하시다”). [1] 아비멜렉을 겨우 피한 기드온의 아들(삿 9:5,7,21,57). [2] 야대의 아들(대상 2:47). [3] 유다의 12대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왕하 15:5~38; 사 1:1; 7:1; 마 1:9).

요세(Jose). 그리스도의 선조(눅 3:29). 요셉(Joses)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요셉(Joseph, “증가시키는 자”). [1] 야곱과 라헬의 아들. 종으로 팔렸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창 37장; 39~50장). [2] 가나안에 파송된 정탐꾼의 하나의 아버지(민 13:7). [3] 아삽의 아들(대상 25:2,9). [4] 포로기간에 이방 연인과 결혼한 자(스 10:42). [5] 스바냐의 가족의 제사장(느 12:14). [6]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마 1:16~24; 2:13; 눅 1:27; 2:4). [7]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안치된 아리마대의 회심한 유대인(마 27:57,59; 눅 15:43). [8] 그리스도의 선조(눅 3:24). [9]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선조(눅 3:30). [10]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선조(눅 3:26). [11] 가룟 유다를 대신한 제자(행 1:23). 바사바와 유스도로도 알려졌다.

요셉(Joses, “도움을 받다”). [1] 그리스도의 형제 중 하나(마 13:55; 막 6:3). [2]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의 아들(마 27:56; 막 15:40, 47). 요세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요시야(Josiah, “여호와께서 후원하신다”). [1] 그 통치기간 중 율법책이 발견된 유다의 경건한 왕(왕상 13:2; 왕하 22:1~23:30).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10,11). [2] 예루살렘에 거하는 스바냐의 아들(슌 6:10).

요아스(Joash,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1] 베냐민의 후손인 베

겔의 아들(대상 7:8). [2] 다윗의 기름 곳간을 지키는 자(대상 27:28).

요아스(요아스의 단축형). [1] 유다 사람(대상 4:22). [2]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삿 6:11~32) [3] 아합의 아들(왕상 22:26; 대하 18:25). [4]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자(대상 12:3). [5] 여호아스 [1] 참조. [6] 여호아스 [2] 참조.

요안나(Joanna{Joannas}, “하나님이 주신”). [1] 그리스도의 선조(눅 3:27). [2]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섬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눅 8:3; 24:10).

요압(Joab, “여호와와는 아버지”). [1]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다(삼하 2:13~32; 3:23~31; 18; 왕상 2:22,23). [2] 유다의 후손(대상 2:54). 어떤 학자들은 유다의 성읍을 가리킨다고 간주한다. [3] 유다 지파에 속한 자(대상 4:14). [4] 귀환한 포로의 선조(스 2:6; 8:9; 느 7:11).

요야킴(Joiakim,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수아의 아들(느 12:10,12,26). 여호야킴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요아립(Joiarib, “여호와께서 아신다”).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들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보낸 자(스 8:16). [2] 예루살렘에 거하는 한 가족의 선조(느 11:5). [3]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느 11:10; 12:6,19). 역대상 9장 10절에서는 여호야립으로 불리운다.

요엘(Joel, “여호와와는 하나님”). [1] 선지자 사무엘의 장자(삼상 8:2; 대상 6:33; 15:17). [2] 시므온의 후손(대상 4:35). [3] 르우벤의 후손인 스마야의 아버지(대상 5:4,8). [4] 갓 지파의 족장(대상 5:12). [5] 선지자 사무엘의 선조(대상 6:36). [6] 돌라의 후손(대상 11:38). [8] 다윗 시대의 레위인(대상 15:7,11; 23:8). [9] 여호와와의

전 곳간 문지기(대상 6:22). [10]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족장(대상 27:20). [11] 성전 정화를 도운 레위인(대하 29:12). [12]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스 10:43). [13] 예루살렘에 거하는 베나민의 후손의 감독(느 11:9). [14] 웃시야 시대의 선지자(을 1:1; 행 2:16).

요하난(Johanan,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 [1] 예루살렘 멸망 후 그달라와 동맹한 군장(왕하 25:23; 렘 40:8,13). [2] 유다 왕 요시아의 장자(대상 3:15). [3] 엘료에내의 아들(대상 3:24). [4] 솔로몬 시대 제사장의 아버지(대상 6:9,10). [5],[6] 시글락에서 다윗과 합류한 두 용사(대상 12:4,12). [7] 아하스 시대에 유대인 포로를 중 삼는 것을 반대한 자(대하 28:12). [8] 포로 귀환자(스 8:12). [9]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제사장(스 10:6). [10] 암몬 사람 도비아의 아들(느 6:18). [11]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느 12:22, 23).

요한(John,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는 여호하난의 단축형). [1]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불리웠으며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했다(마 3장; 11:7~18; 14:1~10; 눅 1:13~17). [2] 세베대의 아들이자 열두 사도 중 하나. 전통적으로, 계시록, 네 번째 복음서 및 그의 이름을 지닌 세 편의 서신의 기자로 인정된다(마 4:21; 10:2; 행 1:13; 갈 2:9; 계 1:1). [3] 베드로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친척(행 4:6). [4] 마가라는 성(姓)으로 더 잘 알려진 선교사. 요하난 참조.

욕단(Joktan). 셈의 계보에 속한 에벨의 아들(창 10:25,26; 대상 1:19,20,23). 다른 많은 아라비아 부족이 파생한 한 아라비아 족속을 가리키는 듯하다.

욥(Job, “미움받다; 핍박받다”). [1] 우스의 경건한 사람. 그의 맹

렬한 시련 속의 인내가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다(욥 1~3장; 42장; 겔 14:14,20). [2] 잇사갈의 셋째 아들(창 46:13). 야숨으로도 불리운다(민 26:24; 대상 7:1).

욥바(Joppa, “아름다움”). 팔레스타인의 해안 마을(대하 2:16; 행 9:36).

우르(Ur). 아브람이 하란에 가기 위해 떠난 도시(창 11:28,31). 일반적으로 남부 이라크의 유브라테 강변에 위치한 현대의 텔 엘-무카야르(*Tell el-Muqayyar*)인, 고대의 우르로 알려져 있다.

우리아(Uriah, “여호와는 나의 빛”). [1] 다윗의 군대에 속한 히 사람 군사.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양으로 그를 전투 일선에 내보낸 까닭에 맹렬한 싸움에서 전사했다(삼하 11장). [2] 왕의 명령대로 이방 제단을 세운 아하스 치하의 제사장(왕하 16:10~16). [3] 그 심판의 메시지로 여호야김을 자극해서 결국 여호야김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렘 26:20~23). [4] 제사장이자 므레못의 아버지(스 8:8; 느 3:4,21). [5]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곁에 섰던 사람(느 8:4). [4]와 동일인물인 듯하다. [6] 이사야가 증인으로 삼은 제사장(사 8:2).

우스(Uz, “조언, 견고함”). [1] 아람의 장자(창 10:23). 아람족 내지 아람 백성을 가리키는 이름인 듯하다. [2] 셈의 아들(대상 1:17). 70인역은 [1]과 동일시하여 아람을 그의 아버지로 일컫고 있다. 또한 히브리어 본문이 여기서 단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세일의 아들인 디산의 아들(창 36:28). [4] 밀가를 통한 나홀의 아들(창 22:21).

우스(Uz, “조언, 견고함”). [1] 욥이 살던 나라(욥 1:1). 다메섹 남쪽의 화란(Huaran)이나 에돔과 북부 아프리카 중간 지역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에돔에서 멀지 않은 나라(렘 25:20; 애 4:21). [1]과 동일지역인 듯하다.

웃사(Uzza, “힘”). [1] 언약궤를 만지다가 하나님께 죽임당한 사람(삼하 6:2~7; 대상 13:6~10). [2] 므라리의 후손(대상 6:29). [3] 에훗의 후손(대상 8:7). [4]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디님 가족의 선조(스 2:49; 느 7:51).

웃시아(Uzziah, “여호와와는 강하다” 혹은 “나의 힘은 여호와”). [1] 유다의 11대 왕. 불법적으로 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이가 되었다. 아사라로도 불리웠다(왕하 15:1~8; 대하 26장). 그리스도의 선조였다(마 1:8,9). [2] 그훗의 후손이자 사무엘의 선조인 레위인(대상 6:24). [3] 여호나단의 아버지(대상 27:25). [4]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스 10:21). [5] 유다의 후손(느 11:4).

웃시엘(Uzziel, “하나님은 나의 힘” 혹은 “하나님은 강하다”). [1] 웃시엘족의 선조이자 그훗의 아들(출 6:18). [2] 시므온의 자손의 족장(대상 4:42). [3] 벨라의 아들이자 베나민의 손자(대상 7:7). [4] 성벽 건축을 도운 자(느 3:8). [5] 성전 정화를 도운 여두둔의 아들인 레위인(대하 29:14). [6]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위해 임명한 음악가(대상 25:4). 18절의 웃시엘은 아사렐과 동일 인물이다.

유니게(Eunice, “정복의 우물”). 디모데의 경건한 어머니(딤후 1:5; 행 16:1).

유다(Judah, “여호와의 찬양”). 최초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영토 베냐민과 더불어 솔로몬의 죽음 후에 남왕국을 형성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불확실한 경계는 이스라엘의 베엘과 유다의 라마 사이에 해당했다. 예루살렘이 그 수도였다(대하 13:18; 15:8).

유다(Judah{Judas; Jude}, “찬양”). [1] 레아를 통한 야곱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선조.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얻었다. 그 후손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하나가 되었다(창 29:35; 37:26~28;

43:3~10; 마 1:2,3; 눅 3:33). [2] 성전 재건을 도운 자의 선조(스 3:9). [4]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스 10:23). [4] 포로귀환 후 예루살렘의 제 2인자(느 11:9). [5]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느 12:8). [6] 유다의 족장(느 12:34). [7] 제사장이자 음악가(느 12:36). [8] 열두 사도의 하나.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마 10:4; 26:14,25,47; 27:3; 눅 6:16; 22:3,47,48). 헤브론에서 19km 떨어진 “기룻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이는 가룻인으로 불리웠다. [9] 예수님의 형제 중 하나(마 13:55; 막 6:3). [10]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행 5:37). [11] 바울이 다메섹에 함께 머문 자(행 9:11). [12]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보냄 받은 자(행 15:22,27). [13] 다대오 참조 [14],[15] 그리스도의 선조(눅 3:26,30).

유대(Judea, “여호와와의 찬양”). 바사의 지방으로 처음 언급되었다(스 5:8). 후에 로마의 지방이 되었다(마 2:1). 그 북부 경계는 서쪽의 읍바에서 동쪽의 사해 북쪽으로 16.1km 떨어진 지점까지였다. 그 남부 경계는 가사 남서쪽 10km 지점에서 브엘세바를 거쳐 사해 남단까지였다.

유두고(Eutyclus, “행운의”). 바울이 소생케 한 드로아의 젊은이(행 20:6~12).

유브라테(Euphrates, 뜻은 알 수 없다). 아르메니아에서 발원하여 티그리스강과 합류하여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서아시아(중동)의 주요 강.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경계를 이루었다(창 2:14; 15:18).

유스도(Justus, “정당한”). [1] 바울이 함께 거한 고린도의 신자(행 18:7). [2] 예수 [2]참조. [3] 요셉 [1]참조.

으블로(Eubulus, “선한 지혜를 가진”). 바울에게 끝까지 충성한 로마의 그리스도인 중 하나(딤후 4:21).

이갈(Igal, “여호와께서 구속하신다”) [1] 가나안 정탐을 위해 파송된 열두 명 중 하나(민 13:7). [2] 다윗의 용사 중 하나(삼하 23:36). [3] 유다 왕족의 후손(대상 3:22).

이고니온(Iconium, “도래(到來)”).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행 13:51; 14:1).

이탈리아(Italy, “송아지”). 남쪽으로 메시나 해협을 경계로 하는, 알프스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반도(행 18:2; 27:1).

이드로(Jethro, “탁월함”). 모세의 장인. 모세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업무를 분담할 것을 조언했다(출 3:1; 4:18; 18:1~12).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르우엘, KJV의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라구엘로 각각 불리운다. 히브리어 본문은 르우엘로 표기하고 있다.

이라(Ira, “경계하는”). [1] 다윗의 제사장(삼하 20:26). [2] 다윗의 30 용사 중 하나(대상 11:28; 삼하 23:38)이자 성전을 지키는 장관(대상 27:9). [3] 다윗의 30 용사 중 또 하나(대상 11:40; 삼하 23:26).

이사야(Isaiah, “여호와와의 구원”). “선지자들의 왕”으로 불리운다. 60년 이상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다(사 1:1; 7:14; 9:6; 52:12~53).

이삭(Issac, “딸”).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창 21~25장; 마 1:2).

이새(Jesse,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 부유한”). 다윗의 아버지이자 그리스도의 선조(룻 4:17,22; 삼상 17:17; 마 1:5,6).

이세벨(Jezebel, “높임 받지 못하다; 남편을 얻지 못하다”). [1] 사악한 우상숭배자인 이스라엘의 왕후(왕상 16:31; 18:4~21:25; 왕하 9:7~37). [2] 두아디라의 거짓 여선지자(계 2:20). 이 이름은 그 여선지자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름인 듯하다.

이스가롯(Iscariot). 유다 [8]참조.

이스라엘(Israel). 야곱 참조.

이스라엘(Israel,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스보셋과 여로보암을 따르는 열 지파가 거주한, 팔레스타인 북부의 히브리인 왕국. 여리고와 게셀의 성읍들이 그 남부 경계를 이뤘다(대하 35:18; 창 32:32).

이스르엘(Jezreel,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1] 에담의 후손(대상 4:3). [2] 호세아의 아들의 상징적인 이름(호 1:4).

이스마엘(Ishmael, “하나님이 들으신다”). [1]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그 후손이 아라비아 유목민이다(창 16:11~16; 17:18~26; 25:9~17; 28:9; 36:3). [2] 느다나의 간교한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반역자(렘 40:8~41:18). [3] 베냐민의 후손(대상 8:38). [4] 스바다의 아버지(대하 19:11). [5] 여호아다와 요아스 시대의 장관(대하 23:1). [6]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레위인(스 10:22).

이스보셋(Ishbosheth, “수치의 사람”). 사울 왕의 아들이자 후계자. 2년간 통치하다 다윗에게 패배당했다(삼하 2:8~15; 3:8,14, 15; 4:5~12). 에스바알로도 알려졌다(대상 8:33; 9:39).

인도(India, 뜻은 알 수 없다). 인더스강을 에워싼, 바사 제국 동쪽 경계에 있는 나라(에 1:1; 8:9).

일루리곤(Illyricum, “기쁨”). 북쪽의 이태리에서 남쪽의 마케도니아까지 이르는, 아드리아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로마 지방(롬 15:19). 후에 달마디아로 개명되었다.

임나(Imnah). 임나 참조.

임나(Imna{Jimna; Jimnah; Imnah}, “끌어당김”). [1] 아셀의 후손(창 46:17; 대상 7:35). [2] 아셀의 아들(민 26:44; 대상 7:30). [3] 히스기야 시대의 고레의 아버지(대하 31:14).

임멜(Immer, “절름발이”). 바벨론의 사람 내지 장소(스 2:59; 느

7:61).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입다(Jephthah, “반대자”). 그의 백성을 암몬에게서 구원한 이스라엘의 사사(삿 11~12:7).

입산(Ibzan, “유명한; 장려한”).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베들레헴 사람(삿 12:8~10).

잇대(Ittai, “때에 맞은”). 다윗의 블레셋 친구이자 장관(삼하 15:11~22; 18:2,4,12).

잇도(Iddo, “장식된”). [1] 이스라엘 열왕에 대해 기술한 선지자(대하 9:29; 대하 12:15). [2]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느 12:4). [1]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잇사갈(Issachar, “보상”). [1] 야곱의 아홉째 아들이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선조(창 30:17,18; 49:14,15). [2] 성막 운반자(대상 26:5)



지옥(Hell, “숨기다”). 분리된 자를 위한 저주의 장소. “하데스”는 모든 죽은 영혼이 거하는 곳을 뜻하는 “스올”을 가리키는 신약의 명칭이다(시 16:10; 마 11:23; 행 2:27). KJV 역시 예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예루살렘 성밖 골짜기인 ‘게헨나’를 ‘지옥’으로 옮기고 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는 하데스가 낙원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눅 23:43), 불신자들에게는 그곳이 “게헨나”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6:22,23).



토기장이의 밭(Potter's Field). 아겔다마 참조.



평지 성읍(Cities of the Plain). 요단 평지에 위치한 다섯 성읍: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창 10:19; 13:10).



하갈(Hagar, “방황”). 사라의 애굽인 중.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었다(창 16:1-16; 21:14-17).

하나냐(Hananiah,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1] 베냐민의 후손(대상 8:24). [2] 웃시아의 신복(대하 26:11). [3] 여호야김의 관원의 아버지(렘 36:12). [4] 다윗의 악사 중 16번째 반열의 지도자(대상 25:4,23). [5] 이리아의 조부(렘 37:13). [6]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렘 28장). [7]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의 친구 중 하나(단 1:7,11,19). 사드락 참조. [8] 스룹바벨의 아들(대상 3:19,21). [9] 포로기간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레위인(스 10:28). [10]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운 약제사 겸 제사장(느 3:8). [11] 예루살렘 성문 재건을 도운 자(느 3:30). [10]과 동일인물인 듯하다. [12] 예루살렘을 책임 맡은 신실한 이스라엘인(느 7:2). [13] 포로귀환 후 하나님과의 새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23). [14]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에 참석한 제사장(느 12:12,41).

하나니(Hanani, “은혜로운”). [1] 성전 봉사의 한 부분을 맡은 악사 겸 두령(대상 25:4,25). [2] 선지자 예후의 아버지. 아사에 의해 투옥되었다(왕상 16:1,7; 대하 16:7~10). [3]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스 10:20). [4] 느헤미야의 형제이자 그 휘하의 예루살렘 관원(느 1:2; 7:2). [5] 예루살렘 성벽의 정화를 도운 제사장 겸 악사(느 12:36).

하녹(Hanoch{Enoch}, “바쳐진”). [1] 아브라함의 손자(창 25:4). [2] 르우벤의 장자이자 하녹 족속의 시조(창 46:9; 대상 5:3). [3] 야렛의 아들 에녹(대상 1:3).

하닷사(Hadassah, “은매화”). 에스더의 히브리어 이름.

하란(Haran, “강한; 빛을 받은”). [1] 부친보다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창 11:26~31). [2] 레위의 후손(대상 23:9). [3] 갈렙의 아들(대상 2:46).

하란(Haran, “산”). 니스웨에서 북서쪽으로 386km, 다메섹에서 북북동쪽으로 450km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성읍(창 11:31).

하만(Haman, “유명한 후만(흠반)”). 유대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민 아하수에로의 총리대신(에 3~9장).

하맛(Hamath, “분노”). [1] 다메섹 북부 200km에 위치한 오른 테스 강변의 히트 족속의 성읍(대하 8:4). [2]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북부 경계(민 13:21; 34:8).

하몬 곱(Hamon Gog, “곱의 무리”). 곱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과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골짜기(겔 39:11~15).

하박국(Habakkuk, “사랑의 포옹”). 여호야김과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합 1:1; 3:1).

하사바(Hashabiah, “여호와께서 연락되셨다”). [1] 레위의 후손(대상 6:45). [2] 레위의 또 다른 후손(대상 9:14). [3] 여두둔의 아들(대상 25:3). [4] 그핫의 후손(대상 26:30). [5] 레위 지파의 족장인 그무엘의 아들(대상 27:17). [6] 레위 일파의 족장(대하 35:9). [7]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레위인(스 8:19). [8] 그हत가문의 족장(스 8:24). [9]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한 자(느 3:17). [10] 느헤미야의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11). [11] 일부 성전 기능을 책임 맡은 레위인(느 11:15). [12] 성전의 하수인(느 11:22). [13]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느 12:21). [14] 지도자급 레위인(느 12:

24). ([9],[12],[14]는 동일인물을 가리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사엘(Hazael,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아람의 왕위를 찬탈한 벤하닷 2세를 죽인 자(왕상 19:15,17; 왕하 8:8~29).

하솔(Hazor, “포위”). [1] 후에 북부 팔레스타인의 납달리 영토에 포함된 가나안 왕국의 수도(수 11:1,10,13). 중요한 고고학적 탐사 지역. [2] 유다 남단 지역(수 15:23). 현재의 엘-여바리예(*el-Jebariyeh*)로 추정. [3] 남부 유다의 또 다른 성읍(수 15:25). [4] 유대인 포로가 돌아온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느 11:33). 예루살렘에서 북북서쪽으로 6km 떨어진 현재의 기르벳 핫술(*Khirbet Hazzur*). [5] 팔레스타인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 지역(렘 49:28,30,33).

하와(Eve, “생명; 생명부여”). 최초의 여자이자 아담의 아내(창 3:20; 4:1; 대하 11:3).

학개(Haggai, “명절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언을 한 선지자 중 첫 번째 선지자(스 5:1; 학 1:1,3,12).

학깃(Haggith, “명절의”). 다윗의 다섯째 아내이자 아도니아의 어머니(삼하 3:4; 왕상 1:5,11).

한나(Hannah, “은혜”). 여선지자이자 사무엘의 어머니(삼상 1장).

함(Ham). [1] 시에서만 사용되는 애굽에 대한 명칭(시 78:51). [2] 바산의 아스다롯 가나임과 모압 지방 사이에 있는 지역(창 14:5). 알룬(Ajlun) 지방의 일비드(Irbid) 남쪽 7km 떨어진 현재의 함(Ham)인 듯하다.

함(Ham). 노아의 말째 아들. 그 악함 까닭에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창 5:32; 9:22-27).

핫두스(Hattush, “다투는 자”). [1] 유다 열왕, 아마도 스가나의 후손(대상 3:22). [2]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윗

의 후손(스 8:2). [3]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느 12:2). [4]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도운 자(느 3:10). [5] 언약에 인을 친 제사장(느 10:1,4). ([1],[2],[3],[5]는 동일인물을 가리킬지 모른다.)

헤몬(Hermon, “파괴에 몰입된”). 팔레스타인 북동부 경계를 이루는 안티 레비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신 3:8; 수 11:17; 대상 5:23).

헤로디아(Herodias, “영웅적인”).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안디바의 아내. 세례 요한을 죽게 했다(마 14:3~9; 눅 3:19).

헤롯(Herod, “영웅적인”). [1]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의 유대의 간교한 왕인 헤롯 대왕. 권력유지를 위해 메시아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했다(마 2:1~22; 눅 1:5). [2]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갈릴리와 베페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 세례 요한을 살해했다(마 14:1~10; 눅 13:31,32; 23:7~12). [3]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이두래와 드라고넛의 분봉왕인 헤롯 빌립(눅 3:1). [4]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자 헤롯 안디바가 그 아내를 취한 헤롯 빌립(마 14:3). [5] 갈릴리의 분봉왕이자 마침내 그 조부(즉, 헤롯 대왕)의 옛 영토를 다스린 헤롯 아그립바 1세. 그리스도인들을 혹심하게 핍박했다(행 12:1~23). [6]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자 여러 영토를 거느린 왕인 헤롯 아그립바 2세.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행 25:13~26; 26:1~32). 아켈라오, 버니게, 드루실라 참조.

헤만(Heman, “신실한”). [1] 다윗에 의해 성전의 육성 및 악기 음악의 지도자로 임명받은 음악가 겸 감독자(대상 6:33; 15:17; 대하 5:12; 35:15). [2] 솔로몬과 비교된 지혜로운 자(왕상 4:31; 대상 2:6). 묵상의 시를 지었다(시 88편 표제어).

헤벨(Heber, “동료”). [1] 아셀의 후손(창 46:17; 대상 7:31,32).

[2] 시스라를 죽인 아엘의 남편(삿 4:11,17,21; 5:24). [3] 유다 일파의 두령(대상 4:18). [4] 베냐민의 후손(대상 8:17). [5] 누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벤 [1]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

헤브론(Hebron, “우정”). [1] 예루살렘 남쪽 32km에 위치한 유다 산지의 성읍(창 13:18; 민 13:22). [2] 압돈으로 보다 빈번하게 불리우는 아셀 지파에 속한 마을(수 21:30).

헬라(그리스, Greece, 뜻은 불확실하다). 이태리와 소아시아 사이의 남부 유럽 국가. 고대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단 8:21; 슥 9:13; 행 20:2).

호렙(Horeb, “광야”). 시내산이 최고봉인 시나이 반도의 산맥(출 17:6). 현재는 세발(Serbal) 산맥으로 불리운다.

호밥(Hobab, “사랑받는”). 모세의 장인 내지 처남(민 10:29; 삿 4:11). 사사기 4장 11절의 “장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인척”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이드로가 호밥이라고도 불리웠을 수도 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다. 이드로 참조.

호세아(Hosea, “도움, 즉 여호와는 도움”).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우상숭배를 꾸짖었다(호 1:1,2).

호세아(Hoshea{Hosea}, “여호와는 도움 혹은 구원”). [1] 다윗 시대의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대상 27:20). [2]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앗수르의 사르곤에 의해 투옥되었다(왕하 15:30; 17:1,4,6; 18:1). [3] 느헤미야와의 언약에 인을 친 자(느 10:23). [3]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

홍해(Red Sea). 애굽과 아라비아를 나눈 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도피했다(출 10:19). 히브리인들은 구원의 바다로 불렀으나 다른 이들은 갈대 바다로 불렀다.

후람(Huram). 히람 참조.

후새(Hushai, “신속한”).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삼하 15:32,37;

16:16~18; 17:5~15).

홀(Hur, “자유로운; 고귀한”). [1] 아말렉과의 전쟁 동안 모세의 팔을 든 사람 중 하나(출 17:10,12; 24:14). [2] 갈렙의 아들(출 31:2; 35:30; 38:22; 대상 2:19,50; 4:1,4). [3] 이스라엘에게 죽임 당한 미디안 왕(민 31:8; 수 13:21). [4] 에브라임 산지를 맡은 솔로몬의 장관(왕상 4:8). [5] 느헤미야 치하에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 자(느 3:9).

히람(Hiram(Huram)). “내 형제는 존귀케 된 자”라는 뜻의 아히람의 단축형. [1] 다윗과 솔로몬과 우호관계를 가진 두로 왕(삼하 5:11; 왕상 5; 9:11; 10:11). [2]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서 확보한 놋 기술공(왕상 7:13,40,45; 대하 4:11,16). [3] 베냐민의 후손(대상 8:5).

히스기야(Hezekiah, “여호와와는 힘”). [1]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스 2:16; 느 7:21). [2] 유다의 12대 왕이자 그리스도의 선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향상시켰다(왕하 18~20장; 대하 29~32장; 마 1:9,10). [3] 유다 왕족의 후손인 느아라의 아들(대상 3:23).

히엘(Hiel,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리고를 재건하려다(왕상 16:34) 그 아들들을 희생시켜 여호수아의 저주를 성취시킨 자(수 6:26).

힌놈(Hinnom). 예루살렘 근처 골짜기가 그 이름을 본따 이름지어진 아들(들)이 있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 예레미야 시대에 거기서 인간 제사가 행해졌으며, 후에 쓰레기가 이 더러운 곳에서 불태워졌다(수 15:8; 18:16; 느 11:30; 렘 7:31,32).

힌놈(Hinnom, “그들의 부(富)”). 예루살렘 남서부의 좁은 골짜기(수 15:8; 18:16; 대하 28:3).

힐기야(Hilkiah, “여호와와는 보호” 혹은 “나의 기업”). [1] 에스라

와 함께 서서 율법을 강론한 자(느 8:4). [2] 성전 봉사자의 자녀를 돌본 레위인(대상 6:45). [3] 성막의 문지기(대상 26:11). [4] 히스기야 왕의 궁내 대신의 아버지(왕하 18:18,26; 사 22:20; 36:3). [5] 아나돗의 제사장이자 예레미야의 아버지(렘 1:1). [6] 요시야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자 율법책의 발견자(왕하 22:4,8; 23:4). [7] 그마라의 아버지(렘 29:3). [8]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의 두령과 그의 후손(느 12:12,21).

히데겔(Hiddekel, “건전한”). 티그리스강의 옛 이름(창 2:14; 단 10:4). 유브라테강보다 좁으나 수량은 더 풍부하다. 페르시아만에 서 140km 떨어진 알 쿠르나에서 유브라테강과 합류한다.

전도용으로 좋은 책	전도용으로 좋은 책
당신이 꼭 여야 될 말씀 편집부/16면/200원	십자가의 도 유안권/36면/500원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주 편집부/16면/200원	속아사는 인생들이여! 허윤옥/64면/1,200원
두 길과 두 운명 킬렘 베이커/32면/800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D.L.루디/32면/800원
생명을 위한 생명 편집부/36면/500원	이것을 믿습니까? O.J.스미스/96면/1,500원
구원의 안전 확산 기쁨 조지 커틀/48면/1,000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 O.J.스미스/114면/2,000원
어떻게 거듭날까? 이춘원/36면/500원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총판) 박규업/238면/7,000원
침뎀 구원이란? 알렉산더 마샬/36면/500원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 없다(총판) 박규업/192면/6,000원
복음에 관한 오해들 알버트 호오펜/36면/500원	그리스도나, 종교나? 편집부 역음/36면/500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편집부/36면/500원	믿음의 조건 송채국/36면/500원
믿어도 죄인인가? 허윤옥/36면/500원	말씀이 육신 되어(복음의 빛 그림 우화) 황삼진/192면/5,500원
불가능한 일들 알프레드 P.킨스/24면/500원	하나님의 기쁨 소식 알프레드 킨스/96면/1,500원
구원이란 무엇인가? 송채국/36면/500원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로버트 시익스 외/96면/2,300원
율법이란 무엇인가? 송채국/36면/500원	온 천하를 얻고도 김우중/96면/1,800원
중생(거듭남) 그것은 무엇인가? 송채국/36면/500원	단번에 영원히 김우중/96면/1,800원
하나님의 구원계획 송채국/36면/500원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차윤환/208면/6,000원
홍수를 통한 교훈 송채국/36면/500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전도지 모음) 편집부 역음/128면/3,500원
응수받지 못하는 죄 J.S. 벡스터/36면/500원	전도지 54종류(칼리화보, 예화를 통한 복음 소개) 정당 15원/교회란 인쇄시 18원/3,000장 이상 인쇄가능)
성경을 알고 자신을 알라 허윤옥/64면/1,500원	전동지는 폭포수-나이가가라 아르넷 P. 맥킨티/128면/3,500원
영혼의 해답 김종안/72면/1,000원	타이타닉호의 비극 아르넷 P. 맥킨티/96면/2,500원
들으라 지옥에서 들려오는 통곡을 허윤옥/32면/500원	구원의 확신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H.A.아이언사이드/144면/4,000원
믿는 자의 영원한 안전 H.A.아이언사이드/96면/1,500원	사람의 마음 존 A. 쇼트/64면/1,500원
해답은 있는가? 존 발렌차드/64면/1,200원	하나님의 마음 존 A. 쇼트/96면/2,000원
단 한 번 뿐인 인생 월리엄 맥도날드/96면/2,000원	
용서와 자유 월리엄 맥도날드/96면/1,500원	
하나님의 은혜 월리엄 맥도날드/88면/1,500원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월리엄 맥도날드/64면/1,200원	
입박한 아이갓돈 월리엄 맥도날드/64면/1,200원	
십자가에서 완성한 단번 속죄 송채국/36면/500원	
기독교인은 과연 예수를 믿는가? 정홍선/192면/6,000원	
죄와 종교로부터의 자유 허윤옥/128면/3,500원	
영원한 안전 하워드 P. 바커/234면/7,000원	
믿음으로 단번에 얻은 구원 편집부/36면/500원	

그리스도인의 간증 및 전기	어린이들과 함께 보는 책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비와인 키서/128면/2,500원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 안나 포터 라이트/128면/1,800원
햇빛나라 크리스티나 로이/176면/4,000원	또다른 소년 J.C.블럼필드/96면/1,500원
사하리의 사내들 찰스 R.마쉬/256면/4,300원	눈보다 희게 O.F.윌튼/144면/1,700원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112면/3,000원	어린이 천로역정(상) 존 번연/272면/5,000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윌리엄 윌리암즈/104면/1,500원	어린이 천로역정(하) 존 번연/192면/4,500원
북치는 소년병 M.L.로스발리/96면/1,500원	극히 값진 진주(만화) 이승희/48면/700원
작은 어린 글래디스 아일워드/176면/5,000원	발리도의 보고서(만화) 이승희/48면/700원
아이언사이드의 생애 드윌러 임글리쉬/240면/3,800원	아침에 만나오(만화) 이승희/48면/700원
나의 아르메니아 나의 하나님! 도나티 데이어/192면/3,000원	두 형제(만화) 이승희/48면/700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김리라/64면/900원	종교에서 생명으로(만화)-요한 웨슬레의 생애 이광희/128면/2,500원
윌리엄 부덴의 생애 하워드 테일러/320면/4,500원	강 자편에서 온 죄수 지오프리 T.블/144면/2,800원
하나님의 도성을 찾은 히브리인들 루디아 맥스베이즌/320면/5,000원	어린이를 위한 십자가 이야기 아바모드 스카히로/96면/2,000원
숨은 보배 새생명의 사람들/176면/2,500원	예수님이 좋아요 편집부/160면/3,500원
변화된 강도 찰스 루케워/64면/1,500원	만화로 보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상) 존 번연 원작/최일호 그림/152면/5,000원
시베리아로부터의 탈출 게르하르트 랑/96면/2,000원	만화로 보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하) 존 번연 원작/최일호 그림/132면/5,000원
주님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리차드 뵘블린트/128면/2,600원	알래스카 여행, 그리고 다른 선교 이야기들 마거릿 진 튜닝가/96면/2,500원
자유를 위한 투쟁 카린 맥켄지/48면/900원	
어머니의 등지 김광주/144면/3,300원	
도망자-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 파트리시아 M.S. 오행/192면/4,000원	
그리스도를 만난 윌리 N.I. 살로프-아스타르크/80면/1,500원	
無에서 有를 자아내는 하나님 구로다 데이 이찌로후/224면/5,500원	
존과 베티 스템의 위대한 승리 하워드 테일러/160/4,000원	
영광의 문을 지나 엘리자베스 엘리오투/223면/6,500원	
베네수엘라에 밝아온 새 날 윌리엄 윌리암즈/224면/8,000원	

신앙생활 지침서	신앙생활 지침서
의사의 눈을 통해 본 병고치는 기적 A.C. 할/36면/500원	황금의 집-성막원색 사진 31판 J. 루우/96면/3,300원
그리스도인과 고난 켈투르드 할로우/36면/5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윌리엄 맥도날드/114면/2,5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2세/44면/5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윈 하빌/360면/10,0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니널드 윌리스/36면/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알렉산더 스트라우크/224면/6,0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폴 리틀/36면/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라우크/80면/1,700원
믿는 자들의 척 존 슬라보/36면/500원	설교자와 그의 설교 A.P. 김스/464면/12,0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M.프라이저, 송기삼/64면/1,200원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예배 A.P. 김스/240면/6,000원
오늘날의 방언 데이비드 뢰/48면/800원	주님의 만찬 A.P. 김스/256면/5,500원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64면/1,200원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찰스 C. 라이리/242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프랭클린 피거슨/64면/1,200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로포드 외/288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C.I. 스크폴드/96면/1,5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M. 모리스/320면/6,0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96면/1,800원	핵심 설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496면/11,0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날드 칼 노트 2세/96면/1,500원	나그네의 소금 이춘왕/306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존 윌리엄 브람홀/128면/2,000원	왜그리와 루렁이(생명의 빛 칼럼) 이용민/240면/6,0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데이비드 뢰/96면/1,500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찰스 스텔러/192면/4,500원
바울과의 항해 H.A. 아이언사이드/96면/1,500원	세계 선교-전면전 L.E. 맥스웰/208면/3,500원
베드로의 시역과 증거 R.E. 할로우/96면/1,500원	엘리아, 엘리사 C.E. 타랴, V.E. 트람멜/144면/2,800원
일곱 절기와 다섯 제사 존 리치/128면/3,200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윌리엄 로저스/128면/3,000원
광야의 성막 존 리치/160면/2,800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박준형/96면/1,700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존 리치/160면/4,000원	구원의 영원성과 난해구절 해설 박준형/96면/2,500원
주 예수님의 재림 존 리치/128면/2,000원	영원을 계산하는 삶 윌리엄 맥도날드/128면/2,800원
믿음의 근본지리들 존 리치/128면/2,200원	참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96면/1,800원
성령님의 역사 어네스트 타담/96면/1,800원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448면/11,000원
신약에 감추어진 교리적인 비밀들 T. 어네스트 윌슨/142면/3,000원	성령충만한 가정 편집부 역음/146면/3,300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R.E. 할로우/128면/1,800원	결혼과 가정 A.J. 히긴스/160면/4,000원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톱/200면/3,800원	잊혀진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240면/6,500원
제사장 의복 C.W. 슬래임/208면/4,500원	장차 되어질 일들 R.E. 할로우/128면/3,500원
거짓 선지자 발람과 전도자 요나 W.W.페러데이/176면/4,800원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96면/2,300원
말씀이 육신 되어 황상진/192면/5,500원	집대에 대한 명령 알렉산더 스트라우크/96면/2,500원
천사들 J.B. 커리/80면/2,000원	부흥(부흥의 모형들) 데이비드 뢰/242면/6,500원
예배·복음 찬송가(금도련,가족피) 657곡/12,000원	이렇게 구분된다 윌리엄 맥도날드/192면/6,500원
삶의 원리와 이단사상들 추복현/128면/4,000원	바른 분별, 바른 실행 편집부/96면/2,000원

신앙생활 지침서	Q.T 및 훈련교재
암송 카드-교회 진리, 제자의 삶, 전도의 삶 편집부52오질각 1,000원	매일 성경 큐티-사사기. 롯기 최가관2038면4,000
암송 카드-구원의 진리①, 구원의 진리② 편집부52오질각 1,000원	매일 성경 큐티-사도행전, 화개 최가관2569면5,000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416면/10,000원	매일 성경 큐티-히박국, 요한일서, 느헤미야 최가관224면4,500
말씀의 올바른 해석 존 필립스384면9,500원	매일 성경 큐티-갈라디아서, 아모스, 데살로니기전후서 최가관208면4,500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 존 B.D. 페이지264면7,000원	매일 성경 큐티-고린도전후서 최가관272면6,000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C.H. 매킨토쉬160면4,000원	매일 성경 큐티-누가복음 최가관336면8,000원
여자의 너울과 하나님의 영광 피터 위96면1,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일문편 O.J. 김순/128면3,500
레위기기의 다섯 제사 H.A. 아이언사이드80면2,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기초편 O.J. 김순/128면4,000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찰스 스테이1240면5,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성장편 O.J. 김순/128면3,500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F.B. 메이104288면7,0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완성편 O.J. 김순/128면3,500
신비로운 개미의 세계 델라 레크만144면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양육(교사용) O.J. 김순/128면2,500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최가관288면8,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양육(학생용) O.J. 김순/128면1,200
경건의 시간 최가관96면2,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J. 김순/128면4,000
예수님을 믿은 교사 최가관416면/10,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제자훈련 O.J. 김순/128면3,500
우리 찬양 할기 되게 하소서 최가관176면4,3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결혼생활 O.J. 김순/128면1,800
축복으로 가꾸는 삶 최가관286면 8,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사용 설명서 O.J. 김순/128면1,800
권위와 순종 최가관224면6,500원	B.C.T. 묵상훈련 시리즈-미태복음 정병원/152면2,500원
영적 성숙에 이르는 길 조성훈160면5,0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라우크80면/1,7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조성훈196면5,500원	매일성경 365-외서 먹으라(1년 신약독 큐티) R. E. & G. I. 할로우336면8,500원
은사의 분별과 활용 조성훈160면5,000원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O. J. 김순 128면3,000원
신앙의 경주(1) 조성훈288면7,500원	매일성경큐티-창세기 최가관336면8,500원
신앙의 경주(2) 조성훈368면/10,000원	매일성경큐티-로마서 최가관288면8,500원
신앙의 경주(3) 조성훈368면/10,000원	
그리스도인과 죄 조성훈125면4,000원	
범사에 감사하라 심병익281면9,000원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이야기 정 신/192면6,500원	
천국(Heaven) 윌리엄 맥도날드128면4,000원	
참된 헌신 윌리엄 맥도날드223면8,000원	
기독교와 금송아지 신앙 정 신96면3,000원	
사랑의 삶 W. 그레함 스크로기96면3,000원	
다윗과 그의 충성스런 사람들 그레함 스텝스96면3,000원	

신자 성경주석(구약)—선지서(2)

발행일: 2004년 1월 10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정 병 은

발행인: 이 치 일(E. Ritchie)

발행소: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031) 914-2732

팩 스: (031) 917-4520

정 가: 11,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536-4 03230